금주의 법구–〈별약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6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8월 27일)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새 비구니회장 본각 스님 "마음 하나로" 화합 강조

조계종 제12대 전국비구니회장 당선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9월 18일 선거 1064표 얻어
1184명 투표, 역대 최다 인원
명망 높은 후보에 대중 관심
후보들 열띤 선거운동 영향도

조계종 제12대 전국비구니회장에 본각 스님〈사진〉이 당선됐다. 앞서 임기 내 승려복지 확대에 주력하면서 노스님들의 지지를 받은 현 회장 육문 스님과 30년간 교육자로서 후학양성을 하며 후배들의 지지를 받은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본각 스님의 각축전이 예상대로 펼쳐졌으나 근소한 차이로 본각 스님이 당선의 기쁨을 얻었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9월 18일 서울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제12대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직선제를 통해 제12대 회장으로 본각 스님을 선출했다. 본각 스님은 총 1880표 중 1064표를 얻어 789표를 얻은 경쟁후보 육문 스님을 제쳤다. 무효표 23표, 기권 3표. 회장 임기는 11월 1일부터 4년간이다.

이번 선거는 총 1910명이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올려 전국비구니회가 2011년 직선제를 처음 시행한 이후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2011년 제10대 회장 선거에는 1456명이 점명해 1366명이, 제11대 회장 선거에는 1193명이 점명해 1184명이 투표했다.

2011년은 첫 직선제 시행이라는 점, 2015년은 당시 열린비구니모임을 주도로 집행부 교체에 대한 여론이 형성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많은 인원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올해는 이보다 더 큰 유권자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선거에 후보로 나선 육문 스님과 본각 스님은 비구니스님들 사이에서도 각각 회장후보로 추대될 만큼 명망 있는 인물이다. 이처럼 영향력이 큰 스님들의 입후보와 열띤 선거운동으로 인해 양측 선거대책위원회가 예상한 투표 최대인원인 1500명을 훨씬 웃도는 인원이 전국비구니회관으로 발길을 옮긴 모양새다. 총 유권자인 6000여 비구니스님들의 3분의 1가량이 투표에 참여한 셈이다.

비구니회 관계자들도 "평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던 은둔형 회원들도 이번 선거만큼은 관심 깊게 지켜본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제12대 회장으로 당선된 본각 스님도 이 같은 대중의 관심을 인식한 듯 당선소감을 통해 선거로 과열된 갈등을 뒤로 하고 한국불교 발전을 위해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각 스님은 "짧은 선거기간이었지만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그 기간에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우리 모두는 한 방울의 물이다. 전부 흘러서 강을 만들고 바다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넓은 법의 바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각 스님은 선거과정에서 한 스님으로부터 들은 경책을 전하면서 6천여 비구니가 화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본각 스님은 "어느 스님이 선거 끝나면 내일은 중노릇 안 할 거냐고 경책하셨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중노릇을 해야 한다"며 "사람들이 말하기를 한국불교는 큰 목선이 좌초돼 썩어가고 있다고 한다. 한국불교가 썩어가는 배라면 우리는 빨리 새로운 반야용선을 만들어 타야한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본각 스님은 또한 앞서 제시한 5대 공약의 실천을 위해 제도와 조직을 정비하는 한편, 법룡사를 중심으로 재정을 마련해 모든 비구니스님들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본각 스님은 "회장으로 당선됐지만 기쁘지 않다. 마음도 가볍지 않다. 우리는 혼자 계시는 노스님이나 사각지대에 계신 스님들을 다 살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한다"면서 "출가감소가 계속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젊은 여성이 비구니 삶의 매력을 느끼도록 할 것인지 고민하겠다. 제가 앞장 설 테니 모두 정은 잠시 내려놓고 법의 바다를 만드는 데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이번 선거가 과열양상으로 치달아 비구니계가 양분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비구니스님들은 선거가 끝나면 한마음으로 다시 모인다. 물론 저부터 다가가겠다"면서 "비구니스님들의 도움 없이 전국비구니회는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 갈라졌던 마음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본각 스님에게 제기된 학력 의혹에 대해서는 "직접 호법부를 찾아가 소명할 계획이다. 1960년대 당시 지역별로 입학조건에 대한 차이가 있었고, 현재는 이를 증명해줄 분이 남아있지 않다"며 "대학도 아닌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이 큰 문제라고 보진 않는다. 모든 건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답했다.



'걸작' 괘불을 만나다 17세기 후반의 걸작으로 평가되는 금당사 괘불(보물 제1266호)이 사부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탄문)은 9월 19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서 공개식을 열고 금당사 괘불을 특별 전시했다. 11월 30일까지 열리는 특별전 '도솔천에서 빛을 밝히다–모악산 금산사'의 일환으로 특별 공개된 금당사 괘불은 10월 10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로비에 전시된다. 글 · 사진=빅재완 기자

'Z세대 포교' 박차, 첫 뉴미디어 영상공모

조계종 포교원 10월 13일까지 접수…총 상금 300만원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는 Z세대가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주력세대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를 대상으로 한 불교계의 접근이 다각화 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스님)이 '신행과 수행, 포교와 문화를 더하다'를 주제로 사상 처음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영상공모전을 실시한다.

영상공모전은 Z세대 포교 콘텐츠 확보 차원에서 진행된다. 모바일 데이터분석 플랫폼인 앱애니에 따르면 2020년 Z세대가 미디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이른다. 이전세대보다 월평균 1.3배 더 뉴미디어에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대한불교청년회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이러한 뉴미디어 매체가 중요한 소통수단인 만큼 뉴미디어 포교 콘텐츠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교원은 지난해부터 웹툰 작가를 비롯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를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하고 올해 8월에는 불교SNS콘텐츠 발생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포교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뉴미디어 환경에 전문성을 갖춘 스님과 불자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모전에는 개인 및 팀 단위로 누구든 참여가 가능하다. 주제는 신행 또는 수행, 포교와 불교문화, 불교 청년과 대학생의 활동, 테마가 있는 불교 영상 등이다. 독립운동 사찰을 탐방한다던지, 청년들이 수행하는 활동의 영상 기록 등 모두 출품 가능하다. 여기에 영화, 연극, 광고, 댄스, 독백, 뮤직비디오, 인터뷰, 뉴스, 펜터마임, 플레시몹, 애니메이션 등 불교와 관련이 있으면 어떤 내용이든 가능하다.

출품작의 경우 영상의 길이는 인스타그램 60초, 유튜브 3분 이내여야 한다. 짧은 길이의 영상인 만큼 주제에 대한 참신한 접근법과 편집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응모자는 개인 외에도 팀별로 참여 가능하다. 출품자당 최대 2가지 작품이 응모 가능하며 기존에 다른 공모전에 출품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응모 기간은 2019년 9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며, 이후 심사를 거쳐 11월 2일 당선작 발표 및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시상 내역은 대상 1명(100만 원), 최우수상 2명(각 50만 원), 우수상 5명(각 20만 원)이다. (02)2011-1903 노덕현 기자

진흥원, BBS불교방송 사장 후보 공모

본인 응모 · 타인 추천 가능
오는 10월 7~11일까지 접수

(재)대한불교진흥원은 BBS불교방송 측의 사장 후보 추천 요청에 따라 불교방송 제10대 사장 후보 공개모집을 실시한다고 9월 23일 밝혔다.

진흥원은 9월 16일자로 (재)불교방송으로부터 '불교방송 사장 후보 추천 요청' 공문이 접수됨에 따라 오는 9월 23일부터 공개모집을 통한 불교방송 사장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공개모집 응모에는 후보자 본인 지원 이외에도 추천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대폭 개방해 눈길을 끈다.

후보 자격 요건은 1958년 1월 1일 출생한 불자이며, 불교의 현대화 의지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비전 제시 역량을 갖고 사회적 신뢰도 제고와 불교방송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이면 된다. 또한 진흥원은 방송의 경쟁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식견과 풍부한 경영 경험과 불교방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인사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소개서, 경영계획서 등이다. 서류접수 기간은 10월 7일부터 11일까지이며, 제출은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한편 접수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최종 2명의 후보자를 선정한 후 (재)불교방송 이사회에 복수 추천할 계획이다. (02)719-2606, 719-1855 김주일 기자



범어사 개산대재 및 선문화교육센터
템플스테이관 개관기념 행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개산 1341주년 개산대재 법요식
일 시 불기 2563(2019)년 10월 2일 수요일 오후 3시
장 소 범어사 대웅전

선문화교육센터 템플스테이관 개관식
일 시 불기 2563(2019)년 10월 2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
장 소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
1부 : 개관식 / 2부 : 문화공연

修心訣 수심결 특별 강좌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 유 대종사
일 시 : 불기 2563(2019)년 10월 14일 (월) ~ 18일(금) 오후 2시
장 소 :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 강당
접 수 : 선착순 500명 원주실 051)508-3636

문 의 | 종무소. 051)508-3122 원주실. 051)508-3636

조계종 중앙종회, 포교원에 호된 질책

제216회 임시회, 종단 포교 정책 대전환 주문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회가 이례적으로 포교원을 향해 강한 질책을 쏟아냈다. 수년간 포교정책에 변화가 없고, 포교원 활동이 지역까지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심지어 지역에서 포교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포교원이 지역포교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9월 19~20일 열린 제216회 임시회서 종책질의를 통해 포교원에 날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포교에 대한 대전환 모색을 주문했다. 앞서 총무부를 비롯해 대부분의 종무기관 부서에 특별한 질의를 하지 않았던 종회의원들도 포교원만큼은 쉬이 넘어가지 않았다. 종회의원들의 발언은 오랫동안 참아왔던 포교원 활동을 지적하기 위해 벼르고 벼른 듯 수위가 높았다.

"살아 있는 포교 못 느낀다"

가장 먼저 정범 스님은 매년 큰 변화가 없는 포교원 예산을 언급하면서 일선사찰들이 포교원에 대한 기대를 접고, 포교를 위해 자립하도록 포교원의 지역포교 포기 선언을 제안했다. 정범 스님은 "종단에 포교원이 있기에 지역에서 너무 많은 기대를 건다. 포교원이 나서서 포교해주길 바라는 곳도 많다. 하지만 포교원 예산은 늘 별다른 변화가 없고, 전국을 위한 포교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며 "차라리 포교원이

지역서 거는 포교원 의존증
포교 자립능력 도리어 해쳐
예산 제한된 포교원 역량에
지역포교 모두 감당 어려워

교육원장엔 진우 스님 선출
신임 원로 자광 스님 추천
종회의원 선거권 자격 강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선언해야 지역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자립을 준비한다"고 꼬집었다.

이는 포교원이 일상업무만으로도 바쁜 상황에서 일선포교까지 감당하긴 어렵다고 판단, 맡을 수 있는 영역을 분명히 해야 산하단체와 지역에서 포교 기틀 마련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지적이다. 즉 '포교원 의존증'을 덜어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정현 스님은 예산 변화가 없는 것은 포교원이 그만큼 역동적인 계획과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216회 임시회가 9월 19~20일 열렸다. 본회의에서 종회의장 범해 스님이 의안 가결을 선포하는 모습.

정현 스님은 "지난 20년간 포교원이 살아 있게 활동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포교원 자체가 포교해야겠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의 구성 같다"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수년간 포교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건 일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적극적으로 활동해 계획을 밝히고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진지하게 업무에 임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만당 스님 역시 "포교원은 지역 포교와 큰 관련이 없는 것 같다. 다들 그렇게 느낀다"며 "신도 고령화에 따른 교재 활자 키우는 것도 뒤로 한 채 불교성전 편찬만 매달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함결 스님도 최근 포교연구실의 활동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견해를 밝혔으며, 혜일 스님은 단순히 포교원뿐만이 아니라 종단차원에서 사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안내와 배려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종회의원들은 포교원이 준비 중인 〈포교법〉 전부개정안에 포교원이 할 수 있는 역할까지만 담아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주문했다.

〈포교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3월 제214회 임시회서 포교분과위원회 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포교원장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질타를 받았다. 종회 분과보다 포교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종도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됐다는 지적에 해당 안건은 철회됐으며, 포교원은 추후 포교원장 명의로 발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종회의원들의 비판에 종회의장 범해 스님도 "포교원이 어디까지 포교업무를 맡을 것인지 분명히 해 새롭게 법안을 개정하라는 의견으로 이해해 달라"며 포교원이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에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청소년재단 설립을 비롯해 지역네트워크 강화 등 다방면으로 고민하겠다. 포교업무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선거법 · 산중총회법 개정

중앙종회는 제8대 교육원장으로 진우 스님을 선출했으며, 신임 원로의원으로 前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을 추천했다. 이외에도 중앙종회의원 선거권을 당해 교구 재적승에서 '법계 중덕 이상' 으로 자격을 제한한 선거법 개정안은 논의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통과됐다. 출석의원 70명 중 47명이 찬성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회의서 의견이 갈렸다. 반대하는 입장은 "앞서 투표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고,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며, 찬성하는 입장은 "품계제도가 정착된 종단서 제도권으로 스님들이 들어오라는 취지"라고 맞섰다. 또한 일각에서는 비구계만 받고 산중을 떠나 있다가 중앙종회의원 선거 때 찾아와 후보들에게 일명 '표 장사'를 하는 스님들이 있다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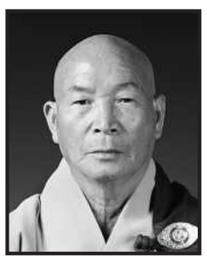
교구본사주지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교구본사주지 자격요건 중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경력' 은 부실장급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중앙종무기관 및 종법령에 의해 설치된 산하기관의 국장급 이상 종무원 4년 이상 재직 경력이 추가됐다.

사설사암의 창건주 권리 승계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사찰법 개정안과 승려의 징계양형을 세분화한 징계법 제정안은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해 다루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214회에 총무원장이 발의한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 관련 종헌개정안과 종법개정안은 총무원이 현재 각 교구별 의견을 취합 중인 관계로 이월을 요청, 오는 11월 정기회서 논의키로 했다.

명예원로 신광당 활안 대종사 원적

18일 천자암서 법랍 67년 · 세수 94세로
분향소 송광사에 마련… 다비 21일 엄수

조계종 명예원로 신광당 활안 대종사 〈사진〉가 9월 18일 오전 9시 10분 주석처인 송광사 천자암에서 원적에 들었다. 법랍 67년, 세수 94세.



1926년 전남 담양에서 태어난 활안 대종사는 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53년 4월 8일 범어사에서 월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58년 3월 10일 통도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상원사, 칠불암, 범어사, 용화사 등 전국의 제방선원에서 정진하고 백운사 주지를 역임했다. 1999년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으로 선출됐다. 2004년 5월 31일에는 대종사 법계를 품수했다.

활안 대종사는 1970년대부터 송광사 구산 스님과의 인연으로 천자암에 주석하며 송광사 수행가풍을 세우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노령에도 새벽 2시에 일어나 도량석과 종송을 하고, 새벽 5시까지 꼿꼿이 서서 염불정진했다. 또한 매년 100일간 방문을 잠그고 수행하는 폐관정진(閉關精進)을 출가 이후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않았던 선지식이었다.

활안 대종사의 분향소는 조계총림 송광사에 마련됐으며, 장례는 4일간 영결식 없이 문도장으로 치러졌다. 다비식은 9월 21일 오전 9시 송광사 연화대에서 엄수됐다. 〈다비식 차주 상보〉

신성민 기자

李 총리 "불교현안 관계부처와 상의"

조계종 원행 총무원장과 환담
국민적 · 문화적 민원에 공감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화재 보호와 문화재구역입장료 등 불교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부처 협의기구를 구성해달라는 조계종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9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고, 불교계를 둘러싼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가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원행 스님은 "불교계가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다. 하지만 4~5개 정부부처에 업무가 혼재돼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불교계와 정부부처가 함께 논의할 테이블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석한 총무부장 금곡 스님도 "현안들은 불교민원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원이기도 하기에 단순히 종교가 아닌 국민적, 문화적 민원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방문한 이낙연 총리와 합장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이에 이 총리는 "말씀하신대로 종교의 문제를 뛰어넘는 사안으로 알고 있다. 문화재는 종교를 넘어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시민들의 통행 문제는 스님들의 생활과도 연결된다"며 "관계부처와 잘 상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원행 스님과 이 총리는 또한 백제에 불교를 전파한 마라난타 스님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원행 스님은 "파키스탄 대사 초청으로 11월에 파키스탄에 갈 예정이다. 대사께서 영광에 마련된 마라난타사에 가보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마라난타 스님의 영향으로 영광군에 법성이라는 지명이 생기고 불갑사가 세워졌다. 스님의 포교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법진 스님 직무정지가처분 서울고법 재판부 항소 기각

"직무정지 이유 소명 안 돼"

여직원 성추행으로 징역6월 실형을 선고받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왕정옥)는 38명의 선학원 관계자와 분원장들이 제기한 법진 스님의 선학원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를 9월 1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진 스님의 이사직과 이사장직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이유가 고도로 소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법진 스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앞서 4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항고심 기각에 법진 스님의 퇴진을 촉구해온 선학원미래포럼 측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추후 대응방안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섭 기자

불교문화도시 부산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불교대축제
"1천 분의 스님과 10만(십만) 불자가 참여 합니다"

일시 : 2019. 10. 20(일) 오후2시
장소 : 부산시민공원 잔디광장

"축제의 시간"
송가인, 모모랜드, 더보이즈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 주 최 |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주 관 | 불교문화대축제조직위원회
| 특별후원 | 범어사, 삼광사, 통도사, 해인사, 쌍계사, 진각종, 태고종, 법연종, 건봉사
| 후 원 | KBS부산방송총국, 부산MBC, KNN부산경남방송, BBS부산불교방송, BTN불교TV, 부산일보, 국제신문,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법보신문, e-붓다, 맑은소리 맑은나라, 부산시설공단
| 협 찬 | (주)동원개발, (주)경동건설, (주)삼정, (주)삼정기업, (주)BNK금융지주 부산은행, (주)고려화공, 은산해운항공(주), (주)국제식품, (주)대원플러스건설, 선보공업(주), 금상건설(주), 나라·동일의료재단, (주)송우산업, 세무법인 덕림, (주)금호, (주)DS종합건설, (주)건양산업, (주)동영골드프라자, (주)세강, 이진종합건설(주), (주)삼미, (주)고려노벨화약, 태금정(주), 누네빛안과, 고운세상김양제피부과, (주)와이씨테크

축제 당일 혼잡이 예상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색 체험, 가을 개산대재는 즐겁다

전국 사찰 개산대재 연이어 개최
봉은사 차향대전 · 토크콘서트
은해사 전국 어린이 미술대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18년 봉은사서 진행된 개산대재 정대불사 모습.

개산(開山). 사찰 창건의 역사를 기리는 축제의 한마당이 전국 사찰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가족문화행사, 문화재체험 등 독특한 행사들로 가득찬 개산대재가 진행된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9월 29일 제1225주년 개산대재 다례재를 비롯해 봉은사 불교문화축제를 개최한다. 봉은사가 이번 개산대재를 기해 마련한 문화축제는 다양하다. 먼저 9월 29일 다례재에 이어 봉은사 경내에서는 그림그리기 대회, 가을음악회, 행복나눔바자회, 템플문화한마당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10월 1일까지 진행된다. 가을음악회에는 한국의 재즈디바 웅산, 7080 포크송의 향수를 달래줄 '해바라기'와 '동물원', 발라드 가수 '김희진, 최지원', 세계적인 비파 명인 '노장청', 여성 3인조의 팝페라 '루나소울', 국악신동 '송수우', 봉은국악합주단 등이 출연하며, 불자 가수 김흥국 씨가 사회를 맡는다.

이와 함께 10월 1일에는 사찰음식체험 행사와 대웅전 특설무대에서 정대불사가 진행되며 법왕루에서는 혜민 스님과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된다. 10월 2일 미륵광장에서는 다문화 가정,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 전통혼례식도 진행된다.

이번 불교문화축제의 백미는 '봉은 차향 대전'으로 10월 3일 종루 및 미륵전 주변에서 열린다. 봉은 차향 대전에는 전국 다인 1000여 명이 모인다. 또 도올 초청 강연회도 법왕루서 진행된다. 이날 저녁에는 봉은연합합창제가 선보인다.

이밖에 다양한 문화전시전도 함께 진행된다.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연회다원 앞에서 '무유의 차 항아리' 전시회가,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보우당에서는 '옛기와 차와 선이 되다' 전시회, 10월 4일부터 10월 7일까지 미륵전 앞에서는 '사찰숲길 사진' 콘테스트, 10월 6일과 10월 7일에는 생전예수재 회향 한마당이 펼쳐진다.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개산 1210주년을 맞이해 10월 5일 부도전에서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다례재를 연데 이어서 오전 11시부터 은해사 창건 의미를 새기는 개산법요식을 봉행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9월 21일 열린 '제1회 은해사 전국 어린이 · 청소년 미술대전' 시상식도 함께 진행된다. 개산법요식 이후에는 스님들의 증명으로 불자들이 참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한 보살계 수계식도 거행된다. 보살계 수계식 후에는 설운도, 박현빈, 한혜진 등 유명가수가 출연하는 은해사 창건 1210주년 축하공연 '도 · 시민이 함께하는 새바람 행복 경북음악회'가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양산 통도사(주지 현문)는 창건 1374년을 맞아 10월 7일 개산대재를 연다. 이날 자장율사를 기리는 영고재와 법요식 등이 성대하게 열린다. 10월 20일까지는 사진 및 도자기 작품 특별전시, 경내를 가득 채운 국화로 꽃 공양을 올리는 국화장엄도 관람할 수 있다.

10월 5일과 6일에는 산문에서 괘불을 모시는 행사인 '영축삼보 이운'과 공양을 올리는 '괘불헌공' 등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밖에 **범어사**가 10월 2일 창건 1341주년 개산대재를 열며 **금산사**도 10월 중 창건 1420년 개산대재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국대 비구니 수행관 '혜광원' 문 열다

9월 9일 개원식… "아란야로 삼고 정진하길"

1994년부터 사용된 평창동 학사
2017년 재건립 추진, 2년만에 건립



동국대는 9월 9일 '비구니 수행원 혜광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내외빈들이 참석한 혜광원 현판식 모습.

동국대 비구니 학인 스님들의 수행공간인 '혜광원'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중구 필동으로 자리를 옮겨 새롭게 개원했다.

동국대(총장 윤성이)는 9월 9일 '비구니 수행원 혜광원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윤성이 동국대 총장을 비롯해 前 이사장 자광 스님, 前 총장 보광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 교육원장 직무대행 진광 스님, 재무부장 유승 스님,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1994년 조계종 총무원에서 서울 종로구 평창동 각진선원을 인수한 후 동국대 종비생 비구니 학사로 무상입대하고 1995년 공식 개원한 혜광원은 이후 20여 년 동안 동국대 비구니 학인 스님들의 수행처로 활용됐다. 하지만 시설이 낙후됨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 제18대 총장 보광 스님과 석림동문회장 성우 스님을 공동위원장으로 혜광원 재건립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본격적인 재건립 불사에 들어갔다.

2018년 기존 평창동 건물 대신 동국대 인근 건물을 매입해 이전키로 결정하고 중구 필동3가에 부지를 매입했다. 이후 올해 6월 공사에 들어가 지난달 공사를 완료해 새로운 모습에 혜광원이 건립됐다. 혜광원 불사를 위해 전국 스님과 불자들이 십시일반으로 22억 원을 모연한 것도 의미가 컸다.

새로 건립된 혜광원은 최신식 시설로 거듭났다. 혜광원은 연면적 296.8평, 대지면적 122.5평 지하1층 · 지상3층 규모로 지어졌다. 지하 1층(식당), 1~3층 사생실, 2층 법당 및 대중방으로 사용된다. 사생실은 1인실(3실) · 2인실(16실) · 3인실(2실) · 4인실(1실)로 구성된다. 기존 학사는 12명의 학인 스님만 수용이 가능했으나 새로 건립된 혜광원은 최대 65명까지 함께 정진할 수 있다.

이날 개원식에 참석한 내외빈들은 혜광원이 청정한 수행처로 거듭나길 기원했다. 이사장 법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새롭게 이전 · 개원한 혜광원은 통학거리도 짧고 주위 경치도 좋아 교육과 연구에 좋은 환경을 가졌다"면서 "이곳에서 수학하는 학인 스님들은 아란야(공한처)로 삼아 정진해 훌륭한 불종자를 세상에 심는 수행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총무부장 금곡 스님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탈종교화 시대에 맞아 불교를 세상에 바로 알릴 시대 안목을 가진 수행자들이 필요하다. 이곳에서 시대적 안목을 가진 수행자들이 배출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윤성이 총장은 식사를 통해 "보다 더 넓고 쾌적해진 여건 속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청정한 수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도량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전면 중단 환영"

불교환경연대 16일 논평 발표… 종교환경회의도

환경부가 내린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대해 불교계 시민단체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는 9월 16일 환영 논평을 발표하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환경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원주지방환경청이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변화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했다"면서 "양양군은 이제 더 이상 이 사업에 대한 헛된 욕심을 버리고 설악산의 가치를 살릴 때 양양군의 가치도 높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라"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갈라진 지역의 민심을 통합하고 진정한 지역의 발전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론의 모으기 바란다"고 양양군에 제언했다.

이와 함께 불교환경연대와 기독교 · 천주교 · 원불교 · 천도교 환경 단체가 참여하는 종교환경회의도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종교환경회의는 9월 17일 발표한 논평에서 "지난 정부에 의해 진행됐던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생태적인 결정을 내린 환경부의 결정에 환영을 표한다"면서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는 끊임없이 자연을 개발하기보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지키며 뭇 생명이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제16회 대원상 후보 공모… 10월 4일까지

출 · 재가 부문 나눠 대상 · 특별상 · 장려상 시상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은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16회 대원상(大圓賞) 후보를 공모한다. 대원상은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 아래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포교방법을 창출 · 장려하기 위해 2003년 제정됐다. 매년 이어오던 대원상은 2018년부터 수상자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격년제로 전환됨에 따라 올해 대원상 출가부문과 재가부문으로 구분해 시상한다.

상금 총액은 8000만원 이내이며, 올해부터는 부문별 상금을 대폭 상향해 대상 1000~2000만원, 특별상 500~1000만원, 장려상 300~6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서류는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02)719-2606

윤호섭 기자

백제문화제서 '부여수륙재' 옛 모습 재현

백제용선 수상무대서 4회 설행

1955년 백마강 수륙재가 제65회 백제문화제에서 새롭게 펼쳐진다.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9월 29일 백제문화제 개막과 함께 불교의식인 부여수륙대재를 레트로 감성으로 재현한 '다시보는 1955 부여수륙재'를 선보인다.

1950년대 흑백사진 상 당시 수륙재는 백마강에 수십여 척의 배가, 부소산과 백마강가에 수만 명의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장엄한 의식으로 펼쳐졌다. 이를 재현하기 위해 추진위는 백마강에 백제용선 디자인의 수상무대와 16개 읍 · 면을 상징하는 배와 주민, 조형물을 설치해 과거 수륙재의 전경을 투사했다.

또 추진위는 무주고혼을 천도시키는 내용을 담은 백마강 수륙재를 4회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행사장과 주변에 수륙재에 대한 역사와 사진 등을 담은 전시공간을 마련해 방문객들의 이해를 돕고, 소원등불 만들기 등 관람객 소원성취 프로그램, 휴대전화를 활용한 수륙재AR체험 등 체험 공간도 마련한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다시보는 1955 부여수륙재는 수륙재의 옛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색다른 콘텐츠"라며 "기성세대들에게는 아날로그적 향수와 공감을 이끌어내고, 젊은 세대에게는 경험해보지 못 한 신선함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법계문학상

제4회 법계문학상 공모

'법계문학상'은 운문사를 한국 최고의 비구니 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키며 비구니 교육과 권익증진에 평생을 바친 '법계 명성스님'의 서원에 의해 제정된 '불교문학상'입니다. '법계문학상'은 역량있는 불교문학 신인작가 발굴을 목적으로 하며 매년 장편소설과 장편동화를 공모합니다.

공 모 분 야
공모분야 장편소설, 장편동화
공모주제 불교사상을 바탕으로한 자유로운 소재
공모분량 장편소설 200자 원고지 1,000매 내외 분량
장편동화 200자 원고지 500매 내외 분량

시 상 내 역
대상 1작품 상금 2,000만원 및 상패
※시상식 일정 및 장소 별도 공지

일정 및 방법
응모기간 2019. 10. 01 ~ 2019. 10. 25 까지
응모자격 신인 또는 등단 7년이내 작가
※자세한 응모 방법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http://blog.naver.com/batistaff
Tel 070-8880-8202 / E-mail batistaff@naver.com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0길 21, 703호 법계문학상 운영위원회

공모관련 자세한 내용은 본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모한 작품은 일절 반환되지 않습니다.
※시상식에 불참할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제3회 법계문학상 수상작
이종숙 장편소설
불교계의 독립운동을 소설로
조명한 최초의 작품『푸른 별의 노래』



푸른 별의 노래

백발이 성성한 龍城스님과 독립운동에 참여하다 한 팔을 잃어버린 壁星이 마주 앉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감격의 순간, 그건 法緣의 끈으로 두 사람을 다시 묶는 운명의 순간이기도 했다. 〈푸른 별의 노래〉는 여기서 부터 시작된다.



‘세종 단독 창제’ 신화에 의문 던지다

정광 교수, 19일 불교평론 열린논단서 ‘훈민정음과 신미대사’ 강연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인에게 한글은 공기와 같다. 자연스럽게 사용하며 자신의 의사를 글로 전달하거나 말로 이야기한다. 세계에 유례없고 독창적 문자 한글에 대한 자부심도 크다. 그와 함께 이를 창제한 세종대왕을 ‘희대의 성군’으로 칭송한다.

이 같은 한글이 어떻게 제정됐고, 배경이론은 무엇이며, 주변문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이에 대한 물음을 던진 것이 정광 고려대 명예교수다.

9월 19일 ‘한글 창제와 신미 대사’를 주제로 열린 불교평론 열린논단에서 정광 교수는 이런 합리적 의심과 의문을 청중들에게 먼저 제기했다.

‘영명하신 세종대왕이 유례가 없는 문자를 독창적으로 만드셨다’는 프레임에서 학자나 대중은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정광 교수는 “세종대왕의 독창적 창제라는 주장은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한 우리말·글의 연구에서 이 주장이 특별히 강조됐기 때문”이라며 “제왕인 세종이 혼자서 백성들을 위해 새 문자를 만들어 줬다는 이야기는 신화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세종·가족·학승 창제의 주역
서역의 역경승들 만들어 낸
‘反切’과 높은 관계성 ‘증거’
파스파 문자·梵字 영향 많아

비가라론에 정통한 신미대사
중성 11자 추가·언해에 일조

훈민정음은 인도의 비가라론 성명기론과 중국의 성운학, 파스파 문자, 범어 등을 깊이 연구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며, 이는 세종과 세종의 친족, 학승 등의 긴밀한 팀플레이를 통해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게 정광 교수의 주장이다. 정광 교수에 따르면 한자를 표음하기 위한 파스파 문자 등 주변 문자와의 관계성은 이미 선학(先學)들이 조명해 왔던 일이다.

유희는 ‘언문지’(1824, 〈문통〉제19권)의 ‘전자례’에서 “언문은 비록 몽고에서 시작해 우리나라에서 이뤄졌지만 실제로 세간에 지극히 오묘한 것이다”라고 기술돼 있다. 이는 이익이 〈성호사설〉에서 훈민정음의 몽고문자 기원설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광 교수는 “고려 후기와 조선 전기에 파스파 문자는 많은 지식인들이 알고 있는 한자음의 표음문자였다. 역관들의 과거인 역과에서는 파스파 문자를 시험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것은 당대(唐代) 장안의 서북방언을 기반으로 형성된 우리 한자음이 원대(元代) 이후 재편된 북경의 동북방언으로 발음되는 한자음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면서부터다. “세종은 같은 한자의 발음이 우리 발음과 중국의 발음이 서로 다른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고심했다”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반절(反切)’이다. ‘반절’은 서역 역경승들이 불경 한역(漢譯)하기 위한 한자를 학습할 때 한자의 발음을 표음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자(梵字)를 반자(半字)로 나눠 배운 것처럼 한자도 발음을 첫 자음의 반절상자(反切上字)와 나머지 반절하자(反切下字)로 2자로 표음해 배우도록 했다.

정광 교수는 “훈민정음으로 불리는 언문은 ‘반절’로 인식했다”면서 “한글의 ‘ㄱ’·‘ㄴ’을 처음 보여준 〈훈몽자회〉 ‘언문자모’에서는 ‘반절27자’라고 했다. 언문을 반절로 본 것이다. 훈민정음은 새로운 동국정운식 한자 표음 기호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광 교수는 신미 대사가 새로운 문자의 제정에 가담한 것은 초기 반절상자를 언문 27자로 만든 이후라고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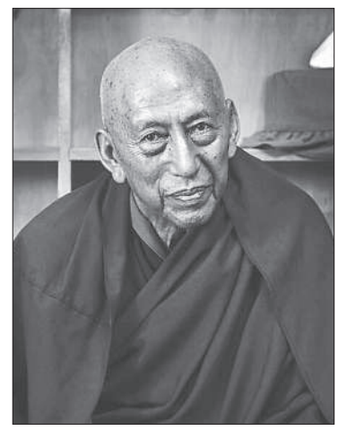
정광 교수는 “범자와 고대인도에서 발달한 비가라론의 성명기론을 전공한 신미 대사가 창제 사업에 참여하면서 범자의 모음자인 마다(摩多)에 이끌려 중성자 11자를 추가했다”면서 “이로부터 초성, 중성, 종성이 구비돼 이 문자로 우리말도 표기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미대사를 세종에게 추천한 것은 효령대군”이라며 “김수온의 〈식우집〉에 따르면 속리산 복천사에 주석하며 범자와 성명기론에 정통한 것으로 유명한 신미를 세종이 수양대군을 보내어 불러올렸고, 효령대군의 집에서 만났다”고 말했다.

신미와 학승들은 언해 작업에서도 활약했다. 정광 교수는 “세종은 신미의 새 문자에 대한 지식을 인정해 수양대군, 김수온과 더불어 〈증수석가보〉를 언해하고 〈석보상절〉을 편찬하게 한다. 한자음만 아니라 우리말도 기록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고 세종 자신도 〈월인천강지곡〉을 저술하며 이를 확인했다”며 “이를 합편한 〈월인석보〉의 제1권 권두에 훈민정음 〈언해본〉을 붙여 간행해 우리말을 표기하는 새로운 문자를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티베트 삼동린포체, 경주 부산서 전법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황룡원과 MBC드림홀서 법회



티베트 현자이자 대선지식 삼동린포체(81·사진)가 10월 한국을 방문한다. 사단법인 나란다불교학술원(원장 박은정, 이하 나란다불교학술원)은 삼동린포체를 초청해 10월 12일부터 20일까지 경주와 부산에서 ‘대승전법륜대회(大乘轉法輪大會)’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 법사로 초정받은 삼동린포체는 1939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5세 때 4대 삼동 린포체 후신으로 인정받아 7세에 출가했다. 12세 때부터 라싸의 대풍사원에서 경론을 배웠으며 1959년 중국의 침공으로 달라이라마와 함께 인도로 망명했다.

삼동 린포체는 망명 후 40년 이상 때로는 교육자로 때로는 망명정부의 국무총리로서 국가적 운명 앞에 대중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다. 삼동 린포체는 특히 인도 전역과 해외에서 교육, 문화, 사회, 복지, 행정 분야에

티베트정부 국무총리 역임
티베트불교 경론에 통달해
5일간 경주 황룡원서 설법
부산선 죽음 주제로 강연

선견지명을 갖고 수십년에 걸쳐 이로운 업적을 남기면서도 비구로서 끊임없이 배움과 수행에 매진하여 현교와 밀교에 통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30년간 불모지에서 티베트대학을 운영했던 삼동 린포체는 수많은 인도 학자, 수행자와 교류했다. 삼동 린포체가 20세기 가장 훌륭한 철학가이자 정신적 스승으로 평가받는 명상가이자 인도철학자 지두 크리슈나무르티(1895~1986)와 수년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진리를 탐구한 일화는 유명하다.

삼동 린포체는 산스크리트어 힌디어,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모든 교학에 정통해 오랫동안 인도 철학협회장은 물론 대학과 연구소의 이사 등 중책을 맡아왔다.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면서도 교학과 수행을 겸비한 청정 비구로서 수행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방한에서 삼동 린포체는 경주 황룡원에서 법화경 설법에 집중한다.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설법의 장은 사실 티벳 불교에서는 이례적이다. 논장에 대한 법문이 주를 이루는 티벳 전통에서 경(經)을 주제로 설법하는 일은 특별한 일이다.

이는 대승불교의 법화경 신행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한국불교에 대한 삼동 린포체의 큰 관심 때문이다. 삼동 린포체는 나란다 법통에서 전해진 티벳 법화경을 한국 불자들에게 하나씩 풀어낼 것이다.

경주 황룡원에서 열리는 설법은 오전 오후로 두 차례 진행되며 설법 후에는 게쉬 스님들이 진행하는 수행 관련된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또 저녁공양 뒤에는 법화경 사경과 독경, 새벽에는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삼동 린포체는 황룡원 설법에 이어 부산 MBC드림홀에서 부산 무량선원(주지 취산)의 주최로 10월 19일과 20일 열리는 대중강연에도 나선다.

양일간 펼쳐지는 이번 대중강연은 죽음을 주제로 진행된다. 첫째날은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둘째날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며 오전 강연과 함께 오후에는 대중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이번 강연은 죽음에 대한 티벳의 풍부한 이해와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은정 나란다불교학술원장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일상에서 대선지식으로부터 법을 들을 기회는 좀처럼 어려운 것”이라며 “노구를 이끌고 인연있는 제자들을 위해 법을 설하러 오시는 대선지식과의 인연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대승전법륜대회 참가를 원하는 이는 사전 접수해야 한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nalandakorea@gmail.com)이나 전화(경주법회 054-624-5353, 010-2649-2966/부산강연 051-503-1107, 010-6272-1655)로 문의 가능하다. 노덕현 기자

제1회 생명나눔대상 후보자 추천 공모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오는 10월 18일까지 제1회 생명나눔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추천 부문은 대상과 홍보상, 생명상, 나눔상 등 4개 부문으로 대상은 생명나눔 전 부문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 홍보상은 언론과 출판, 문화 부문에서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추천받는다.

생명상과 나눔상은 각각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 활성화와 봉사·기부 문화 확산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수상자 발표는 오는 11월 4일이며, 시상은 오는 11월 10일 예정된 제10회 생명나눔 자선음악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봉은사, 신도멤버십 확대 화제

인근 영화관과 협약, 최대 49% 할인 전개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가 청년 신도 확대를 위한 신도멤버십 확대에 나섰다. 그 첫 걸음은 메가박스 영화 할인이다.

봉은사는 최근 메가박스 코엑스점과 올해 12월 31일까지 봉은사 신도증을 제시하면 최대 49%를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도증 이벤트는 크게 혜택이 2가지다. 첫 번째 혜택은 본인과 동반1인 등 최대 2명까지 일반관을 6000원, 컴포트관을 7000원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비할인 정가는 11000원 가량이다.

두 번째 혜택은 코엑스점 전용 영화관람권 세트를 구매할 수 있다. 봉은사 A세트로 명명된 이번 세트는 코엑스점 전용 영화관람권 5매에 영화초대권 1매 등 총 6매를 3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봉은사 B세트는 코엑스점 전용 영화관람권 2매에 러브콤보 교환권 1매를 합하여 2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봉은사 측은 청년세대들의 신도 유입과 사내 대중들의 문화생활 확대를 위해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종학硏, 행복명상 토크콘서트

동국대 종학연구소(소장 정도)는 10월 5일 오후 1시 동국대 본관 중강당에서 ‘청년, 내 마음을 만나다’를 주제로 행복명상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서울시 종교단체 지원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크콘서트에서는 명사 강연·행복명상·청년멘토와의 대화 등으로 꾸며진다.

1부 명사 특강에는 반기문 前 UN 사무총장이 ‘청년의 자아 찾기와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2부에서는 조계종 교육아사리 원영 스님이 행복명상을 통해 청년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02)6713-5141

신성민 기자



키워드로 보는 Green Buddhism

4. 생태방생

시대·환경 맞는 방생문화 개발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지난 2018년 9월 불교환경연대가 개최한 4대강 수질 정화를 위한 버드나무 심기 방생법회의 모습. 버드나무는 수질정화와 동물의 서식지 생성의 효과를 가진다.

불교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소극적인 실천을 넘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적극적인 실천을 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방생(放生)은 가장 적극적 불교생명살림 의식이다.

불자들은 다른 이가 잡은 살아있는 물고기나 새 등의 동물을 산이나 못에 놓아 살려주고 불살생계를 실천하고 나아가가 생명을 구하는 선업공덕을 짓는다. 방생은 예로부터 음력 정월 보름, 삼월삼짇날, 팔월 보름에 많이 행해졌는데 요즘에는 사찰의 편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방생'이 '살생'이 되는 상황

방생의 경전적 근간은 〈금광명경〉의 '유수장자품' 에 있다.

경전에 따르면 유수장자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느 큰 연못가를 지나가고 있었다. 오랜 가뭄 끝이라, 때마침 연못에 물이 말라 많은 물고기들이 죽음에 처해 있었다. 이것을 목격한 유수장자는 두 아들과 함께 마을로 되돌아가서 물을 날라다 연못에 부어주어서 많은 물고기들이 살려냈다. 그 공덕으로 유수장자는 다음 생에 시천천자(十千天子)로 태어났다고 한다.

방생법회는 중국 수(隋)나라 때 천태종 개창조 천태지의(538~597)대사가 처음 실시했다. 이후 중국에서 한반도로 전해졌는데 삼국시대부터 성행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생명살림이라는 의미를 가진 방생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방생 시즌이 되면 어류의 가격이 올라가거나 붉은귀거북, 베스 등 외래 및 생태교란어종의 잘못된 방생으로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곤 했다. 불자들은 방생을 하며 공덕(功德)을 쌓겠다는 이유로 자신의 일이 잘 되기를 염원하며, 동물의 몸에 글씨를 쓰기도 했다. 또 몇몇 상인들은 상류에서 방생한 어류를 하류에서 다시 잡아 되팔기도 했다.

특히, 방생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사회문제가 됐고, 불교계 일부에서 물의를 빚어온 방생법회에 대해 정부가 공식으로 자제 요청을 하기도 했다.

정부가 처음으로 불교계에서 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1997년으로 확인된다. 당시 정부는 조계종을 비롯한 28개 종단과 70여개 불교법인에 공문을 보내 "문제가 되고 있는 육식성 물고기의 방생을 자제해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우려를 불식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변화하는 방생 문화

이 같은 사회분위기 속에 불교계의 방생 문화는 변화하고 있다. 조계종은 지난 2001년 환경부와 함께 붉은귀거북 방생 자제 홍보를 했다.

또한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지난 2002년 생태적 방생문화 전환을 목적으로 〈방생지침서〉를 발간해 일선 사찰 2000여 곳에 배포했다. 〈방생지침서〉는 방생지침 17가지를 비롯해 △방생금지어종 및 선정사유 △생태계 위해 · 동식물 현황 △생태적 방생을 위한 메모 등을 수록하고 있다.

생태방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기도 이즈음이다. 육식이나 외래 어종 방생을 금지하고 전통어류와 치어 등을 방생하거나 조류 · 환경단체와 연계한 조류 방생이 나타났다. 또한 겨울철 먹이 놔주기, 나무 심기, 꽃씨 뿌리기 등이 방생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도 했다.

실제 지난 2009년 9월 통도사와 부경대는 미역포자 10만개, 플랑크톤 4조 개, 참돔 치어 4천 마리 등을 바다에 방생했다. 미역포자는 부경대 양식학과가 배양한 것으로, 앞서 통도사와 부경대는 '생명 생태 운동 협약' 을 체결하기도 했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지난 2015년 방생의 일환으로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 겨울을 나는 철새를 위한 2000kg의 볍씨를 지원했다. 이는 낙동강 에코센터가 진행하는 '철새사랑 곡류 모으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 같은 문화는 일선 사찰에 잘 이어지고 있다. 조계사(주지 지현)는 조류동물보호협회와 협약을 체결해 구호된 야생동물들을 치료 후 방생하고 있다. 이는 10년 넘게 이어진 장기사업이기도 하다. 또한 내수면연구소에서 추천을 받은 어류 5~6만 마리를 연구소를 통해 구입해 하천, 바다에 길을 만들어서 방생하고 있다.

봉은사(주지 원명)는 전통 어종들을 중심으로 방생을 이어가고 있다. 물고기들이 동사 가능성이 높은 추운 겨울에는 방생법회를 자제하고 시기를 조정해서 이뤄진다.

불교계 외래어종 무분별 방생에
1997년 정부차원 첫 자제 요청
조계종 2002년 지침서 발간 · 배포

야생조류 · 치어 방류 등 변화보여
안정화 추세지만 어류 방생 치중

육식 않는 채식으로 방생 가능
싱가포르불교계 '채식방생' 추진
"방생 시즌, 채식 주간 운영을"

해외불교도 생태방생 고민 중

잘못된 방생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세계 각국 불교계에서도 있는 문제다. 뉴질랜드에서는 동아시아 이민자 불자들의 방생활동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위협이 문제가 되고 있다. '뉴질랜드 헤럴드(nzherald)' 의 올해 1월의 보도에 따르면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불자들이 웨스턴스프링스 호수에 거북이를 포함한 살아있는 동물들을 방생하고 있다. 붉은귀거북은 가장 빨리 퍼지는 동물 중 하나로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4년 중국 언론 매체인 '인민정협신문' 에 게재된 前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학성 스님 인터뷰에서도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방생 문제를 엿볼 수 있다.

학성 스님은 인터뷰에서 "대규모의 방생은 자칫 생태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다. 생태계 고리가 무너져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면서 "옛날에는 포획과 방생이 근처에서 이뤄졌지만, 요즘에는 방생용 동물을 수입해서 들여온다. 이는 지역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생을 하려면 참된 자비심과 생명을 보호하는 마음을 내야한다. 새가 방안으로 날아 들어왔을 경우 밖으로 내보내 주거나 비가 내린 후 지렁이가 길을 잃고 밖에 나와 있을 때 화단으로 돌려보내주는 것도 방생"이라고 강조했다.

'자리이타형 방생'으로 업그레이드

이제 한국불교의 경우 생태적 방생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자리이타형 방생' 으로 나아가야 한다. 단순히 포획되거나 구호된 동물을 풀어주는 것에서 이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방생문화가 한번 더 변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조계종 교육아사리 법장 스님(해인사 승가대학)은 "우리는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만 생명이라 생각하고 이를 풀어주는 방생을 했다. 앞으로의 방생은 모든 생명들이 어우러져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각자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불교의 대사회 활동은 불교적 삶을 실천하고 그를 통해 새로운 자리이타의 방생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대표적으로 실천하는 곳이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이다. 불교환경연대는 2018년부터 버드나무 방생 법회를 운영하고 있다. 수질 정화에 도움을 주고 물고기와 새들에게는 산란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버드나무를 강과 하천 주위에 심어 생태계를 보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불교환경연대는 여주 신륵사에 버드나무 묘목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생법회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분양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 역시 4대강 수질 정화를 위한 자체 방생법회도 정기적으로 봉행 중이다. 오는 9월 28일(태화강), 10월 12일(낙동강), 10월 26일(금강)에 버드나무 방생법회를 연다.

한주영 불교환경연대 사무처장은 "버드나무 방생은 일종의 식물 방생"이라며 "이 같은 방생은 생태계 정화 작용과 함께 생물들의 서식 공간이자 산란처를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환경연대는 겨울철 생태방생 프로그램으로 두루미 서식지 보존을 위한 활동과 먹이 놔주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두루미 서식지가 한반도에서 계속 줄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도 필요한 생태방생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채식, 현대적 의미의 방생

채식도 현대적 의미의 방생이 될 수 있다. 싱가포르불교연맹은 올해 베삭 축제에 앞서 불교도들의 방생행사 재고를 촉구했다. 싱가포르불교연맹은 "야생동물이 아닌 대량으로 양식되는 생명을 야생에 그대로 풀어놓는 것은 생명을 보호하는 불교의 가르침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합리적 대안을 찾아 실천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싱가포르불교연맹은 "방생 행사보다 육식 없는 식단을 채택하거나 동물보호단체 · 보호소 등을 지원하는 것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불교연맹의 제안처럼 채식은 불자들에게는 실천해 볼 만한 일상 속의 대안적 방생이다. 최근 채식을 기반으로 한 '비거니즘(Veganism)' 이 세계적 트렌드로 자리를 잡은 만큼 채식 · 동물 보호 등을 실천하는 방생은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기대할 만하다.

이에 대해 세첸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은 "은둔수행자인 차드렐 린포체는 티베트에서 동물을 죽이는 것을 보고 채식을 결심했고, 방생은 그의 주요한 수행법이었다"면서 "채식은 곧 방생"이라고 주장했다.

한주영 사무처장은 "정월 보름 방생도 많은 편인데, 한 해의 시작을 '채식 방생' 으로 몸과 마음 비우고 시작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일선 사찰에서 정월 보름 전후를 '채식 주간' 으로 정하고 이를 스님과 신도들이 실천하며 수행하는 방생법회를 봉행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은 "고기 1인분을 위해서 8인분의 곡물이 소비된다. 채식만으로도 많은 동식물을 살릴 수 있다"면서 "서식지 파괴를 막고 필요한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나눠주며, 생태계를 보존하는 활동 모두가 방생이다. 환경운동이 곧 방생"이라고 강조했다.

제6회 수국사 나눔의 노래
2019.9.28 토 오후7시 | 대한불교조계종 수국사 특설무대
문의 : 02-356-2001
• 지정석은 예약입니다.
• 수익금 전액은 복지 · 장학금으로 지급됩니다.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과 주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 김경호 밴드 / 우순실 / 권미희 / 정현숙 / 비보이 / 수국사 / 정혜사 연합합창단
지휘 : 최현우 연정연
반주 : 한어진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수국사 주관 수국사 · 신도회 · 구산동 주민자치위원회 후원 대한불교조계종 · 은평구청 · 은평구사암연합회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에너지(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고 급 : 개인의 기에너지 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기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일행삼매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당신의 수행력(법력)은?



불 · 법 · 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선재불교대학) 도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천곡1길 62 (충해공원 내)
☎ 055)633-6555

어느 대강백께서 저잣거리에는 말 잘하는 (입터진)도사(도인)들이 너무 많고 성인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닦고 닦아 증득한 것을 보여주는 참 수행자는 아예 보이지 않는다고…

여기에 경과 어록에서 말 잘하는 앵무새, 여우, 도깨비가 될까 봐 성인과 조사들이 걱정하는 장면이 생각난다.

지금 여우의 간교에 홀리고 도깨비에 속고, 앵무새의 말잔치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전국 산과 들로 바다로 심지어 해외로 헤매고 다니는 이들이 차고 넘친다. 누가 저들을 내몰고 있는가?

또, 서로 경쟁적으로 우리 스님, 우리스님뿐이고 우리 스님은 척보면 알고 우리 절이 영험하다는 둥, 무슨 기도를 하면 꼭 들어준다는 등등….

이런 내용이 어느 경, 어느 조사어록에 있는 말인가? 또, 바른 정법만을 포교한다는 방송도 사찰 선전하는 것 보면 기가 막힌다. 방송의 힘이 크다는 것을 안다. 불교와 비불교적인 것을 걸러서 방송해주면 좋으련만…

분명한 것은 주인공인 여러분 스스로 바르게 공부하고 바른 실천하면 우리스님이 아니고 내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고, 궁극에는 부처님처럼 성인이 되는 것이다.

이 때 얻은 것(증득)을 병든 이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정신을 바로 잡아 주어서 바른 정법을 알리는데 부처님 제자로써 한 평생을 일관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당신은 길에서 환우(조현병, 전이된 암환자, 희귀병)를 만나면 어떡하고 있는지… 성직자의 신분이라면 여기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이다.

어느 방송스타 00들처럼 정신병원에 보낸다든지, 아니면 법력이 부족해서 외면할수 밖에 없다든지…

• • •

〈사례 ❶〉 췌장암에서 전이된 암

몇 해 전 년 말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기독교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금 방영중인 인간극장을 꼭 보셔야 한다고… 왜냐고 하니 무조건 봐야 한다고 했다.

다음날 아침시간에 인간극장을 틀어보니 시작과 동시에 40대로 보이는 여인이 온몸을 비틀면서 손으로 머리와 가슴을 치며 고통을 호소하는 장면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 화면을 살펴보았으나 00군 외에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무조건 가자, 그러면 길이 열릴 것이다'하고 바로 여기 스님들과 같이 기도 준비해서 전남 00군청 사회복지과에 가서 지금 방영되고 있는 인간극장 주인공을 찾고자 한다고 하자 좀 의아한 눈치 길래 얼른 신문 몇 장을 내밀었다.

사실은 현대 불교 신문이 아닌 일반 신문에 칼럼으로써 글을 쓴 것을 명함대신 내밀었다. 그러자 그 분 신상은 곤란하고 ○○마을회관으로 가서 이장님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하루 전 날부터 눈이 많이 왔는데 눈길을 달려 곧장 ○○마을회관을 찾아가서 TV 인간극장 얘기를 하니 마을 분들이 다들 알고 있었고, 찾는 이유를 말씀드리니 여기 건너 방에 그 부모가 와 계시다는 것이다. 부모를 만나 신문 몇 장을 건네며 소개를 올리고는 찾아 온 이유를 말씀드리니 당혹해 하는 것이다. 그 가족 전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그 부모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소납은 ○○학부시절 ○○목사로부터 비교 종교학을 몇 학기 공부한 적이 있어 이럴 때는 그들에게 나의 성격지식이 필요했다. 그러자 딸이 지금 이곳을 떠나 1시간 거리의 깊은 산중으로 갔다고 한다. 이유는 신부, 목사들이 수도 없이 찾아왔는데 스님을 처음이라고 하면서 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근데 전국에 환우가 있는 곳에 가보면 항상 신부, 목사들은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고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입만 열면 대자비를 운운하면서 가는 곳마다 스님은 처음이라 한다. 부친 되시는 분이 딸을 설득하기 위해 전화를 하는데 처음부터 종교적인 문제로 완고하다. 그래도 부모는 딸을 살리고 싶어 물러서지 않고 계속 한 번만, 한 번만 이 스님을 만나 보라고 하자 그때서야 겨우 허락을 받아 그 부모와 함께 그가 요양 중인 산중에 갈 수 있었다. 스님이 부모와 같이 도착하자 통증을 억지로 참고 앉아 있는 모습이 부담스러웠다. 자매님 누워도 괜찮으니 누우라 하고는 얘기를 했다. 얘기 도중에도 손으로 머리와 가슴을 쳐 된다 그 모습을 보다 더 이상 볼 수 없어 기도를 해도 되겠느냐고 하니 그의 부모께서 좋다는 것이다. 기도는 각각의 방식대로 기도하셔도 된다고 얘기하고는 한 손은 이마에, 한 손은 배에 가볍게 올리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자 순간 언제 아팠는지 모를 정도로 평안해졌고 간간히 코고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부모님 보고 조용히 자게 놔둬라 하며 그간에 있었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다. 딸은 큰 도시에 있는 ○○병원의 간호사 였고 배가 가끔씩 아파 검사를 하니 췌장암이 간 등에 이미 전이가 된 상태라 병원을 그만두고 산중에 가서 추나요법, 선식, 명상, 식이요법 등 자연 치유를 하기 위해 6개월 입산 후 검사를 해 본 결과 의사가 상태가 좋지 않아 그 해를 넘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골 부모님 곁으로 왔다고 한다. 얘기가 끝날 즈음 환자가 미소 지으며 일어나 앉길래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사진 한번 찍자고 하며 그 가족과 같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은 지금도 가끔 꺼내본다. 도저히 환우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오늘 이 기도로 3일 정도는 통증이 없을테니 하루나 이틀정도 쉬었다가 연등사에 와서 3일만 아침기도 받고 가라했다. 그러자 모레가 크리스마스 전야인데 본인이 그날 교회 행사에 주인공인데 빠지면 안된다 하길래… 잘 생각해 보라하며 연락처와 주소를 적어주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며칠 뒤 연등사 인근에 사는 친우가 와서 스님을 찾길래 어쩐 일로 왔느냐고 하니 인간극장 주인공의 고교동창이란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듣지를 않고 스님께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그래서 인연이 이것 밖에 되지 않는다면 놓아 주어야지… 나무관세음보살

• • •

〈사례 ❷〉 뇌경색

안거 중에 신도님이 급하게 전화가 왔다. 스님 지방 소도시 ○○에 있는 ○○보살의 처사님이 뇌경색이 와서 지금 대형병원인 ○○병원에 있는데 의식이 희미하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처음 집에서 쓰러져서 지역에 있는 큰병원에서 응급 처치 후 호스를 삽입하고 2~3일을 두고 보자고 했으나 전혀 회복이 되지 않자 그 병원에서 대형병원으로 빨리 옮기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옮겼다는 것이다. 그런 후 신도님께 연락해서 스님께 기도 부탁 좀 해 달라고 해서 전화한 것이다. 바로 여기 스님들과 같이 기도 준비를 해서 신도님들과 같이 병원으로 가니 2인 1실에 있었고 호스란 호스를 다 꼽고 있었고 일체의 의사표시는 못하고 겨우 눈만 껌뻑이고 있었다. 대화는 하되 대답은 눈 깜빡임으로 하라 했고 기도 받겠느냐고 하니 눈을 깜빡인다.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 바로 기도에 들어갔고 기도 후 퇴원하면 처사님이 바로 연등사로 와서 3일간 기도를 더 받으라고 하며 병원문을 나섰다.(그때는 안거중이었음) 그리고 이틀 후 의사가 와서 이 병원 창건이후 이런 기적은 처음이라 하면서 바로 퇴원을 해도 좋다고 했다면서. 웃으면서 이야기 하길래 방심하지 말라고 하며 술, 담배, 기름진 음식을 꼭 끊고 바르게 참회하며 살 것을 다시 한 번 일러주고 3일간 새벽에 신도님들과 같이 기도를 해 주었고 몇 해 세월이 흘렀으나 정상인으로 잘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몇 해 전 3사 대형 방송사중 ○○방송이 연등사를 촬영한 적이 있다. 그때 프로듀서, PD, 작가 등이 와서 신도님 개인 인터뷰와 스님들 수행하는 일상 등등을 촬영한 적이 있다. 그리고 저녁나절 여기 일부 신도님 부부와 스님과 같이 공양을 할 때 당시 책임자였던 프로듀서분이 한마디 했다. '지금 대한민국에 여기 스님과 같은 분이 한분만 더 있어도…' 하였으나 그 뒷말을 하지 않겠다. 그러나 여기 신도님들은 다 들었다

저들과 지식인들은 알고 있다. 바르지 않은 것을 하루 종일 하고 있다는 것을…

사주, 부적, 삼재, 방생, 우담바라, 스님 생일, 고급 가사장삼, 술, 담배, 수능합격기도, 재수기도, 운기도, 큰 등, 작은 등, 인등, 신비를 조작한 바위, ○○을 빙자한 천도재 등등… 이렇게 잡귀만 해지는 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을….

문제는 이런 사행 행위를 하면서도 이제는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경쟁적으로 당연시하고 있으니 더 큰 문제다.

제발 초발심으로 돌아가자…

정법대로 해도 불보살이 밥은 굶기지 않는다. 그러면 됐지…

세존식시 착의지발 입사위대성 걸식…
世尊食時 着衣持鉢 入舍衛大城 乞食…

세존께서는 80 노구에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탁발로 얻어 드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공양주를 두고 끼니때마다 상을 받는 상전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다시 한 번 2019.8.28 현대불교 신문 말미의 내용을 방송매체에 제안합니다.

이 법공양을 알리는데 제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형종단의 소의 경전이기도 한 금강경의 주 내용과 달마스님의 말씀은 매 때마다(아침, 낮, 저녁) 몸으로 할 수 있는 것(금, 은, 보화, 재물, 돈)을 갠지스 강의 모래수 만큼 보시하고 어머어마한 절을 지어 시주한 들 그 공덕과 복덕은 오늘 여기 부처님 말씀(겸) 바르게 전하는 한마디에 비교한다면 백천만억분의 1에도 못 미친다고 하셨다. 하여 이 제정적인 문제를 신문사와 직접 협의 후 해결해 주신다면 소납은 계속 바른 정법을 통한 체험, 득한 사례를 계속 연재해 나가겠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연등사(선재불교대학) | **도 안 합장**

즉문즉설 안내

내 용
조현병, 말기암, 희귀병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을 통한 발표 및 질의응답

일 시
매월 셋째주 일요일 10시

장 소
연등사 대웅전

참가자격
누구나

기타사항
- 당일 개인면담은 안 되고, 참가자에 한해 일정통보
- 앞으로는 재정이 해결되면 스님들 조현병 및 각종 암 치유 사례를 쓰고자 함

일부 신도님 연락처
- 010-4807-6932 [박○○]
- 010-9707-4808 [박○○]
- 010-8291-9423 [변○○]
- 010-5699-3173 [박○○]



50년 천태종 부산포교 원력 결집

천태종부산신도회 50주년 기념법회 및 축제 개최

1969년 150여 불자 모여 발원
광명사, 삼광사 등 불사 진행
신도배가운동, 천태불교 모태
사진전 및 지역축제로 회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천태종이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사진은 1978년 5월 광명사서 진행된 부처님 오신날 행사.

"부산에 천태사상이 구름과 같이 크게 흥할 것이며 1만 명을 수용하는 대가람을 세울 것이다."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조사는 1971년 부산 초량동 교육회관에서 진행한 법회에서 신도들을 향해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부산 천태종 신도들은 상월원각조사의 원력을 사명으로 받아 천태가람을 불사했고, 천태가람은 불자들의 기도 중심처로 우뚝 섰다.

천태종 부산신도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며 천태 대표 사찰인 광명사와 삼광사는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활발한 전법포교를 다시 서원한다.

천태종 부산신도회는 창립 50주년 기념 법회를 부산 광명사(주지 개문)와 삼광사(주지 세운)에서 봉행한다. 광명사는 10월 13일 오전11시 경내 불교문화회관 3층 지관전에서 개최하며, 삼광사는 11월 1일 오전 11시 경내 지관전에서 봉행한다.

천태종 부산신도회는 1969년 10월 부산시 동구 좌천동에 위치한 김정숙 불자 집에서 150여 불자가 모여 창립했다. 이후 1970년 9월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조사를 증명법사로 신도배가법회를 열고 신도층을 확대했으며, 1971년 10월 27일 초량동 교육회관에서 열린 법회서는 1000여명이 모일 정도로 활발한 포교 활동을 전개했다.

천태종부산신도회는 1971년 법회에서 천태종 상월원각조사가 증명한 대가람 불사 원력을 받아 불사에 전념했으며 1973년 12월 부산 장전동 부지 3,690평을 매입해 광명사를 건립했고, 1982년 12월에는 부산 초읍동 35,000여 평을 매입해 삼광사를 세웠다. 이후 부산지역에서 천태종은 날로 교세를 확장해 용평사, 정법사, 해영사를 불사하고 각 사찰들은 천태 불자의 신행 보금자리가 됐다.

광명사와 삼광사서 봉행되는 기념법회는 그동안의 역사를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된다.

광명사 신도회 창립 기념법회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과 함께 총무원장 문덕 스님, 종의회의장 도원 스님, 감사원장 진덕 스님, 광명사 주지 개문 스님 등 천태종 주요 스님들이 대거 참석한다. 또한 오거돈 부산시장, 김세연 국회의원, 정미영 금정구청장 등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법회는 △타종 및 개회선언 △삼귀의 △찬불가 △반야심경 △법어 봉독 △연혁보고 △50주년 기념 동영상 △법어 △축사 순으로 진행되며 오후 2시에는 창립을 축하하는 문화공연도 마련된다.

아울러 광명사는 '백만독 100일 관음정진'을 10월 9일부터 1월 16일까지 100일간 진행하며 광도 스님의 '관음신행' 강좌도 10월 9일 입재, 2020년 1월 11일까지 매주 토요일 밤 10시마다 진행된다.

삼광사는 10월 31일 오후 7시 30분 지관전에서 '상월원각대조사 교성곡' 합창제를 시작으로 신도회 창립 50주년 창립을 기념한다. 11월 1일에 열릴 창립기념법회에는 각계 주요 내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11월 2일에는 △꽃꽂이 전시 △음식전시 △사진전시 등 지역문화축제 형식으로 행사를 연다. 11월 23일에는 계층 포교를 위한 자리로 청소년음악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학술제를 진행해 50주년 기념행사를 마무리한다. 아울러 신도들을 위한 신행 정진을 위해 법화경 산림법회를 11월 2일부터 22일까지 21일간 간 개최하고 신심을 독려한다. 또한 장학금 및 자비의 쌀 전달로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다.

표충사, 사명대사 '충의' 기린다

10월 6일, 추모헌정 뮤지컬 및 학술 대회 개최



표충사는 10월 6일 오전 9시 30분 표충사 표충서원에서 '제552회 사명대사 추계향사'를 봉행한다. 사진은 뮤지컬 사명 공연모습.

경남 밀양 호국성지 표충사가 사명대사 추계향사를 봉행하고 사명대사의 충의를 기리기 위한 헌정 뮤지컬 및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표충사(주지 법기)는 10월 6일 오전 9시 30분 표충사 표충서원에서 '제552회 사명대사 추계향사'를 봉행한다. 이번 추계향사는 〈사명대사 호국 혼(魂) 선양사업〉 일환으로 향사와 더불어 추모헌정 뮤지컬 '사명'과 학술세미나 '사명대사의 충의와 위상'란 제목으로 개최 될 예정이다.

향사는 불교식으로 진행하는 종사영반으로 시작해 △삼귀의 △반야심경 △사명대사 찬가 △행장기 △내빈소개 △헌향 및 헌화 △헌다 △유교식 석전의례 △뮤지컬 사명 △추모사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또 사명대사의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표충사는 추모헌정 뮤지컬 '사명'을 무대에 올린다. 뮤지컬 '사명'은 사명대사가 의승병 대장으로 활동하며 전장에서 기록한 일기, 상소문 등이 기록된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새롭게 창작한 희곡이다. 학술 세미나는 오후 2시 설법전에서 열린다. 학술세미나는 '사명대사의 충의와 위상'을 주제로 △사명대사의 사상과 충의정신(이철헌 동국대 교수) △일본인의 사명대사 인식(조영록 동국대 명예교수) △표충사 서간첩으로 본 사명대사의 위상(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이 발표된다. 종합토론에는 동국학원 이사장 법산 스님,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오경후 동국대 초빙교수가 참여한다. 055)352-1150

밀양=하성미 기자

국내 유일 영성음악축제 대중 속으로

화엄사 9월 27~29일 '2019화엄음악제' 개최

국내 유일한 영성 음악축제인 화엄음악제가 오는 9월 27일부터 3일간 구례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에서 열린다.

올해 14회를 맞이한 화엄음악제는 '화장(華藏)'이란 주제로 마음챙김, 선다회, 영산괘불대재, 화엄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리산 자연을 배경으로 독창적인 무대연출과 차별화된 음악회를 대중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화엄음악제는 매년 그 해 음악제의 주제어를 선정하여, 장르와 국적을 초월한 세계 각국의 아티스트들이 그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구현해 왔다.

올해 화엄음악제의 주제어는 화장(華藏)이다. 화엄사 내 보제루에 걸려 있는 편액에 쓰여 있기도 한 문구로 불교에서 그리는 이상 세계의 모습인 화장세계에서 비롯된 단어이다. 이번 주제를 통해 힘들었던 일상의 마음을 털어버리고, 내면의 의미를 발견하며 이러한 행복을 마음에 담아 화사한 세계로 나아가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메인 행사인 화엄콘서트는 음악감독으로 선정된 황호준 씨의 '27인조 화엄앙상불'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2013년 국악대상 작곡상 수상자이도 한 황호준 씨는 국악실내악부터 관현악, 서양오케스트라, 재즈앙상블 등 장르를 넘나드는 활발한 작품 활동을 보여주며 평단과 관객들로부터 동시에 호평을 받고 있다. 화엄앙상블은 경기민요 최수정, 판소리 방수미를 비롯하여 위드스트링 앙상블, 재즈피아노의 송지훈, 하모니카, 아코디언, 아이리쉬휘슬 권병호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으로 결성됐다.



이외에도 27일과 28일 오후 3시 성보박물관에서 '마음 챙김(Mindfulness)으로 주제로 클레몽 스베스트르(전자음악 즉흥연주), 차승민(대금, 보컬, 일렉트로닉스), 배규자(안무가)&시멘 코르스모 로버트센(연주)의 공연이 진행된다.

27일 오전 10시 영산괘불대전에는 조계종 어산 어장 인묵 스님의 범패공연, 선다회 육법공양이, 저녁 7시 '선다회 · 다례시연'과 함께 정가악회(창작 국악앙상블), 악단광칠(창작 국악앙상블), 밴드 둘다(가야금, 해금 듀오) 등의 전통창작 국악공연이 열린다.

행사의 마지막에는 29일 오전 10시부터는 △'저절로 일어나는 춤(When it dances) - 배규자(안무가)&시멘 코르스모 로버트센 △몸과 건축 - 착착스튜디오 김대균 소장의 건축이야기 △회향- 이베리 콰이어(다성음악 보컬 앙상블)이 펼쳐져 대미를 장식한다.

공연행 외에도 19~20일 양일 저녁 7시에는 영화음악감독과 함께하는 영화상영회, 10월 10일까지 김광길 작가 '연잎이야기 展'이 경내 성보박물관과 보제루에서 열린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견강암 주지 향공 스님이 취약 계층 쌀을 전달하고 있다.

견강암, 나눔으로 밝힌 한가위

어르신을 위한 만발 공양과 지역 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으로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는 견강암이 추석을 맞아 풍성한 한가위를 기원하며 또 다시 거리로 나섰다.

부산 백양산 견강암(주지 향공)은 9월 11일 모라 고동바위공원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하고 어르신을 위한 효 잔치 한마당을 개최했다.

효 잔치에는 견강암 봉사단체 정각원 회원이 동참했으며 지역 어르신 800여명이 찾았다. 견강암은 쌀 500kg을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으며 선발한 장학생 4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주지 향공 스님은 "견강암 봉사에 동참해준 모든 신도들에게 감사한다"라며 "더욱 성장하고 지역민들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견강암은 다가오는 10월 3일 지역 어르신 600여명을 초청, 무료 효 관광을 진행한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www.eunhae-sa.org

팔공산 은해사 창건 1210주년 개산대재

보살계 수계식·만등불사

도·시민이 함께하는 새바람 행복 경북음악회

아미타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미타도량 은해사는 신라 헌덕왕 원년(서기809년) 혜철국사(惠哲國師)께서 창건하신 지 1210주년이 되었습니다.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스님들의 선맥(禪脈)이 이어 온 은해사 대법회에 교계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개산대재 보살계와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 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무한한 선업과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불기2563(2019)년 10월

개산대재 대법회

· 10월 5일(토요일, 음 9.7)

오전 9시 30분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조사 다례재
11시 개산법요식
오후 1시 보살계 수계식
3시 도·시민이 함께하는 새바람 행복 경북음악회
6시 만등불사 점등식

· 동 참 금 : 보살계 – 1인 2만원 / 만등불사 – 1인 1등 1만원

보살계 수계식

자비를 실천하기 위하여 지니는 수행덕목인 보살계(菩薩戒)는 불자라면 반드시 받아야 할 중요한 의식이며, 이미 받았더라도 다시 보살계를 받음으로서 다시 한 번 자리이타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크나 큰 공덕입니다.

도·시민이 함께하는 새바람 행복 경북음악회

■ 일 시 : 10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 출 연 : 설운도, 박현빈, 한혜진, 금잔디, 현숙, 김국환, 김소유, 박구윤, 후니용이, 강민, 박명진 명창 외 특별출연
■ 사 회 : BTN 아나운서 오계윤

■ 동대구역 지하도(오전9시)→하양→은해사
남부정류장(오전9시)→경산→하양→은해사
포항역(오전8시30분)→영천→은해사간 차량 운행합니다.
■ 문의 : 종무소 (054)335-3318 원주실 054)335-5220, 은해사 교구 각 말사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은해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본·말사

이름 없는 자의 묵상 '손'



김원숙의
불교와 미학

⑰ 알브레히트 뒤러와 손

손의 인상은 우연한 순간에 홀연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것은 오래도록 존재해 왔으나, 의식의 여백 어딘가에 밀쳐져 있다. 어느 순간 작은 섬광처럼 인지의 영역 안으로 불쑥 들어서는 낯선 방문객과 같다. 사람과 사람이 마주할 때 시선은 가장 먼저 얼굴로 향한다. 시간이 흐르고 짧지 않은 대화의 한 모퉁이에서 시선의 언저리에 무심히 방치되어 있던 손은 의도하지 않았던 시점에, 불현듯 자신의 참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현대 미술에서는 굳이 예술가가 손을 사용하지 않아도 작품을 제작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예술가의 손은 작품을 제작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상당수의 화가들은 자신의 작품에서, 아니면 습작에서라도 손을 즐겨 그렸다.

종이 위에 기도하는 손이 그려져 있다. 그림은 옷소매까지만 그려져, 파란 어둠 속에 손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란히 모은 두 손을 통한 고요한 침잠 속에서 그 무엇을 기원하는 심상이 잔잔하게 전해진다.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묘사된 옷소매의 재질감과 손등의 주름, 그리고 거기에 비친 미세한 빛은 역설적으로, 보는 이에게 어떤 비현실적인 신비감을 불러 일으킨다.

일반적으로 손동작이나 손의 위치는 의미를 가진다. 가령 두 팔을 벌려 손을 높이 쳐드는 동작은 간절한 청원의 표시라면, 손바닥을 마주하여 합장하는 동작은 감사나 존경의 표시이기도 하고 특히 고요히 눈을 감고 깊이 생각에 잠기는 '명상'을 의미한다.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 1471~1528, 독일)의 작품 〈기도하는 손, 1508〉은 500년도 더 된 오래된 그림이지만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애호하는 작품 중 하나이다. 이 그림은 프랑크푸르트의 도미니크 수도회(Dominican Order) 성당 제단화 제작을 위해서 일종의 사전 준비를 목적으로 그린 여러 스케치 혹은 드로잉 중 하나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원본인 제단화는 1729년에 소실되었고 지금은 이 드로잉 작품만 남아 있다. 그러나 요스트 하리흐(Jobst Harrich)라는 작가가 1614년에 원본을 모사한 작품은 현재까지 전해져 뒤러가 그린 원본에 대해서 상상해 볼 수 있다.

뒤러는 손의 표현에 대해 여러 습작을 남겼는데, 이 그림도 그 중 하나이다. 하리흐의 모사작을 보면, 이 습작의 손은 실제 제단화에서는 한 수도사의 손으로 표현되었다. 비록 이 드로잉이 제단화에 사용되는 실제 밑그림은 아니며, 단지 사전 준비에 필요한 일종의 구상에 지나지 않을 지라도 뒤러는 모든 세부 디테일을 완벽하게 묘사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낸다.



알브레히트 뒤러, 〈모피코트를 입은 자화상, 1500〉, 목판에 유채 , 67.1 x 48.1cm, 뮌헨 알테 피나코테크



알브레히트 뒤러, 〈기도하는 손 Betende Hände, 1508〉, 종이에 드로잉, 29.1× 19.7cm, 비엔나 알베르티나 미술관



오귀스트 로댕, 〈대성당, 1908〉, 64 x 29.5 x 31.8cm, 대리석, 파리 로댕 미술관

이 손의 실제 모델은 누구인가하는 여러 추측들이 있다. 혹자는 이 그림의 두 손은 각각 여자의 손, 남자의 손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사람은 이 손이 뒤러 자신이 손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혹은 뒤러 어머니의 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론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어떤 추측이든 확실한 근거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가장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는, 이 손이 뒤러의 친구인 '프란츠' (어떤 버전에서는 뒤러의 동생)의 손이라는 것이다. 가난한 뒤러가 화가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친구 프란츠가 일에 전념하여 뒤러의 학비를 대줬다. 후에 유명한 화가가 된 뒤러가 친구를 찾아갔을 때, 프란츠는 그때까지도 그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감동한 뒤러가 그린 것이 바로 프란츠의 '기도하는 손' 이라는 이야기다. 이야기의 내용 그 자체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지만, 이 역시도 확실한 근거는 없다.

다만, 〈기도하는 손〉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처럼 많은 추측과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는 이유는 이 그림이 가진 보편적인 호소력을 말해 준다. 이 손은 특정한 '그 누구' 의 손일 수도 있지만 '그 누구나' 의 손이다. 이처럼 기도하는 손은 보편적인 인간 본질인 영적인 차원의 자비심을 불러 일으킨다. 정교하고 사실적으로 묘사된 울퉁불퉁한 혈관의 굴곡과 손등의 질감, 그리고 굽이치는 손가락의 모습은 현실 속 인간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또한 특정 종교를 막론하고 하늘을 향해 합장한 두 손은, 보다 고차원적인 존재로서의 고양하고자 하는 인간 내면의 숭고한 영성을 느끼게 한다.

신성로마제국시기, 뉘른베르크에서 금세공사의 아들로 태어난 뒤러는 어릴 때부터 천부적인 그림 재능을 갖고 있었다. 장인인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 금세공사가 되는 편이 자연스러울 수 있었던 그는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기보다는 화가가 되기를 원했다고 한다. 13세의 뒤러가 그린 자화상을 보면 그의 천재성을 엿볼 수 있다.

뒤러의 작품은 특히 판화가 많다. 그 당시의 판화는 생산성이 높은 일종의 대중매체였기 때문에, 그 이전 시대까지의 전통적인 화가와는 달리 뒤러는 특정한 의뢰자나 패트론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었다. 뒤러는 동료 작가들과 함께 판화 공방을 운영하였다. 뒤러가 드로잉을 완성하면 그것을 토대로 다수의 고용인들 혹은 제자들이 판화를 제작하고 인쇄하는 형태의, 일종의 집단 제작 체계를 갖추어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서 뒤러는 화가로서의 이름을 알렸으며, 판화 판매를 통해 꽤 돈을 벌기도 했다.

강한 자아 의식의 표출 특징
자화상 일환 자신의 손 그려
인간 고뇌와 기원 등 표현해

물론 뒤러가 판화만 제작한 것은 아니었다. 두 차례의 이탈리아 여행에서 전성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예술에 큰 감명을 받은 뒤러는, 그 경험을 자신의 회화에 반영하였다. 여행지 곳곳의 풍경들을 그린 뒤러의 수채화 작품들은 이후 유럽 풍경화의 흐름에 간과할 수 없는 영향을 주었다.

뒤러는 판화, 유화 등을 비롯한 여러 점의 자화상을 그렸는데, 그 중 1500년에 제작한 〈모피 코트를 입은 자화상〉은 그의 화가로서의 강한 자아의식을 잘 표현하는 작품으로 전해진다. 조용하고도 단호한 시선으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 자화상은 얼핏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당시 정면 초상은 관습적으로 신분이 높은 왕족, 귀족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포즈였다. 뒤러는 이러한 관습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자신의 자화상에 사용함으로써 이단아의 기질을 보여주었다. 뒤러 이후 렘브란트를 비롯한 당대의 대가들이 점차 자화상을 통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기법을 실험하고 예술 정신을 표현하게 되었다. 화가에게 있어서 자화상은 "나는 누구인가"하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과도 같다.

새삼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뒤러는 자화상을 회화의 한 분야로 정립한 최초의 화가이다. 뒤러가 살던 시대 독일 지역에선 화가는 후원자의 경제적 지원으로 작품을 의뢰 받아 제작하는 낮은 신분의 존재였기에, 화가가 자화상을 그리는 일은 비록 가능은 하지만 경제적으로나 화가의 명성으로나 별 도움이 안 되는, 현실적으로는 쓸모 없는 작업일 뿐이었다. 그러나 이미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한 뒤러는 예술가의 낮은 지위에 의문을 품었다. 뒤러가 여행했던 르네상스의 이탈리아에서는 작품을 창조하는 예술가는 종종 자연을 창조한 신과 비교되었고, 학식 높은 인문주의 지식인과 같이 대접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뒤러가 살던 뉘른베르크는 그렇지 못했다.

북유럽 르네상스 미술양식을 대표하는 뒤러는 실제로 〈인체 비례론〉및 〈원근법에 관한 고찰〉 등 이론서를 낸 미술이론가이기도 했다. 〈모피코트를 입은 자화상〉에서 뒤러의 오른 손은 가장 전면에 배치되어 있고, 빛이 내리 비치는 하이라이트인 이마와 함께 가장 밝은 톤으로 채색되어 있다. 뒤러는 그림의 오른쪽에 "뉘른베르크의 알브레히트 뒤러는 몸소 나를 고유한 색채로 28세의 모습을 그렸다." (Albertus Durerus Noricus ipsum me propriis sic effingebam coloribus aetatis anno XXVIII)라는 라틴어를 빛나는 금색으로 기록하고, 왼쪽에는 제작 연도와 자신의 서명을 했다. 천재성과 이단아 기질을 동시에 지닌 뒤러는 자화상에서 모피를 쓰다듬는 손을 통해 '이 손이 바로 예술가 뒤러의 손이오' 라고 말하는 듯하다.

손이 사물과 존재에 관한 명상적인 진리를 열어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 1840~1917, 프랑스)의 조각 〈대성당, 1908〉이 있다. 서로 약간 엇갈려 마주하고 있는 두 손은, 찬찬히 살펴보면 동일 인물의 왼손과 오른손은 아닌 듯하다. 혹은 연인의 두 손으로 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묘한 형상의 두 개의 오른쪽 손은 뒤러의 〈기도하는 손〉과 마찬가지로 깊은 영적 울림을 전한다.

기독교적 신앙에서 종교적 성소인 대성당은 한편으로 인간 내면의 영성과 천국의 구원이 만나는 예배의 장소이기도 하며, 절대자의 진리 앞에 홀로 앉은 고요한 명상의 자리이기도 하다. 즉 현세의 길과 도피안의 길이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대성당이다. 성스러운 장소가 반드시 신의 영광을 찬미하듯 솟은 웅장한 열주와 아치, 그리고 고딕 양식의 높은 첨탑일 필요는 없다.

사람의 손만으로 만들어낸, 닿을 듯 닿지 않는 이 작은 공간 또한 하나의 성소이다. 평범하고, 소박하며, 단순한 인간의 손짓에도 대성당의 거룩함이 깃들어 있기에, 인간의 손도 '초월적 영성으로 이끄는 내면의 성소' 라고 로댕은 말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뒤러의 〈기도하는 손〉이 누구의 손인지, 로댕의 〈대성당〉에 묘사된 손의 주인공이 본질이 아니다. 사람의 손, 그리고 그것을 묘사한 예술 작품에는 인간의 보편적인 고뇌와 기원, 그리고 인간이 세속적 존재로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자잘한 삶의 편린들이 담겨 있다. 뒤러와 로댕의 작품에서 마주치는 '손' 의 이미지는 '이름없는 자의 묵상' 이다.

예술가가 평범하고 투박한 인간의 손에서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 항상 우리 의식의 변방을 배회하지만 결코 우리의 관심에 들어오지 않는, 그러나 인간의 본질로 다가가는 길을 본 것은 아닐까? 뒤러도 로댕도 인간의 손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의 경이로움을 발견했을 것이다.

'손' 은 말없이 인간 존재의 깊이와 독특함을 부여한다. 바로 꾸준하고 반복되는 행위를 통해 단단하게 삶의 깊이를 더하고 영혼을 맑히는 일이다. 뒤러와 로댕의 작품에서 '손' 은 소리 내어 외치는 그 무엇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천둥과 번개가 지나갔고 모든 소리는 잠잠하다. 다만 '기도하고 일하라!'

고단하게 땀 흘려 '노동하는 손' 과 눈물 흘리며 가만히 포개어 '기도하는 손' 은 둘이 아니다. '손' 은 우리가 슬픔과 상실로 점철된 삶 속으로 관통하여 들어가 신성을 만나는 방법이다.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되지 마세요.
수행자가 되지 마세요.
깨달음을 얻지 마세요.
앉을 때, 있는 그대로 두세요.
걸을 때, 있는 그대로 두세요.
아무것도 붙잡지 마세요.
아무것도 거부하지 마세요.
깊이 울지 않았으면, 명상하지 않았습니다.
아잔 차(Ajahn Chah, 1918–1992, 태국) 스님

〈미술학자〉





변화무쌍 인간 기질, 내 인간형은?



임종욱의
붓다와 마주한 인생독법

⑰ 불교와 유교의 인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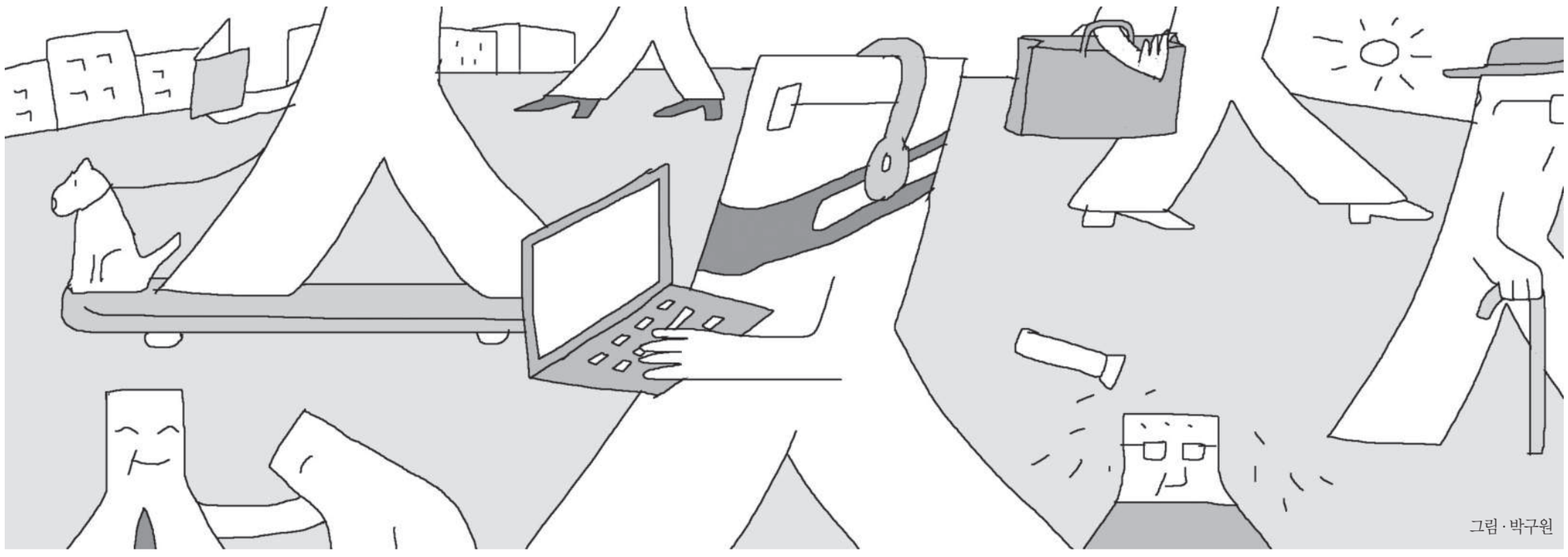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추석 때 읽은 두 편의 단편소설

남들은 차례와 성묘, 고향 찾기로 분주했던 추석 연휴 때, 나는 남해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다. 찾아뵐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가야 할 고향이 없어서도 아니었다. 그저 내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나흘 연휴를 집에만 있자니 좀이 쑤셨다. 남해에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들 고향을 찾아온 친구와 친지들을 만나느라 바빴다. 외지 사람인 나로서는 끼어들기가 어려웠다. 그저 나를 무사히 사바세계에 살게 해주신 조상님들께 마음으로 차례를 올렸다.

이리 뒹굴 저리 뒹굴 무료하게 연휴가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하릴없이 지내자니 답답하던 참에 서가에 꽂인 책이 눈에 띠었다. 되는대로 뽑아 펼쳐보니 어느 이름도 낯선 출판사가 낸 단편 모음집이었다. 다섯 편의 단편소설을 모아놓았는데, 예전에 다 한 번씩은 읽은 작품이었다. 그 중 두 편에 마음이 갔다. 전광용 작가의 〈꺼삐딴 리〉와 안수길 작가의 〈제3인간형〉이었다.

오랜만에 두 편의 소설을 다시 읽었다.

두 작품의 주제가 같다 하긴 어렵지만 결국 사람이 상황에 대응하는 문제를 다룬 소설이라고 할 수 있었다. 〈꺼삐딴 리〉는 의학박사 '이인국'이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 그리고 한국 전쟁을 치르고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이 불어나던 시기를 살면서 요행인지 지혜인지 현실의 변화에 발 빠르게 움직여 자신의 이익을 장악하는 이야기다. 이 소설은 1962년 7월 〈사상계〉라는 잡지에 발표되었다. 박정희 씨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1년 쯤 지난 시점이었다.

안수길의 〈제3인간형〉은 1953년 6월 〈자유세계〉에 발표되었는데, 한국전쟁 휴전일이 그해 7월 27일 22시 이후였으니, 전쟁이 거의 막바지에 이른 때였다. 부산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작가 '석'과 대단히 도발적인 작가였다가 전쟁과 함께 사라지더니 돈 많은 사업가가 되어 나타난 작가 '조운', 그리고 젊은 문학소녀 '미이' 세 사람이 전쟁을 겪으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줄거리다.

'이인국'이라는 사람은 철저한 기회주의자였다. 어쩌면 현실 적응에 타고난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다. 다윈의 '적자생존' 이론을 따지자면 불기둥 지옥에 가서도 에어컨을 돌릴 위인이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21세기 현재의 한국 사회에까지도 살았다면, 어떤 처세를 보였을까 궁금해졌다.

비관적이고 사색적인 성격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을 삐딱하게 보던 '조운'은 전쟁을 맞아 놀랍게 변신해 사업가로서 뛰어난 기질을 보여주었다. 한편 그를 문학적으로 흠모했던 '미이'는 처음에는 조운의 염세주의를 비판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장했다가, 전쟁 중에 끔찍한 일을 당한 뒤에는 세계관이 일변해 세상에 태어난 구실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로 성향이 바뀌었다. 이 둘의 변신을 보면서 이도 저도 아닌 나 '석'은 무엇인지 번민한다는 것이 소설의 주된 내용이다.

두 편의 소설을 읽고, 문득 나 자신은 어떤 인간형인지 하는 의문과 함께 이 네 사람 가운데 누가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 될지도 궁금해졌다. 물론 읽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인물에게 손을 들 테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택도 있을 테니 더는 언급하지는 않겠다.

눈[雪]의 결정만큼이나 많은 인간형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란 게 어쩌면 사람 수만큼이나 많을지도 모르겠다. 백인백색(百人百色)이고 천차만별(千差萬別)이다. 그런데 이렇게 치부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호사가의 짓궂은 장난인지 심리학자의 엄격한 구분인지 알 수 없지만, 인간형을 나눠보는 게 한때-아니면 지금도- 유행인 적이 있었다.

근래에도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구분이 '아침형 인간'과 '저녁형 인간'이다. 사람의 활동력이 어느 때 가장 활발한지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다. 새벽에 눈을 떠 오전 중에 머리가 가장 팽팽 돌아가 창의적인 업무를 마치거나 활동양이 큰 사람이 전자일 게고, 해가 저물어야 엔도르핀이 돌기 시작해 새벽까지 활기차게 일을 끝내고는 동 틀 무렵 잠들어 낮이 되어서야 깨는 사람은 후자일 게다.

내가 보기엔 둘 다 정상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기질 탓이든 버릇 때문이든 본인이 편하다면 따질 일은 아니겠다. 나라면 예전에는 아침형 인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일에 졸가리가 없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다.

또 '알콜형 인간'과 '비알콜형 인간'도 있을 법하다. 술이 좀 들어가야 일할 맛이 난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한 잔이라도 마시면 몸이 묵직해 만사가 귀찮아진다는 사람도 있다. 나도 술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술을 조금만 마셔도 글이 쓰이질 않으니 후자일 것은 틀림없다.

또 현실을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돈키호테형 인간'과 '햄릿형 인간'으로 나누기도 한다. 세상의 일에 대해 진지한 고민보다는 눈에 보이는대로 자기 기분대로 바로 부딪치며 해결해 나가는 저돌적인 인간도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만 하다가 제 스스로 자멸하는 번민형의 인간이 있는데, 각각 유명한 문학작품의 주인공 이름을 따 고안한 구분이다.

원효형 인간과 의상형 인간
개구쟁이와 모범생 구분 같아
자로 · 자공 등 공자제자도 달라

불교가 배출한 성현을 대상으로 구분해보면 어떨까?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섭형 인간'과 '아난형 인간'이다. 가섭존자는 인도 선종(禪宗)의 초조(初祖)로 불리는 두타제일(頭陀第一)의 인물이지만, 부처님과의 회합에-심지어 열반에 드셨을 때조차- 자주 지각을 한 것을 보면 아주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었던 듯하다. 그런데 아난존자는 다문제일(多聞第一)로 불릴 만큼 워낙 기억력이 좋았던 것까지야 그렇다 쳐도 항상 부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따랐으니, 대단히 성실했던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가섭존자는 속된 말로 '촉'이 좋은 분이었고, 아난존자는 '머리'가 좋은 분이었다.

우리나라가 배출한 대덕(大德)을 들라면 사람마다 다양하겠지만, 나는 '원효형 인간'과 '의상형 인간'으로 나누고 싶어진다.

원효(元曉, 617-686) 스님은 선승인지 학승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만큼 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그에 못지않은 기행(奇行)으로도 정평이 나 있다. 의상(義湘, 625-702) 대사와 함께 중국 유학을 가려다 간밤에 마신 맛좋은 물이 '해골 물'인 것을 알고 깨달음을 얻어 유학을 포기했다는 것이나,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주려는가, 나는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을 깎으련다.(誰許沒柯斧 我斫支天柱)."고 외치고 다녀 요석공주(瑤石公主)와 염문을 뿌린 일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비범한 행동으로 유명하다.

반면 의상 대사는 우리나라 화엄종(華嚴宗)의 개종조면서 화엄십찰을 건립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부석사(浮石寺) 창건과 얽힌 중국 여인 선묘(善妙)와의 로맨스가 있기도 하지만, 이 역시 '플라토닉 러브'에 가까운 미담이니, 원효와는 처신부터 달랐다. 괴팍했던 원효에게 제자가 붙어 있었는지도 의문이지만, 의상에게는 물경 3천 명에 이르는 제자가 있었다고 하니, 그가 얼마나 존경받을 행동으로 자신을 지켰는지 짐작이 간다. 스님은 강의와 수행에만 전력했으며, 가사와 병(甁), 발우(鉢盂) 세 가지만 지니고 다닌 청빈(淸貧)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면 불경하다는 핀잔을 듣겠지만, 원효가 '싹수가 남다른 개구쟁이'였다면, 의상은 '먼지 하나도 털어내는 모범생'이었을 듯하다.

공자 문하의 세 제자

공자 역시 제자를 3천 명이나 두었다니 별별 인간형들이 백가쟁명(百家爭鳴)의 법석을 피웠을 것이다. 게을러 욕설까지 들어먹은 제자가 있는가 하면, 우직하고 어리석었지만 이를 장점으로 살려 학문을 이룬 제자도 있다. 공문(孔門)에는 극과 극을 달린 제자들이 많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굳이 이들을 인간형으로 구분하라면 나는 '안회형 인간'과 '자로형 인간', '자공형 인간'으로 나누고 싶다.

안회(顔回, 기원전 521-기원전 481)는 사색이 주특기인 '꽉 막힌 샌님'이었다. 무엇 때문에 공자가 안회를 그렇게 신뢰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이른 나이로 죽었을 때 공자는 남들 보기에 민망할 만큼 통곡했다고 한다. 햄릿처럼 행동보다는 고민에 치중했던 인물이라 별반 업적을 남긴 것도 없지만, 유가(儒家)에서는 엄청나게 존경을 받는다.

자로(子路, 기원전 543-기원전 480)는 실천력이 아주 강했던 인물인데, '의리의 돌쇠' 같은, 언행에 거침이 없는 사람이었다. 공자와 나이 차이도 많지 않았지만, 공자의 결행에 어깃장을 많이 놓아 썩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자로가 비참하게 죽자 그 충격으로 공자 역시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이 귀여운 악동(?)에게 공자도 애정을 가지기는 했던 모양이다.

자공(子貢, 기원전 520?-기원전 456?)은 전형적인 책사형(策士型) 인물이었다. 언변이 뛰어났던 데다 외교관으로서도 수완을 보였고, 무엇보다 이재가(理財家)로서 재산을 많이 모아 공문의 번영은 그의 경제적 지원에 힘입은 바가 컸다고 한다. 비교적 장수를 했고, 공자가 별세한 뒤 공문의 실질적인 계승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유가에서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이 자로였다는 생각이 든다.

추석을 전후로 해서 이 말 많고 탈 많은 속세에서 갑자기 삭발(削髮)에 열을 올리는 중생들이 확 늘어났다. 불문(佛門)에 귀의하고자 하는 기특한 사람은 아닌 듯하고, 느닷없이 만인좌시리(萬人坐視裏)에 티브이로 중계가 되면서 머리를 깎았다. 머리를 못 깎아 안달인 사람이 많으니, 앞으로도 이 불사(佛事)에 동참할 이들이 줄을 설 것으로 보인다. 훗날 이런 분들을 두고 사람들은 어떤 인간형이라 시호(諡號)할지 참으로 궁금해진다.

〈소설가〉

제7회

묘엄불교문화상 공모

고(故) 세주 묘엄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이사장 김용환)에서는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공모기간
2019년 **10월 1일 ~ 31일**

시상내역
2명(또는 단체), 각 상장 및 1천만원 상금

추천자격 및 선정기준
- 불교문화, 불교실천, 불교학술 등의 분야로 나누고, 그것을 세분화하여 불교교육, 포교, 수행, 불교학술, 불교예술 등의 분야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미 있고, 뛰어난 활동을 다년간 지속해온 결과,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서, 그 활동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다른 기관(재단) 으로부터 상을 탄 적이 없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 단체는 설립 된지 5년 이상, 회원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하며, 근거자료와 함께 그 동안의 활동업적이 첨부돼야 한다.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
- 접수양식 :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에서 다운로드 cafe.daum.net/myoeom.org
- 접수처 : 묘엄불교문화재단 사무국 49315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동아대학교 인문대학 철학생명의료 윤리학과 윤종갑 교수
- 문의 : 사무국장 윤종갑 교수 010-2314-2722 greencw@hanmail.net | 팩스 051)200-7015
- 자세한 사항은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 참조

수상자 발표
- 개별통지 후 재단 카페에 공지
- 시상식 : 2019년 **12월 3일 오전 10시 수원 봉녕사** 대법당 세주 묘엄 스님 제8주기 추모다례재일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 사무국

불교방송(BBS)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공모

1. 불교 현대화 의지로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비전 제시 역량을 가지고 사회적 신뢰도 제고와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2. 방송의 경쟁현황 및 전망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있으며, 경영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경륜 및 불교방송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인사

위와 같은 인사를 불교방송(BBS) 사장 후보자로 모십니다.

- 자격요건 : 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불자
- 제출서류 : ① 이력서 1부(사진/상벌사항/인감날인 포함)
  ② 소개서 1부(경력 및 업적 중심, A4용지 3매 이내)
  ③ 경영계획서 1부(후보자 본인의 의사를 기초로 작성해야 함. A4용지 10매 이내)
  ④ 불교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계증, 신도증, 기타)
  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일반양식 사용)
- 제출 기간 : 2019년 10월 7일(월) ~ 10월 11일(금) 오후 5시
- 제 출 처 : (재)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 (문의 전화 02-719-1855)
  주소 : 04175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20 다보빌딩 15층
- 면접 일시 : 추후 개별 통보
- 응모는 본인 이외에 추천자도 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一圓相’ 진리로 세상을 일깨우다

〈일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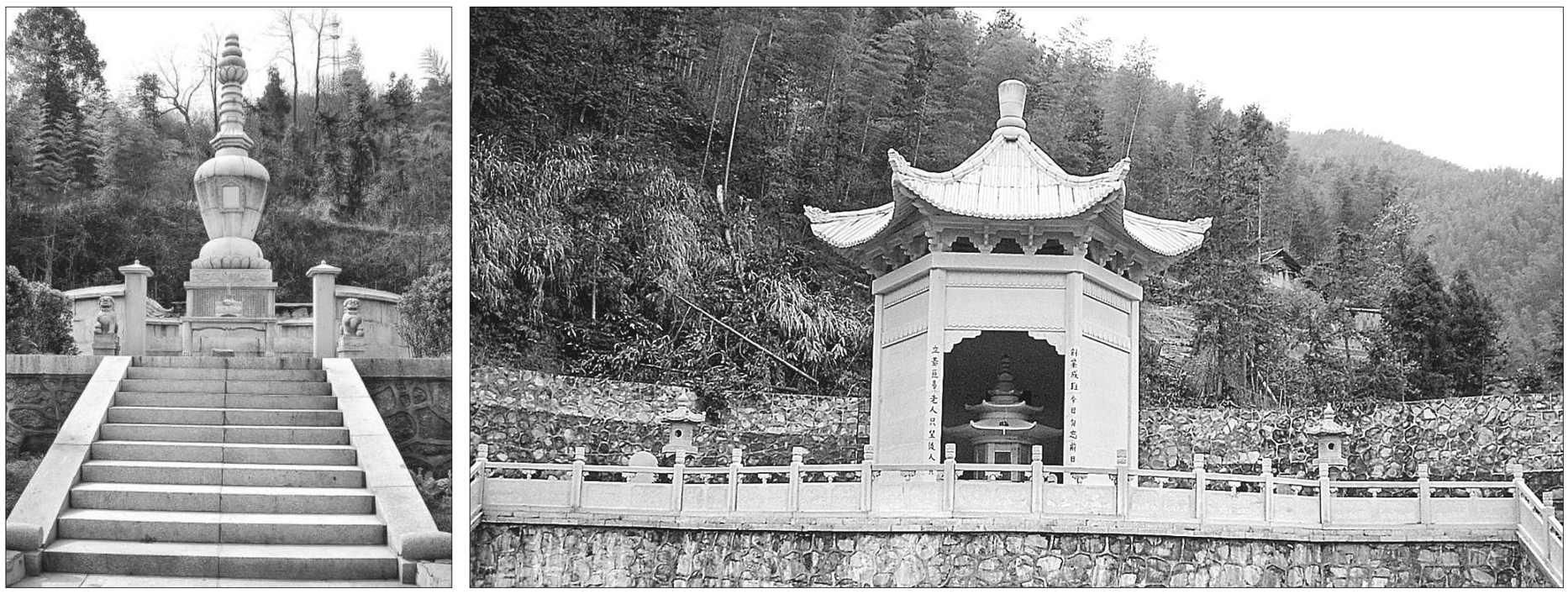


정운 스님의
禪의 르네상스 이끈 선지식들

⑰ 위앙종의 선풍

중국선의 르네상스는 당나라 시대에 형성된 선종의 분파인 5가이다. 물론 5가 이전부터 선이 발달하기 시작했지만, 5가가 형성됨으로서 중국선이 완성됨이요, 조사선이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5가 가운데 가장 먼저 흥기한 종파가 위앙종(潙仰宗)이다. 법맥은 혜능-회양-마조-백장-황벽-위산-앙산이다. 스승 위산과 제자 앙산의 선사상을 말하는데, 위산의 ‘위(潙)’ 자와 앙산의 ‘앙(仰)’ 자를 따서 ‘위앙종’ 이라고 한다.



중국 호남성 영향 밀인사에 있는 위앙종의 개조 위산 영우 선사 사리탑(사진 왼쪽)과 강서성 의춘 서은사에 있는 앙산 혜적 선사 사리탑(사진 오른쪽)의 모습. 당나라 시대 선종 5가 중 하나인 위앙종의 중심에는 위산과 앙산이 있었다.

위산 영우 선사는

위산 영우(潙山靈祐, 771~853)는 복건성(福建省) 복주(福州) 장계(長谿) 출신으로, 속성은 조씨다. 위산은 15세에 고향 건선사(建善寺)에 출가해 대소승 계율과 경전을 배웠다. 구족계를 수지한 뒤, 경전 공부에 전념했다. 나이 23세 무렵,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극하기는 하지만, 내가 의지할 바가 아니다’ 라고 하며, 선을 하기 위해 백장회해(百丈懷海, 749~814) 문하에 들어갔다.

위산은 스승 문하에서 수행하다가 장사(長沙)로 가던 도중 대위산(大潙山) 동경사(同慶寺)에 머물러 법을 펼쳤다. 이런지 얼마 안되어 당 무종의 ‘회창파불(會昌廢佛, 845)’ 이 일어났다. 위산은 잠시 난을 피해 재가자로 살다가 난이 끝날 무렵, 재상 배휴(裵休, 797~870)의 도움으로 다시 선풍을 펼쳤다. 위산이 동경사에서 법을 펼친 이후, 그의 문하에 1500여명의 제자들이 머물렀다. 이곳에서 40여 년간 법을 펼친 위산은 853년 세납 83세로 열반에 들었다. 선사가 열반하는 날 종일토록 산의 물이 마르고 짐승과 새들이 울부짖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시호는 대원(大圓), 탑명은 정혜(淨慧)이다. 저서에는 ‘담주위산어록(潭州潙山語錄)’ · ‘위산대원선사경책문(潙山大圓禪師警策文)’ 이 있다.

‘경책문’ 에는 위산이 후학들에게 경책하는 구구절절한 말이 담겨 있는데, ‘경책문’ 은 〈사십이장경〉 · 〈유교경〉과 함께 ‘불조삼경(佛祖三經)’ 가운데 하나이다. ‘경책문’ 은 학인들이 처음 공부하는 〈치문〉에 수록되어 있는데, 수행자들이 늘 곁에 두고 경책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산은 당시 나태해 있는 수행자들을 위해 경책하기 위해 지은 글인데, 한 구절만 살펴보자.

“비록 4대로 이 몸이 지탱되나 항상 서로 어기고 등지니, 덧없는 생노병사가 예고 없이 다가와 아침에 살았다가도 저녁에 죽어서 찰나에 다른 세상이다. 마치 봄 서리나 새벽이슬 같아서 잠깐 사이에 사라지며 벼랑 위의 나무나 우물 속의 넝쿨과도 같은데 어찌 오래갈 수 있으리오.”

앙산 혜적 및 위앙종 선사들

앙산 혜적(仰山慧寂, 807~883)은 광동성(廣東省) 소관(韶關) 사람으로, 성은 엽(葉) 씨이다. 그는 15세에 출가하려 했지만, 부모의 승낙을 얻지 못했다. 어느 날 두 줄기의 흰빛이 조계로부터 솟아 앙산의 집에 비추자, 부모가 출가를 허락했다고 한다.

앙산은 17세 때 소주 남화사(南華寺) 통선사(通禪師)에게 출가한 뒤 사미 신분으로 여러 곳을 다녔다. 18세 무렵 탐원 응진(耽源應眞, 남양 혜충의 제자)의 문하에 들어가 탐원으로부터 일원상(一圓相)의 도리로 깨달음을 얻은 뒤, 여러 지역을 이력하며 수행했다. 이후 앙산은 위산의 문하에 입실해 15년간 가르침을 받았다. 즉 앙산은 탐원에게서 일원상으로 1차 깨달음을 얻고, 위산 문하에서 크게 깨달은 뒤에 위산의 법을 받았다.

이후 앙산은 복건성 소관 · 광주 등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다 842년 강서성(江西省) 의춘(宜春)에 서은사(栖隱寺)를 창건하고 개당설법하였다. 당시 이 사찰에서는 향엄 지한(香嚴智閑, ?~898) · 석상 초원(石霜楚圓, 986~1039) · 불인 요원(佛印了元, 1032~1098) 등이 머물렀고 승려가 많을 때는 1000여 명에 이르렀다. 그는 말년 10년을 광동성 소관의 동평산(東平山)에 머물다 그곳에서 77세로 입적했다. 후에 강서성 의춘 서은사로 사리탑을 옮겨왔다. 시호는 지통(智通), 탑명은 대통(大通)이다.

앙산은 선종사에서 위산의 수제자로 알려졌지만, 6조 혜능의 법을 이은 ‘7조’ 라고 추앙받았으며 ‘소석가(小釋迦)’ 라는 칭호를 받기도 하였다. 앙산은 6조 혜능을 흠모했고, 그의 사상으로 공부했으며, 제자들에게도 조계의 심지(心地)로 지도했기 때문이다. 한편 앙산의 법력이 선종사에 미친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위앙종은 스승 위산이 개산했지만, 세상에 드러나고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앙산부터이다.

당나라 선종 5가 중 하나 위앙종
위산 · 앙산 중심… 가장 먼저 흥기
위앙종 종풍은 일원상 · 여여불 사상
앙산, 제자들 근기마다 방편 법문
맥 끊겼다가 근대 와서 다시 부활

위앙종에는 앙산 이외에도 훌륭한 제자가 많은데, 영운 지근(靈雲志勤, ?~866) · 서원 대안(西院大安, 793~883) · 향엄 지한 등이다. 향엄은 마당을 쓸다가 기와 조각이 대나무에 ‘딱!’ 하고 부딪치는 소리에 깨달음을 얻었고, 영운은 복숭아꽃이 활짝 핀 모습을 보고 깨달아 선종사에서 두 선사의 기연이 회자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원 대안은 원래 백장의 제자였는데, 백장이 입적한 뒤, 사형인 위산에게 옮겨가 위산의 법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위산에 머무르기 30년, 위산 스님의 밥을 먹고 위산 선사의 대변을 보았지만 위산의 선만은 배우지 않았다’ 라고 할만큼 자신의 선풍이 뚜렷한 인물이다.

위앙종의 종풍

위앙종의 종풍은 일원상과 시절인연(時節因緣)을 자각하는 여여불(如如佛) 사상이다. 위산이 23세에 백장을 찾아가니, 백장은 위산의 입실을 허락했다. 어느 날 백장이 위산에게 말했다.

“화로에 불씨가 있는지 헤쳐 보아라.”

위산이 화로 안을 뒤적이면서 “불씨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백장이 다시 화로를 뒤적이며 조그만 불씨를 찾아내어 영우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것이 불씨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 때 순간 위산이 깨달은 뒤, 백장선사에게 절을 하고 자기의 견해를 펴니 백장이 말했다.

“그것은 잠시 나타난 갈림길일 뿐이다. 경전에 이르기를 ‘불성을 보고자 한다면 시절인연(時節因緣)을 잘 관찰하라’고 하였다. –〈경덕전등록〉

백장이 제자인 위산에게 불성이 구족되어 있음을 직설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화로에서 불씨를 직접 찾게 하는 방편을 쓰고 있다. 여기서 불씨는 부처가 될 성품인 불성을 말한다. ‘시절인연’ 이라는 말은 〈열반경〉에 나오는데, 모든 중생은 자신이 부처가 될 성품(佛性)을 깨닫는 결정적인 때(시기)가 오게 되어 인연과 합하는 것을 말한다.

‘여여불’ 이라는 말은 범부니 성인이니 하는 분별의식이 없어지고, 있는 그대로의 진상이 원래 그대로 드러난 둘이 아닌 경계를 말한다. 한편 부처나 깨달음 그 자체도 문제 삼지 않고, 시절인연을 자각하고 일상생활에 철저한 평상(平常)의 무사(無事)한 사람을 가리킨다. 곧 위앙종의 사상은 시절인연을 자각하는 주체인 불성이 여여불임을 강조한다.

다음 일원상에 대해 살펴보자. 일원상(一圓相)은 위앙종의 여여불 사상 이상으로 중요한 종지이다. 앙산은 수년간 수행 끝에 일원상으로 법을 나투는 묘리를 터득하였다. 〈인천안목〉에 의하면, 탐원은 남양 혜충의 제자인데, 앙산은 탐원으로부터 일원상의 진리를 받았다. 원상(○)이란 본래 완전무결하고 위대한 작용을 하는 우주의 모습을 둥근 원으로 표현한 것이다. 삼조 승찬의 〈신심명〉에서는 “둥글기가 큰 허공과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圓同太虛 無欠無餘)”라고 표현하고 있다. 위앙종은 수행자를 가르칠 때 원상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원상에 관련된 문답이 자주 나온다. 앙산이 일원상을 사용하여 제자들을 제접한 여러 예가 있다.

어떤 승려가 와서 앙산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의 뜻입니까?”

앙산은 손으로 원상을 그려 보이고 그 원상 안에다 ‘불(佛)’ 자를 써서 보였다.

또 한번은 앙산이 눈을 감고 앉아 있는데, 어떤 승려가 걸어와서 앙산 곁에 앉았다. 그러자 앙산은 문을 열고 땅 위에다 원상을 그리고 그 원상 안에다 ‘수(水)’ 자를 쓰고 그 승려에게 돌아보며 보였다. –〈조당집〉

앙산은 입적하는 순간에도 몸으로 원상을 그려 진여의 이치를 나타내었다. 위앙종에서는 체용(體用)을 밝히어 원상(○)을 그려서 사람에게 보이며 법의 체용을 나타내어 그것을 깨닫고 닦아 들어오게 하는 묘한 방편을 삼았다. 즉 일원상이 깨달음이나 불성의 상징으로서 조사선에 채용되어 스승이 제자를 깨우치는 방편으로 삼았던 것이다. 원상은 진실하고 절대 진리, 불심(佛心) · 불성 · 진여 등을 상징한다. 당나라 말기, 각 5가에 대한 평가가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는데, 위앙종에 대해서는 일원상을 종풍으로 언급하고 있다.

앙산은 “석두(石頭, 700~791)화상이 순수하게 금만을 파는 진금포(眞金鋪)라면 나 앙산은 잡화포(雜貨鋪)이다”라면서 자신의 방편법문을 ‘잡화포’ 에 비유하였다. 어떤 물건이든 다 파는 ‘잡화포’ 라는 말은 제자들의 근기에 맞추어 제도해줌을 자임하면서, 석두를 비판하는 면이 담겨있다.

위앙종은 앙산 이후 몇 대만이 전하다 법맥이 끊겼으나 근대의 허운(虛雲, 1840~1959) 스님이 위앙종의 선지를 살려 위앙종의 법맥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삭발에 가사장삼의 스님을 보면...

세상물정에는 좀 어두운 분....하며 어설프게 채워놓은 염불시설 때문에 한국 사찰의 스님들이 스트레스와 땜질보수로 이중고를 겪습니다.

최고 염불시설의 길!

앰프다루기 1초의 간단견본으로 법당에서 소리를 비교! … 장난감 소리의 차이를 확인 후 현 법당시설비의 절반값에 견본 이대로의 시설만이 어설픈바가지 시설 때문에 받는 이중고에서 벗어나 평생 염불이 신명나는 가장 확실한 최고의 염불시설로 가는 길입니다.

▣ 설악 신흥사 및 토굴까지 일천여곳 형편따라 소리공학 맞춤시공 (방문시 명단제공)
▣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확! 달라지는 소리체험 후마이크만 구입 가능
▣ 본품은 시중에 없음…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이 글은 법적증서)
▣ 사찰 전체음향 시설비는 일백구십만원~이백구십만원~삼백구십만원
▣ 제품 국산, 마이크는 이태리산, 무상A/S기간 7년, 할부가능
▣ 앰프1, 스피커 4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종류별로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390만원이면 명산대찰 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 하나만은 확실히 월등함.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방송시설 전문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Projector EPSON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HITEC 하이텍 미디어 대표 박공희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청암사
• 주 소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20길 5(봉덕동) 2층
• 주 지 : 보문법사 (속명 : 조혜옥)
• 고유번호 : 301-82-85683

위 사찰과 위 본인은
수행 종풍이 맞지 않아 귀종에서
탈종을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5일

대한불교불승종 총무원장 법하

영가 찾는 법

명리학

초보반
| 대상 | 명리기초가 전혀없는 왕초보
| 과정 | 3개월(수료후 실전반 수강)
| 수강료 | 3개월 30만원 (월 10만원)

실전반
영가 찾는법 집중강의
| 대상 | 명리기초 완성자
| 과정 | 3개월
| 수강료 | 3개월 60만원 (월 20만원)

육효학

초급반 3개월 과정 (월 10만원)
실전반 3개월 과정 (월 20만원)

오시는 길
동작구 사당동 1039-13(사당역 8·9번 출구 200m)

백암역리원 02)597-1101

불성, 이미 우리가 가진 것



新 불교사자성어

㉝ 즉심시불(卽心是佛)

즉심시불(卽心是佛)은 '마음이 곧바로 부처(卽心是佛)' 라는 뜻이다. 선불교를 상징하는 유명한 사자성어로서, 글자 순서를 바꾸어서 '심즉시불(心卽是佛)' 이라고도 많이 쓴다. 동의어로는 '즉심즉불(卽心卽佛, 마음 그 자체가 그대로 부처)' , '즉심시불(卽心是佛, 마음 그대로가 바로 부처), '시심즉불(是心卽佛, 이 마음이 곧 부처)' , '시심시불(是心是佛, 이 마음 이것이 바로 부처)' 등이 있다.

스님들의 법문에서 '이 마음이 곧 부처(즉심시불, 심즉시불)' 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 보았을 것이다. 여기서 '부처(佛)' 란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경배하는 부처님이나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불상, 또는 역사상 실존했던 붓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대명사로서 '부처' 를 가리킨다.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불상이나 인격화된 석가모니 부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적 진리의 대명사로서 '부처' 이다.

'그대의 마음' , 또는 '그대의 마음 그 자체가 바로 부처' 라는 뜻인데, 각도를 바꾸어 설명한다면 '본래 청정했던 그 마음(불성)을 되찾으라.' 는 뜻이기도 하다. 탐진치 등 세속에 오염되어 있는 청정한 마음(불성)을 복원,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곧 니르바나의 길이고, 깨달음의 길이고, 불교적 인격, 인간상을 되찾는 길이기도 하다.

마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선수행 등 모든 수행에서 핵심적인 주제이다. 그런데 막상 '마음이 부처' 라고 하여 그 마음을 찾으려고 보니 막연하기가 이를 데 없다. 마음속에 무엇을 찾고 무엇을 깨달으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설마 육체 속에 마음은 어디쯤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을 찾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마음이 곧 부처(진리)다' , '마음을 찾으라' 또는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는 말 속에는 대략 두 가지 정도의 뜻이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본래 깨끗한 마음(본래청정심, 불성, 진여심)을 찾으라는 뜻이고(이것이 본의임), 다음은 그와는 반대로 우리의 번뇌심, 탐진치, 분노와 증오 등 희로애락에 매달려 있는 그 마음을 반조해 보라는 뜻이다. '번뇌가 곧 보리(진리)' 라고 유마경에서 설한 바와 같이, 자신의 치성한 그 마음을 반조하다보면 실체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수행했는데, 막상 '분노' , '화' , '욕망' 등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런 수행은 인생에서 경제적, 시간적으로 낭비이다. 수행이란 결국 '마음 다스리기' 이고, '분노나 화 다스리기' 인데, 소소한 일에도 화를 내면서 자신의 마음도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런 수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한 예로 오늘날 환경오염, 대기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모든 국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사회 이후 점점 증가하고 있는 환경 파괴와 오염은 지구적인 문제로 등장했다. 글로벌 사회는 환경오염을 막고 오염되기 이전의 상태(청정)로 돌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불성,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그와 같은 것이다.

〈대승기신론〉에서는 '마음' 을 진여, 또는 '진여 일심' , '진심' , '직심(直心)' 이라고 하고, 화엄에서는 '법신' , '법성' 등으로 표현한다, 표현만 다를 뿐 모두가 동의어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야 테마는 그대의 마음 깊숙하게 자리하고 있는 청정한 마음, 곧 불성을 깨닫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즉심즉불, 즉심시불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 선사이다.

한 납자(스님, 수행승)가 마조선사에게 물었다. "화상께서는 어째서 즉심즉불을 설합니까." 마조선사가 말했다. "어린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는 것이다." 젊은 납자가 물었다. "울음을 그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설하시렵니까." 마조선사가 말했다. "비심비불(非心非佛,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다)이니라."

마조선사는 항상 '이 마음이 곧 부처' 라고 설했는데, 그 뒤의 문제를 거론하자 이제는 마음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고 한 것이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왜일까? 마음을 찾는데 너무 집착할까 염려해서다.

또 어느 날 대매법상이 마조선사에게 물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마조가 말했다. "즉심시불이다."

'그대의 마음이 곧 진리(부처)' 이므로 부질없이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그대의 마음에서 찾으라' 는 뜻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설두 올가미와 소굴에 떨어진 목주



격절록 강설

㉝ 목주소치 2

[評唱 2]

這僧不是尋常底禪和 却云 "怕某甲不實" 是則是 直饒浪擊千尋 爭奈龍王不顧. 睦州道 "拄杖不在 苫蓆柄聊與三十" 且道 是壓良為賤 莫是倚勢欺人. 切忌錯會好 削去是非得失 情解計較 令淨躶躶 赤洒洒 自然正見現前 得大自在.

이 스님이 보통의 선승(禪和)이 아니었기에, 다시 말했다.

"아마도 제가 실답지 못하다고 여기시는 거죠!"

옳기는 옳지만, 설사 파도를 천 자(尋=尺)나 치더라도 용왕이 돌아보지 않는 것을 어찌 하겠는가!

목주가 말했다.

"주장자가 없으니, 풀 빗자루로라도 삼십 방을 쳐야겠다."

자, 말해보라! 이는 양민을 억눌러서 종을 삼은 것인가, 세력을 믿고 사람을 속이는 것인가?

절대로 잘못 알지 말라! 시비득실(是非得失)과 정해계교(情解計較, 생각으로 헤아리고 서로 견주어 살피는 것)를 버리고 정나나하고 적쇄쇄토록 하면, 자연히 정견(正見)이 앞에 드러나 대자재(大自在)를 얻게 될 것이다.

古人道 "合恁麼時 早是錯了也" 雪竇傍相 一拶甚好. 拈即許你拈 會即不許你會 何故 睦州只有受壁之心 且無割城之意. 往往真箇道 睦州只有受壁之心 落在雪竇繾綣窠窟裏.

고인(古人)이 말하기를 "바로 이럴 때, 이미 틀린 것이다"고 했는데, 설두(雪竇)가 곁에 있었다면 한 대 쳐 주었을 것이다. 염(拈)을 한다면 그대가 염하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알았다고 한다면 그대가 안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목주에겐 다만 벽(壁, 옥)을 받을 마음만 있었을 뿐, 성을 떼어 줄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왕왕 정말로 목주에겐 다만 벽을 받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다고 한다면, 설두의 올가미와 소굴에 떨어진 것이다.

戰國時 秦強趙弱 而趙有連城之璧. 秦王聞之 許以十五城易之. 趙乃遣藺相如送璧至秦 秦王但受其璧 竟無割城之意 相如乃以計奪還於趙也. 諸人且道 什麼處是睦州只有受璧之心處. 且甚處是無割城之意處也. 須各人著些精彩始得.

전국시대에 진(秦)나라는 강하고 조(趙)나라는 약했는데, 조나라에 연성의 벽(連城之璧)이 있었다. 진왕(秦王)이 그 소식을 듣고는 열다섯 개의 성(城)과 바꾸는 것을 약속했다. 조나라는 이에 인상여(藺相如)를 파견해서 옥을 가지고 진나라에 이르게 했는데, 진왕은 다만 그 옥을 받기만 하고 끝내 성을 떼어 줄 생각이 없자, 상여가 계교를 써서 옥을 빼앗아 조나라로 돌아왔다.

대중들은 자, 말해보라! 어느 곳이 다만 목주가 옥을 받고자 하는 마음뿐이었던 곳인가? 또한 어디가 성을 떼어 줄 생각이 없었던 곳인가? 모름지기 각자가 조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 '古人道 合恁麼時 早是錯了也' 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목주의 대중 법문이 있다. 목주가 대중에게 말했다.

"그대들 모두 아직 들어갈 곳을 얻지 못했다면 모름지기 들어갈 곳을 얻어야 한다. 이미 들어갈 곳을 얻었다면 노승을 저버리지 말라! 요즘 사람들은 분명하고 분명하게 도를 향해 가면서 스스로 알지도 못하면서 더군다나 덮어버리기까지 하고 있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㉝ 이해의 길 13

참을 수 없는 집착의 무거움

"손님, 삶이 고통입니다."

적지 않은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심을 때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보고 치과의사가 한 말이다. 이러한 육체적 고통도 힘들지만, 마음의 고통은 훨씬 더 심하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 경전에는 아들을 잃고 괴로워하는 키사 고타미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녀는 붓다에게 찾아와 자신의 아들을 살려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며 애원했다. 그때 붓다는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에서 겨자씨 한 톨을 얻어오면 아들을 살려주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여러 집을 돌아다녔지만,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을 수가 없었다. 붓다는 왜 그녀에게 무모하게 보이는 처방을 내렸을까?

사성제의 두 번째는 집성제(集聖諦)다. 이는 괴로움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인데, 어떤 요인들이 모여서(集) 고통을 낳는지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갈애(渴愛)나 탐진치(貪嗔痴) 삼독(三毒)으로 설명한다. 갈애는 목이 마를 때 물을 찾는 것과 같은 타오르는 욕망을 의미한다. 그리고 삼독이란 무엇인가를 욕심(貪)내는데, 그것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화(嗔)를 내며 어리석은(痴) 인간의 모습을 가리킨다. 그런데 갈애와 삼독도 집착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집착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발생한다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집착이 일어나는 구조를 이해하면, 이를 현실적으로 극복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집착은 마음속 생각과 현실 사이의 간극 때문에 발생한다. 특히 그 대상이 자신의 삶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클수록 집착은 더욱 강해진다. 예컨대 주식투자로 큰돈을 잃었다고 해보자. 돈을 날려버린 현실을 쿨하게 인정하려고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투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더욱 더 돈에 집착하게 된다. 현실엔 돈이 없는데, 마음속에는 잃어버린 돈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실과 생각 사이의 괴리가 집착을 낳고 집착이 괴로움을 낳는 것이다.

돈을 날려도 이렇게 괴로운데, 그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겠는가! 키사 고타미에게 있어서 아들은 삶의 전부였다. 그런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 어떤 것도 그녀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다. 붓다는 냉정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택한 방법이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라는 것이었다.

붓다는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붓다는 여인의 고통을 정확히 직시하고 있었다. 물론 여인의 고통은 아들을 잃었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붓다가 본 것은 여인의 마음이었다. 현실에서는 아들이 죽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 살아있는 엄청난 괴리를 붓다는 보았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현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즉 죽은 아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주어야만 고통도 끝나는 법이다.

이처럼 생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집착을 낳고 이는 우리들 삶에 참을 수 없는 무거움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현재를 있는 그대로 살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 속에 자신을 가두면서 괴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해봤던 사람이 수없이 떨어지면서도 계속 선거에 나오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다. 현실은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마음속엔 국회의원의 기억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간극을 줄이지 않는 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간극을 줄일 수 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 하나는 마음이 현실을 따라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이 마음을 따라가는 일이다. 전자가 행복의 길이라면, 후자는 고통의 길이다. 앞의 길이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처방을 내리는 경우라면, 뒤의 길은 지금 당장의 고통만을 면하게 해주는 진통제일 뿐이다. 그 이유가 다음 호에서 드러날 것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제 103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義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나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강일 : 10월 첫째주 월요일
◆ 강의일시 : 매주(월)오후 1시 ~ 4시 30분
◆ 담임교수 : 기봉스님 (무형문화재 50호 전수조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102기 강의중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6시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선동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義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6



생명나눔-뮤지컬 '싯다르타' 업무제휴

16일 협약식… "생명나눔 문화 확산 기대"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9월 16일 뮤지컬 '싯다르타' 제작팀과 '국민건강증진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생명나눔 업무제휴 협약' 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박종우 홍보위원회장, 김면수 싯다르타 대표 프로듀서, 권영희 제작감독, 사기순 홍보이사와 싯다르타역의 배우 곽동현을 비롯한 출연 배우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뮤지컬 '싯다르타' 제작팀은 공연 시 장기기증 희망등록 신청서 비치를 통해 장기기증 홍보활동을 안내하며 생명나눔실천본부를 통하여 희망등록을 했을 경우 공연 관람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싯다르타' 제작팀을 대상으로 장기기증 관련 홍보교육을 실시하며 '싯다르타' 의 공연 및 활동을 홍보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로터스월드 아동센터 졸업여행

9월 3~7일 캄보디아서… 졸업생과 만남도

로터스월드 아동센터를 떠나 진학과 자립을 앞둔 졸업 예정 학생들이 여행을 통해 우정과 추억을 쌓았다.

캄보디아 시엠립 로터스월드 아동센터(이사장 성관)는 9월 3~7일 4박 5일간 중 · 고등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졸업여행을 진행했다.

2010년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졸업여행은 그간 학업에 전념한 아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고자 로터스월드 아동센터에서 매년 진행해온 프로그램이다.

고교 졸업과 함께 대학진학 또는 자립을 앞둔 졸업원생들을 위해 그동안 생활했던 아동센터를 떠나기 전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여정에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도 매년 동참하고 있다.

이번 졸업여행에는 이사장 성관 스님, 원장 선문 스님을 비롯해 고등학교 졸업생 7명, 중학교 졸업생 5명, 한국 봉사자 3명, 직원 6명 등 총 21명이 동참했다.

이사장 성관 스님은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든 사회생활을 시작하든 아동센터에서의 성실함과 협동정신을 생각하며 생활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며 졸업원생들을 격려했다. 신성민 기자

"禪의 정신, 살아 있는 문화공간으로 회향"

Interview

선문화센터 여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10월 2일 선문화교육센터 개관식
시민과 불자 위한 조화로운 공간
방장 지유 스님 '수심결 특별강좌'
"불사 취지 맞게 끝까지 노력 할 것"

"범어사는 선찰대본산입니다. 선의 가르침을 대표하는 불교 중심지입니다. 선문화교육센터는 선(禪)을 설명하고 일반 대중에게 문화로 대기 설법하는 열린 공간이 될 것입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9월 20일 선문화교육센터 건립 의미를 설명하며 "선의 정신이 오롯이 살아 있는 곳"이라며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가 일반 시민을 위한 문화 공간뿐 아니라 불교 전통 문화를 전할 중심지로 우뚝 서 새로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범어사는 선문화교육센터를 선문화관, 선문화교육관, 템플스테이관, 다음관 총 4개동으로 구성했고, 다가오는 10월 2일 오후 4시 30분 선문화교육센터에서 개관식을 진행한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선문화교육센터가 선찰대본산인 범어사 정신을 잇고 부산 시민과 불자 모두에게 회향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했다고 했다.

"범어사는 그동안 많은 행사와 강의를 하려 해도 공간이 부족해 한계가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쉼을 얻기 위해 찾아와도 둘러 앉아 차 한 잔 마실 공간도 없었어요. 선문화교육센터는 불교 강의와 시민 선방 등 수행정진을 위한 공간도 마련했으며 인문학 강의 및 세미나 연수 등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결혼식도 계획하고 있고 차를 마시며 산사에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문화관은 1,472.58㎡(445평) 규모로 1층 대강당에는 세미나, 연수교육, 문화공연뿐만 아니라 결혼식, 전시회 등 각종 행사가 가능하다. 2층은 다용도 문화공간이며 다양한 차를 시음할 수 있는 시설로 구성된다.

선문화교육관은 317.26㎡(398평) 규모로 1층에 불교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강당과 식당으로 구성되며 2층은 시민선방이다.

불교문화의 진수를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관은 499㎡(151평)이며 1층에 대방, 남녀 샤워실 등 편의시설이 있고 2층에는 화장실이 구비된 2인실 방 10개와 대방 등 숙박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총 100명까지 인원을 수용하여 템플스테이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선 스님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의 정신' 이 살아 있는 공간이어야 하며 오직 부처님의 마음, 선(禪)을 전하기 위한 방편임을 강조했다.

한편, 범어사는 선문화교육센터 개관식에 앞서 10월 2일 오후 3시 범어사 대웅전에서 개산 1341주년을 기념하는 개산대재를 봉행한다.

영호남 종립학교 '미래포교' 약속

광주 정광학원, 영천 동곡학원
9월 16일 자매결연…장학금도

영 · 호남 불교 종립학원이 청소년 인재불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광주 정광학원(이사장 덕문, 화엄사 주지)과 경북 영천 동곡학원(이사장 돈관, 은해사 주지)은 지난 16일 정광학원 법당 대승원에서 두 종립학원의 설립이념 실현과 상호 발전을 위해 자매결연을 맺고 템플스테이를 통한 학생교류와 문화, 역사교류, 장학금 지원 등을 약속했다.

돈관 스님은 이날 첫 교류로 전교생과 교직원 1,800명에게 햄버거 공양을 대접하고, 장학금 1,000만원을 정광학원에 전달했다. 이어 화엄사 한주 명궁 스님도 장학금 500만원 기탁했다.

자매결연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돈관 스님은 "광주, 전남을 대표하는 정광학원과 경북을 대표하는 동곡학원이 상호교류를 통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와 역사, 학생들의 학습까지도 서로 이해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곡학원 이사장 돈관 스님이 정광중 · 고교에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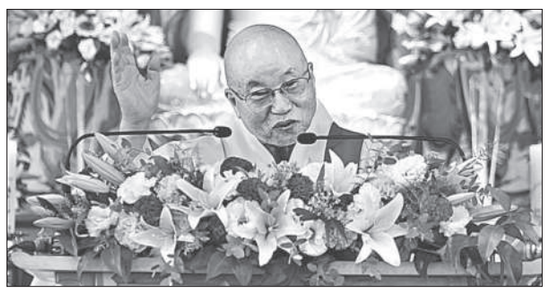
덕문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어린 학생들을 늘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 또한 이런 마음을 위해 많은 불교계 어른들이 장학금과 법인 후원금 등을 많이 기탁해 주고 있다. 저희도 열심히 학교를 운영해서 부처님의 정법이 학교에 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광학원은 1946년 만암 스님의 원력으로 전남 지역 5개 교구본사가 재원을 출연해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정광중학교, 정광고등학교에서 1600여명의 학생이 수학하고 있다.

동곡학원은 일타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지역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2010년 은해사가 영천 선화여고의 운영법인인 영도학원을 인수해 동곡학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는 종립학교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동국대 경주캠, 법산 스님 법회

9월 17일 교내법당서…300명 참석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은 9월 17일 교내 법당에서 2019학년도 2학기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 취임기념 교직원 개강법회를 봉행했다.

교수 · 직원 · 학생 · 신도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이사장 법산 스님은 '구름처럼 살자' 는 법제로 "모든 것은 노력과 추진력에 따라서 달라지며 '상의상존' 으로 우연은 절대 없다"고 설법했다. 신성민 기자

청암봉사協, 광주소년원 위문

9월 9일 원생 점심 후원



(사)청암봉사협의회(회장 지암)는 추석을 맞아 지난 9월 9일 광주소년원을 방문해 소년원생들을 위한 위문활동을 펼쳤다. 소년원생들에게 멘토 · 멘티 활동을 하고 있는 회원들은 이날 원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과 상담을 진행한 후 점심을 후원하는 등 좋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내소사, 나누미근농장학금 기탁

9월 18일 부안군청에 500만원 전달



부안 내소사 진성 스님은 9월 18일 내소사 포교국장 혜공스님, 관음회 불자들과 함께 부안군청을 방문해 나누미근농 장학재단 이사장인 권익현 부안군수에게 지역인재 육성에 사용해 달라며 나누미 근농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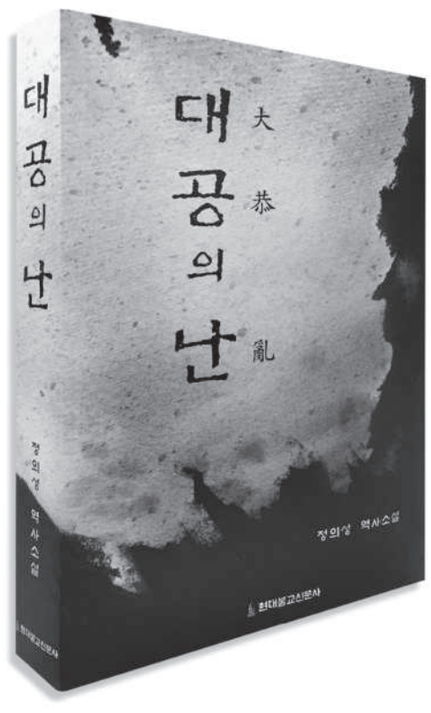
부안나누미근농장학재단은 지난 2011년 설립돼 현재 170억여원을 기금을 바탕으로 연간 약 11억원의 장학금을 지역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61호 | A13 | 전면광고

마음이 생기면 갖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소멸하면 갖가지 법이 소멸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능가경》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	한옥별장
요사채	재실
누각	펜션(육송 목재 사용)
산신각	

원명 010-4300-9104

5층 허공사리탑(7m)

사리부도탑(개별양도)

- 경봉스님 달마
- 임환경스님 병풍10폭
- 일타스님
- 불교유물 20가지
- 다도 무쇠주전자 200여점
- 지장보살 6m 입상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길136 | www.jijangsw.com
지장암 010-8585-4908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책-검색★

①**천기누설운**(運비밀공개)
②**종교의본질**(비교종교)
③**대박재테크운**(運재테크)
④**천기소설예언자**(삶인도)
⑤**기도와명상**(최상수행법)
⑥**자기계발핵심**(성공기술)

위 책이름검색 / 1권 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천도재,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문의 010-5530-2388

허리병 고치는 법 받을분 배울분

저서 |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영통철학

영통철학 1개월 완성 (책임 지도)

1.고승비급 전수
2.동국대 대학원 졸업(석사)

정광 합장

010-3936-2295

양도공고

절일 도와가며
남은 인생 수행하면서
부담없이 같이 사실 분

60세 전후 운전면허 소유 남자

문의 010-8640-0108

도심의 사찰 전세로 한만기 살았으면 합니다.

성도 합장

010-2168-2800

대주스님의 불광기도

☎ 02)963-1148 / 011-741-0867

스님에게만 ? 전수합니다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단원 정통 명리학

- 교육 : 수시접수 | 초급, 중급, 연구(격국)반 접수 | 1년 과정 — 수강료 : 360만원
- 단원 정통 명리학 : 실증철학 정규과정 수강생 접수 — 단원역리학협회 법인 자격증 제도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 학문

지현명리연구원 : 역학전문교육처 志睍 : 韓 基子(恩炅)
명리학 / 작명학 / 육효학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특허)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54-1 3층 웹사이트 cafe.daum.net/3332han cafe.naver.com/3332han

단원역리학협회 010-4470-6314

평행수기법(계곡수 치유)

계곡수(물)로 병든 몸을 치유하는법

❶ 만성피로 면역력이 떨어진 분, 고도비만인 분
❷ 면역력이 떨어져 항암치료를 받지못하는 분
❸ 수족마비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분
❹ 조용한 산사에서 기도 및 휴양이 하고픈 불자
❺ 평행수시 동호인 들은 공덕사로 오시면 안전하게 평행수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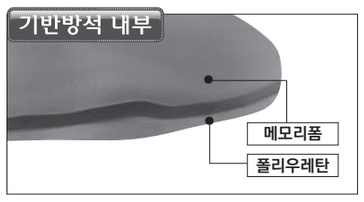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환성로 205 공덕사

010-3549-2270

세계최초 기반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국제 붓다 평화봉사단

국내외 활동 자원 봉사자 환영합니다

지구촌 그늘진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온 여성 불자 봉사단 입단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733-5665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주실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고양시 북한산 사찰

02-353-5016

부산 도심 산에 있는 조그만 암자입니다. 전반적인 도량을 관리하여 주실 보살님을 찾습니다.

010-2168-2800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 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 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의 한 종류로,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 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희담석 108염주 세트 40,800원(무료배송)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계좌 안내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02)2004-8216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 문의 | 02-2004-8216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명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 때 꼭 필요해요.



다보명차 (유기농 야생녹차)

최고의 향, 맛, 빛깔, 효능으로 머리 시원, 몸 따뜻
수행 짱! 아랫배 단전에 기운 모여 손발 따뜻!
우수한 제조 비법 100℃ 물에 차잎 생생~ 떫은 맛 NO!



氣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 힐링베개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 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2019년 9월 25일 수요일 | 불기 2563년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61호 | A14 | 전면광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축생보다 못하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대지도론》에서

삼보사찰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포교원양도

- 위치 : 서초구 양재동 5층 중 3층. 약 40여평
- 월세 : 1백 3십만원(근처 시세 10평 미만 원룸도 6-70만원)
- 내용 : 10년 이상 운영. 건강때문에 양도
- 조건 : 명리 및 작명. 건강 관리 등에 능력있는 분에게는 시설비 및 보증금 없음 ●최상의 위치와 조건

02-571-9197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 171)
- 총 5,830평. 대웅전 1동. 요사채 및 종무소 1동. 극락전 1동
- 특징 : 백병산 중턱의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교통편리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장기 임대 가능
- 가액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주인직접 010-4225-0012(주,야)
02-403-3333 / 031-772-1251

광진불사

◎ 위치 : 서울시
◎ 대지 : 1000평
◎ 법당 : 50평 외
◎ 요사 : 70평
◎ 매가 : 방문시 상담

◎ 위치 : 서울시
◎ 부지 : 1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매가 : 11억 5천만원 정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 신행상담, 사찰순례,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아름다운 절
- 부지 : 산과 대지 등등. 2,650평
- 가액 : 8억5천 ●아주 저렴하게 양도함
- 꼭 필요하실분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010-4357-5386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포교원안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4층 건물 내 2층(45평). 시설 특A급
- 법당 : 칠보 삼존불(석가, 관음, 지장) 천수천안. 신중단. 영단. 수미단 3단
- 소불 : 550불. 법당, 요사, 공양간, 창고
- 촛대, 향로, 불기, 다기(전체 방자) 등 320개
- 보증금 1,000만원 / 월 35만원
- 시설비 : 4,000만원

010-8424-0042

절터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5번지 / 836번지
- 836번지 : 약 300평, 835번지 : 임야 약 130평, 총 430평
- 암자 지어서 수행 하실 분 (깨끗한 약수샘물 나옴)
- 사정 상 급양도 3700만원

010-6431-0408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219-1
- 대웅전 23평 목조. 산신각 8평 목조
- 요사채 60평 2층. 조립식 방사 15평
- 하천부지 약 40평. 총 1680평
- 가액 : 6억

010-8697-8568
010-9044-7347

사찰안내

- 위치 : 창원역 15분. 마금산 온천 5분 거리. 신도시 개발지 인접 ●대웅전(단청완료). 삼성각. 주지상담실(황토방). 요사채. 공양간. 대형 저온창고 대형창고 2개. 차고. 주차장 500평 ●총면적 : 6,200평 ●사찰 총 불사비용 35억 투자함 ●가액 : 16억(대출금 5억 포함) ●계약 시 5억 주시면 등기부등본 넘겨줌. 나머지 6억은 10년간 연차적으로 불사금으로 완납 가능 ●신도시 개발로 4차선 공사 착공. 사찰연결

010-9647-072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울산시 중구 다운동 3층 건물 중 2층
- 방2칸. 35평. 칠보 삼존불(지장,아미타,관음) 신중
- 산신. 칠성. 영단. 소불 50불. 인등. 시설 완벽함
- 아파트 단지 내 시장 5분거리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집기일체 1500만원
- 보증금 1천 / 월 40만원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망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주십시오

052-222-6888
010-7612-898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 대지 약 80평. 임야 150평
- 2층 건물
- 1층 요사채. 방2. 거실. 공양간 / 2층 법당
- 부속건물 : 산신각. 조립식 건물(서재. 창고)
- 가액 : 1억 9천(대출 6천)

010-4824-7534

사찰안내

- 위치 : 경기 파주 지역
- 대지 : 90평
- 건평1층. 70평 중 45평. 황토방 편백나무
- 2층 30평. 법당
- 주차편리. 교통편리. 최상시설
- 용도 : 포교. 교육. 사찰. 명상. 쉼터
- 가액 : 4억 7천만원

010-4012-5500

서울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암사역 1번 출구 도보 1분 거리
- 37평. 2층 법당. 종무소. 방1. 공양간. 차실. 남여 화장실. 주차타워
- 보증금 3000 / 월 80만원
- 시설투자 : 5000 중 1700만원(협의가능)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010-3061-4402

사찰안내

- 위치 : 거제시 중심부
- 대지 : 2103㎡
- 법당 / 요사 : 329.4㎡
- 창고 / 기타 : 약 25평
- 대형 불상 및 석등, 조형물 다수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 좋음
- 가액 : 6억 9천

011-9143-0098

토굴구함

- 정업수행에 적합한 산 속 토굴을 구합니다.
- 임대. 전세. 양도 가능

010-7678-553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주시 시래동. 정남향
- 대지 194평. 건평 43평
- 법당. 칠성. 산신. 용왕. 나반. 방친견실. 공양간. 샤워실. 화장실
- 외부시설 : 용왕연못. 탑. 남여화장실 등
- 시설일체. 최고입지요건 갖춘 암자
- 가액 : 2억 3천만원(급양도)
- 사전 전화요망

010-5427-3699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동길 121-18번지 외
- 한옥 및 대지 매매(지리산 청학동, 단성IC 40분 거리)
- 한옥건평 : 155평, 대지 1,180평 (주위 전, 임야 부지 있음)
- 가액 : 17억 5천(4개동, 분할 매각 가능)

010-3835-7137

토굴(급)안내

- 위치 : 경남 산청(황토벽돌 전원주택)
- 총 412.6평 중 대지 200평(답·도로)
- 방2. 거실. 욕실. 주방. 창고
- 20평 허가되어 있어 건축 가능
- 유실수 100여주 심어져 있음
- 1000여평 국유지 사용가 (현재 텃밭으로 사용 중)
- 가액 : 2억 4천

010-9411-5302

토굴(급)안내

- 위치 : 부산금정구 지하철2분,버스2분 거리
- 골프장옆, 법당.요사.주방50평, 산신각3평
- 대형마트 은행 병원 시장 전부 다 있음
- 오르막 없는 평지에 주차 공간 넉넉함
- 전월세 가능(보3천/월35만, 시설비無)
- 인연 닿는 스님께서 먼저 전월세로 살아 보신 후 양도도 가능 합니다.

010-7121-3030
010-3574-3303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옥구읍
- 대지 400평 (주차장 100평)
- 법당 20평
- 요사 2동. 30평. 심야보일러
- 마당에 지장보살 입상
- 가액 : 2억

010-3671-5366

별장최적지

- 산자 수려한 계룡산자락 멋진 집2채
- 세종시, 유성구, 공주 모두 20분 거리
- 위치 : 공주시 반포면 하신소1길 56, 58
- 대지 : 200평, 건평 : 약50평
- 1억에 전세 놓습니다.(양도도 가능합니다)

010-4233-3459

보물급(불감)매도

- 30년전(일천만원)에 겨우 매입한 것
- 다급한 사정(파격가격)으로 양도하겠습니다. ● 불교조각장인이 2년에 걸쳐 기도와 심혈로 제작 ● 원통나무 지름 12*높이 25㎝를 절개하여 작은절 법당 ● 전부(3존불)사천왕까지 안으로 파고드는 기법으로 조각
- 소지하고 다니는 소유 수호불 법당, 보물급(불감) ● 유사 외 국산(조각품)과는 비교 할 수 없음

전국불교(사찰관계거래)전문업소임(공신공인중개사)

010-3382-0555

아름다운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소재
- 전원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정자(3m*5m) 원목 산사음악회 무대
- 총대지 300평 (정원조성 잘되어 있음)
- 진주 합천 중간지점(각20분 소요)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벽면)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언제등 양도가능

스님 직통 010-2607-7114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오천
- 2층 상가 60평. 거주가능
- 삼존불. 탱화. 시설완비
- 다량 주차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천 / 월세 2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2857-2811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 대지 : 약 100평
- 건물 : 법당 30평. 스님방. 주방. 화장실 있음
- 산신각 : 3평(용왕당 별도 있음)
- 가액 : 6억 5천
- 대출 : 1억 7천

010-9042-7799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포교원(급)안내

- 위치: 서울 강북 수유역 5분(주변 재래시장)
- 64평(층전체). 도심 포교 최고입지(재기도 많음)
- 3000만원/월150만(주변 시세보다 저렴)
- 시설비 4천 9백 소요(급 지방 이전으로 먼저 계약 하신 분께 5백만에 무조건 양도)
- 도봉산, 삼각산 조망권 최고
- 주차 및 시설 완벽. 직접 오셔서 확인하세요.

02-6053-9797

사찰안내 및 임대

- 위치: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183-1 ● 1층 접견실 및 요사채. 주방 ● 2층 법당 및 스님 침소 ● 옥상 해수관음상. 태양광 전기판 설치 ● 대지 200평. 건평 70평 ● 비구니 스님 적격. 바다 50m. 조망권 최상 ● 가액 : 3억 8천만원 ● 임대 : 보증금 7천 / 월 20만원(여건시 인수 가능)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집기일체. 시설최강)

주인 054-482-6600
총무 010-7441-2345

전원주택/사찰

-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지방도로 변
- 거창읍에서 6분 거리. 정남향 집 뒤 북쪽 소나무산
- 총 1200평 중 대지 329평 전 489평. 기타토지
- 주택건물 35평(황토방1) 창고 57평(황토방1)
- 암반우물1. 자연우물1. 소나무 정원
- 가액 : 3억 8000만원

010-3848-2452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종무소. 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 / 2층 공양간 / 3 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사찰안내

- 위치 : 경기 북부 (광릉수목원 인근)
- 남양주, 의정부, 포천시 중앙
- 종교용지 240평+임야760평(합1천평)
- 법당24평1동 + 요사채46평(2층)1동. 조적조, 철골구조 (리모델링 필요함)
- 가액 4억(시세 6억5천)
- 접근성 아주 좋아 포교하기 좋은 곳
- 부재시 문자주세요

010-3305-4559

사찰(인법당)

- 위치 : 부산 동래 금정마을(17년 운영)
- 대지 : 약 66평. 건 32평. 슬라브(반지하방 3평. 다락 3평)
- 법당 27평. 방3 별도 외 약사불입상 5층석탑
- 마당 전체 약 30평. 종무실. 공양간 가건물
- 가액 : 3억 9천(대출 1억 5백 포함)

주지 010-3842-6123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신용동 (파계사 근교)
- 건물(2층)60평
- 삼존불
- 사정에 의하여 급매
- 가액 : 2억3천만원

010-3179-7568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교통요지. 지하철/버스 2분 거리
- 대도로 변 3층 건물 3층. 약 50평
- 옥상 사용 가능. 주변 주차시설 양호
- 보증금 500 / 월 45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0-4514-0384

암자안내

- 위치 : 상주시 일원
- 대지 : 약 오백평
- 법당 약 27평
- 요사채 25평

010-5152-1222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
- 대지 : 360평 ●사용 가능 부지는 약 500평(하천 부지 포함)
- 법당. 삼성각. 약사여래. 3층 탑. 석탑 요사채 2개. 창고 3개. 주차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3억 8천만원

010-4583-4895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봉곡동 상가 2층
- 약 80평. 법당 완비
- 보증금 250만원 / 월 40만원
- 시설비 4천만원

055-238-6772
010-9422-1233

포교원안내

- 위치 : 영등포 신길역(1/5호선) 5분거리(시장 인접)
- 3층 건물 중 2층. 40평
- 상담실(대방). 스님방. 법당(17평. 시설완벽)
- 오래된 포교당. 스님 건강 상 양도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 70만원
- 시설비 : 1500만원

02-848-1774
010-3167-1774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2004-8216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World Buddhist Sangha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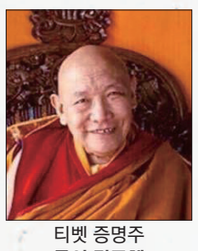
룸비니불교협회 회장
반테 비베카난다

부처님께서 탄생! 성도! 열반! 하신 이후 불교 역사상 최초로 부처님 탄생하신 룸비니! 성도하신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世界佛敎初代敎皇을 모시는 역사적인 戴冠式(대관식) 대법전에 한국불교 불자님을 초대합니다.

세계불교승가연합회에서는 세계불교국가를 대표하는 고승들과 불자님들을 초빙하여 世界佛敎初代敎皇 戴冠式(대관식)을 부처님탄생지 룸비니동산 성지에서 장엄한 의식으로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대법전에 백천만겁 만나기 어려운 소중하고 희유한 법연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불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합니다.

– 룸비니불교협회 회장 **반테 비베카난다** 합장 –



티벳 증명주
툴시 린포체



네팔
잠양왕포 린포체



미얀마
마하스타비르 스님



스리랑카
구나라다테로 스님



한국 봉행위원
동담스님



한국 의전담당
민해스님



세계불교승가연합회
이사장 **아쇼타파**



네팔 사무총장
레칼리



룸비니 각국 대표단

증명법주 달라이라마 스승 툴시양첸린포체(티벳) | 영공도성대선사(한국) | 반테비베카난다(룸비니불교협회회장), 깔상린포체라마(티벳까규 최고 지도자) | 잠양왕포 툴구린포체라마(티벳링마최고지도자) | 두룹첸린포체(티벳사꺄 최고지도자) | 도와쿤두라마(네팔불교 회장) | 누룹라마(쇼엠부불교회장) | 쥰두라마(솔룩훔부불교회장) | 각국 대표 고승 초청

초청 참가 예정국 중국불교대표, 티벳불교대표, 네팔불교대표, 싱가폴불교대표, 베트남불교대표, 미얀마불교대표, 라오스불교대표, 캄보디아불교대표, 태국불교대표, 일본불교대표, 말레이시아불교대표, 부탄불교대표, 스리랑카불교대표, 오스트리아불교대표, 카나다불교대표, 독일불교대표, 프랑스불교대표, 한국불교대표

봉행위원 용진스님 | 보운스님 진광스님 | 선타법사 아공법사 | 용진법사

행사개요

世界佛敎敎皇推戴 戴冠式

- 세계각국 대표고승 33명 추천서 공포
- 대승정추대(자격 : 종사품계 수지한 스님)

일시 불기 2563년 12월 3일 화요일 오후 4시

장소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동산 보리수나무 아래

동참인원 세계각국고승 100명, 네팔고승 200명, 티벳고승 100명, 한국고승 50명, 각국불자 3,000명, 한국불자 100명

| 주최 | 세계불교승가연합회 **| 주관 |** 룸비니불교연합회 **| 후원 |** 네팔관광부, 룸비니개발위원회, 룸비니불교협회, 룸비니시, 티벳불교승가회, 카투만두불교협회, 세계불교승가재단, 네팔불교 TV방송, SBC서울불교방송, 불영TV, 현대불교신문사

룸비니 성지 연등만등불사

- 1년동안 솔라이트(태양광) 소원성취 연등
- 1인 소원성취 연등 10만명(불명을 넣어 등을 밝힘)
- 신청자는 연등 신청서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기재 바람
- 연등 접수 마감일 10월 15일

룸비니 평화대상 수여자

- 1차 신청 접수 마감일 : **불기 2563년 10월 15일**
- 2차 신청 접수 마감일 : **불기 2563년 10월 30일**

행사 및 순례 일정

4박 6일 | 1인당 187만원(네팔 비자 포함)

12월 2일(월)	오전 11:00 | 인천국제공항 3층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A카운터 앞 집결 오후 01:30 | 출발(4박 6일 일정)
12월 3일(화)	룸비니순례 및 대관식 법회(저녁만찬)
12월 4일(수)	룸비니동산 산내 각국 사찰순례
12월 5일(목)	포카라 히말라야 일출 / 툴시 린포체 친견
12월 6일(금)	카트만두 보우다나트 순례
12월 7일(토)	인천공항 도착

※ 참가하시는 모든 스님들께 대관식 기념품을 공양드립니다.

※ 국위선양을 위하여 한국 보살님들은 한복을 지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접수처

㈜로얄관광여행사 (대표 정제식)

대구시 중구 동안동 1가 234-5번지

TEL 051)425-1115
FAX 053)421-5352
핸드폰 010-2998-7323

우리은행
1005-003-792148
예금주 : ㈜로얄여행사

세계불교승가연합회
World Buddhist Sangha Association
Address. Subidha Magar 32, Beneshwor, Nepal | www.wbsanepal.org
email. worldbuddhistassociation@gmail.com | **fax.** 01-553-2963 / 9851143584

한국담당
민해스님 010-8364-8899 | **보운스님** 010-3522-3250 | **홍보국장** 010-6701-7709
email. buddhasangha@naver.com | **fax.** 053)325-4848

왜 마음챙김 명상인가?

존 카밧진

〈1〉 수행, 수행, 수행

삶 자체가 당신의 명상 안내자



무언가에 도달하기 위함 아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행
서 있든 누워 있든 가능하기에
명상 할 수 없는 경우는 드물어

수행은 리허설이 아니다

우리는 마음챙김을 연마한다는 뜻으로 흔히 '수행' 이란 말을 쓰는데, 이때의 수행은 점점 더 나아져 최대한 좋은 성과를 올리거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반복해서 하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연습을 뜻하는 건 아니다.

마음챙김 수행이란 우리가 매 순간을 존재하는 일에 온전히 전념하는 것이다. '성과' 같은 건 없다. 그저 이 순간만 있을 뿐. 뭔가 더 나아지려 애쓴다거나 다른 어딘가에 도달하려 애쓰지 않는다. 심지어 특별한 통찰력이나 비전을 추구하려 하지도 않는다. 또한 떠밀리듯 억지로 뭔가를 판단하려 하지도 않고 마음을 진정시키거나 긴장을 풀려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자의식을 키우려 하지도, 지나친 자기몰두에 빠지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침착하고 진지하고 차분한 상태를 추구하면서, 온전한 알아차림 속에 우리 자신이 현재 순간과 연결되게 하려 애쓰는 것이다.

물론 지속적인 수행과 확고하면서도 조용한 노력을 통해 평정과 마음챙김과 침착함이 절로 개발되고 깊어지는데, 그러기 위해 우리는 평온함 속에 머물며 반응도 하지 않고 판단도 하지 않으며 관찰만 해야 한다. 그 결과 깨달음과 통찰력이 생기며, 평온함과 기쁨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 수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게 덜 경험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는 건 옳지 않다.

마음챙김의 핵심은 마음챙김 그 자체를 위해 수행하는 것이며, 즐겁든 불쾌하든 좋든 나쁘든 또는 추하든 각 순간을 다가오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다음 각 순간은 지금 존재하는 것이니 그 순간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런 자세를 취할 경우, 삶 그 자체가 수행이 된다. 따라서 수행을 한다고 말하기보다는, 수행이 당신에게 영향을 준다거나 아니면 삶 그자체가 당신의 명상 스승이자 안내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른다.

명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가

나는 이 질문을 참 많이 받는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다 명상을 할 수 있어도 자신은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다. 그들은 명상을 할 수 없는 게 자신만이 아니라는 말로 위안을 얻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잘은 모르지만 불운하게도 애초부터 명상을 하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적어도 조금은 있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명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숨을 쉴 수 없다거나 집중을 할 수 없다거나 긴장을 풀고 편히 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조금 비슷하다. 거의 모든 사람이 숨쉬기는 쉽게 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라면 거의 모든 사람이 집중을 하고, 거의 모든 사람이 긴장을 풀고 편히 쉰다.

사람들은 종종 명상을 자신이 도달해야 하거나 느껴야 하는 다른 특별한 상태나 휴식과 혼동한다. 그래서 한두 차례 시도하고도 아무데도 도달하지 못하거나 뭔가 특별한 걸 느끼지 못할 경우, 자신이 명상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중 하나라고 생각해 버린다.

그러나 명상은 특정 방식으로 뭔가를 느끼는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당신이 느끼는 그대로 느끼는 일이다. 또한 평온함은 명상 중에 더 깊어지고 체계적으로 연마할 수도 있지만, 명상은 마음을 비우거나 평온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명상은 그 무엇보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일이며, 또 마음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일이다. 절대 다른 어딘가에 도달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존재하는 곳에 그대로 있게 내버려두는 일인 것이다. 만일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 스스로 태어날 때부터 명상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건 명상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명상은 계속 수행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과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명상을 못하겠어"보다는 "명상을 계속하지 않겠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말일 것이다. 누구나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자신의 호흡을 지켜보거나 자신의 마음을 지켜볼 수 있다. 게다가 꼭 앉아서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명상은 걷거나 서 있거나 누워서 또는 한 다리로 서 있거나 달리면서 또는 목욕을 하면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단 5분간이라도 명상을 하려면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명상을 삶의 일부로 만들려면 약간의 훈련도 필요하다. 따라서 사람들이 명상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 명상할 시간을 따로 내지 않을 거라거나 아니면 명상을 시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명상 결과가 자신이 찾거나 바라는 것과 다르며, 자신의 기대에도 차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 다시 시도해야 할 것이며, 이번에는 아예 기대를 접고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할 것이다.

무위를 행하기

무위는 게어르거나 수동적인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아니, 그 정반대이다. 가만히 있을 때든 어떤 행위를 할 때든, 무위를 연마하려면 큰 용기와 에너지가 필요하다. 또한 무위를 행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는 것도, 살아가며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계속 무위를 행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늘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입장에서 무위가 겁먹을 만한 일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위를 행함으로써 오히려 일을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잘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된다. 무위란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둬 제 나름대로 펼쳐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건 우아하고 지혜롭고 힘들지 않은 노력이며, 평생 연마해야 하는 '행위자 없는 행위' 이다.

노력이 필요 없는 행위는 춤이나 스포츠에서 최고 수준의 성과를 올리는 순간들에 일어난다. 그리고 그런 순간에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쳐다보게 된다. 그러나 노력이 필요 없는 행위는 페인트칠에서부터 자동차 수리, 육아에 이르는 모든 인간 활동의 영역에서도 일어난다. 때론 수년간의 수행과 경험이 합쳐져, 모든 행위가 기술을 뛰어넘고 노력을 뛰어넘고 생각을 뛰어넘어 행해지는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행위는 예술과 존재의 발현이 되며, 모든 걸 손에서 놓는 경지, 즉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경지의 발현이 된다. 우리는 스포츠나 예술 분야에서의 가장 뛰어난 기예를 보고 스릴을 느끼는데, 그건 마법처럼 멋진 숙달의 순간에 동참하면서 잠시라도 더없이 행복해지기 때문이다. 아니면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우아하고 조화로운 순간들을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기 때문일 것이다.

소로는 이렇게 말했다. "하루하루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예술이다." 이 말을 마사 그레이엄은 춤의 기술에 대해 얘기하며 이렇게 풀었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움직이는 지금 이 순간뿐이다. 순간을 살 가치가 있는 생생한 것으로 만들어라. 순간들이 사용되지도 못한 채 무심히 지나가게 하지 말라."

그 어떤 명상의 대가도 이보다 더 가슴에 와 닿는 말을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무위가 평생 계속해야 할 일임을 너무도 잘 알고,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늘 뭔가를 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 무위를 연마하는 일이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기꺼이 무위를 연마하는 견습생이 될 수 있다.

명상은 무위의 수행과 같은 말이다. 우리는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거나 또는 완벽하게 하기 위해 수행하는 건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모든 게 이미 완벽하며, 있는 그대로가 완벽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우리 자신에게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 수행을 한다. 이는 다음 순간으로 이어지는 현재 순간의 순수하고 신선한 잠재력을 인지하면서, 아무것도 보태지 않은 현재 순간 그대로를 온전히 유지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런 다음 사물을 제대로 알고 최대한 명확히 보면서, 우리가 실제 아는 것 이상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걸 인식하며, 행동하고 시도하고 입장을 취하고 기회를 잡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흐름이라고 한다. 한 순간이 별 노력도 없이 자연스레 다음 순간으로 흘러가 마음챙김이라는 강바닥 안에 자리 잡는다는 것이다.

하루를 보내면서 매 순간에, 그러니까 평범한 순간, 그저 그런 순간, 심지어 힘겨운 순간에 현재 순간이 꽃처럼 피어나는 걸 볼 수 있나 살펴보라.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억지로 일이 일어나게 한다거나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당신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일 없이, 당신의 삶에서 보다 많은 일들이 자연스레 펼쳐지도록 하라. 문혜군의 요리사처럼 당신이 아무 노력 없이 자연스레 움직일 수 있는 '공간들' 을 감지할 수 있는지 보라.

이른 아침 잠시 다른 목적 없이 그저 존재를 위한 시간을 낼 수 있다면, 그게 당신의 남은 하루 시간의 질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라. 이처럼 당신 자신의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걸 확인할 때, 하루 종일 마음챙김 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지, 또 그 결과 꽃처럼 피어나는 매 순간을 더 잘 느끼고 이해하며 적절히 반응할 수 있게 되지 않는지 보라.

이 글은 존 카밧진의 〈왜 마음챙김 명상인가?〉 (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대행 스님

이 마음의 도리를 알기 위해서는 모든것을 나오는데다 되놔라

부산의 대덕 스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더불어 신도님들과 한자리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이 서툴러서 실례가 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시대는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중용을 하고 돌아가야만이 자유를 느끼며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물질계의 50%만 가지고 산다면 얼마나 걸림이 많은지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의 진의를 완전히 터득해서 알아야만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 가르친다는 건 아닙니다. 나는 심부름만 할 뿐이지 내가 말하는 것도 없고 내가 하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저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불교(佛敎)가 머리 깎고 먹물옷 입고 목탁치고 염불하는 것만을 일컫는 게 아닙니다.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이 불(佛)이요, 일체 만물만생이 서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고 또는 뜻과 뜻으로 통하고 말과 말로 통하고, 이렇게 서로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가는 자체를 교(敎)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교는 진리인 것이지요. 동맥과 정맥이 돌아가듯 끊어지지 않고 돌아가는 이 진리가 불교입니다. 우리가 가톨릭교나 기독교나 어떠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해서 불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곤충 한 마리의 생명도 불(佛)이요, 풀 한 포기의 생명도 불입니다.

우리가 다 죽는다 하더라도 불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우리가 다 죽는다 하더라도 불교가 끊어지지 않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음의 근본이 삼천대천세계의 근본과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니라고 하는 까닭은 직결이 됐다는 얘깁니다. 우주의 근본에 직결이 돼 있고, 이 세상만사가 돌아가는 법에 의해서 바로 우리들 마음에 가설이 돼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돌아가고, 즉 말하자면 우리가 공생(共生)이며 공심(共心)이며 공체(共體)며 공용(共用)이며 공식화(共食化)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치도 에누리 없는 아주 정확한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벌어지는 겁니다. 얼른 쉽게 말해서 여러분 각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상대가 없을 것이고 상대가 없다면 세상이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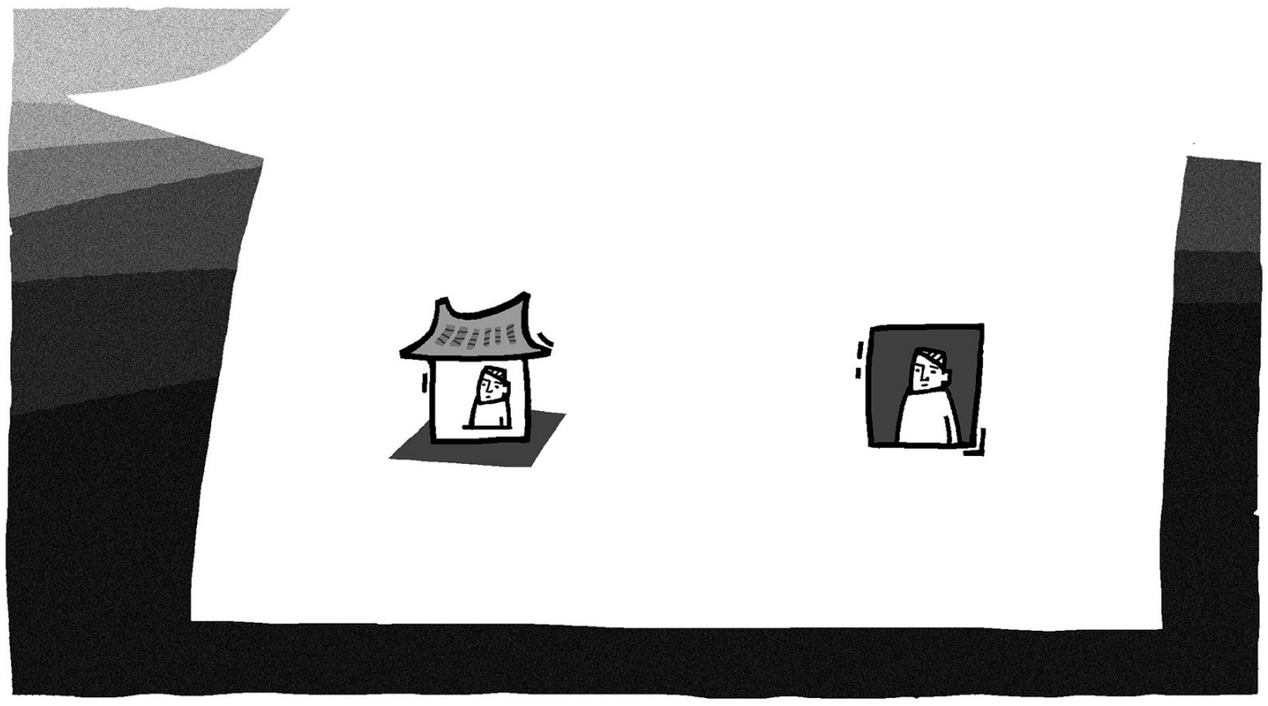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이런 옛날 얘기가 있지요. 소가 가다가 언덕을 보고서 비비니까 언덕이 하는 소리가 "허허! 언덕이라는 내가 있기 때문에 소가 나한테 와서 비비는구나!" 했답니다. 그래서 소의 탓을 하지 않았더랍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는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것이지 내가 없다면 상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부터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오계향(五戒香)이, 다섯 가지 계향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 계향(戒香) 할 때, 모든 것을 잘못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마음과 육체가 따로따로 흩어지는 겁니다. 물질세계에서 겉으로만 계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고, 모두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내 마음으로써 채찍을 삼고 모든 권속들하고도, 사형사제들하고도 부드러운 말과 부드러운 행동으로 모든 것을 해 간다면, 그리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내 몸같이 생각한다면 마음의 계향이 되어 스스로 지킬 수 있게끔 마음의 자세가 슬기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나 아닌 나로부터 가야지 나를 세우고 내가 했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가 한다고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나를 빼지 않는다면 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몸뚱이가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서 있는 것입니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지수화풍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수화풍으로 뭉쳐졌고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또 지수화풍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충만히 주어져 있습니다. 나쁜 마음과 좋은 마음이 한군데서 나오는데 바로 좋은 마음으로 바꿔 쓸 수만 있다면,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광력도 전력도 자력도 통신력도 충만하고 자유스럽게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마음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없으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 자체가 업식이 돼서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그림자처럼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돌아서 미래를 향해서 현재로 다시 왔습니다. 다시 왔는데,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악업 선업이 그 자동적인 컴퓨터에 입력이 된 겁니다.

지금 세상에는 컴퓨터를 사람들이 입력을 해서 쓰지마는 우리에게는 바로 오신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의 속을 아는 것이며,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듯이 참으로 알 수 있는 것이며,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것이며, 심안으로 보는 것이며, 마음의 귀로 듣는 것이며, 자기가 어디서 온 것인가를 아는 것,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를 다 한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 했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숙명통과 더불어 다섯 가지가 한데 합쳐져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력이 돼 가지고 현실에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마음의 도리를 모른다면 독 안에 들어도 면치 못한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입력이 된 데다 다시 놓지를 않아서 다시 입력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나오는 대로, 나오는 데다가 우리가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면서 새 입력이 들어간 대로 새로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력된 것이 현실로 나오는 데다 되놓지 않는다면, 즉 말하자면 유전성, 세균성, 업보성, 영계성 이 모두를 아마 면치 못할 겁니다. 거기에 얽매이고 얽매여서 팔자니 운명이니 하는 그 모든 고의 테두리에서, 또는 업의 무명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명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자기가 팔자 운명도 마음대로 못할 것이요, 또는 세균성이 와도, 영계성이 와도, 업보성이 와도, 유전성이 와도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도리를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나온 데다가 되놔라. 나온 데다가 믿고 맡겨 놓을 수 있다면 바로 구정물을 새 물로 바꿔 쓰는 거와 같다 이 소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광대무변하면서도 그렇게 엉뚱하게 전락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악업 선업이 과거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과거가 현실이고 미래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각자 몸뚱이 속에 악업 선업이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나올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혼합이 돼서 그림자처럼 따라갑니다. 즉 말하자면 자기를 자기가 형성시키고 싶어서 어느 부부의 정자 난자를, 몸을 빌립니다. 모두가, 각자 자기를 그렇게 형성을 시켜서 바로 자기 모습을 앞장세워 이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집을 짓고 그 안에 자기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살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자기의 영원한 근본이자 바로 불성이자 뿌리인 것입니다. 나무뿌리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나무뿌리가 있는 것을 아는데 나무는 자기 뿌리가 흙에 덮여 있기 때문에 못 봅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도 자기 뿌리를 자기가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상대를 놓고 기도하고 빌고 온통 야단법석이니 그렇게 해서는 자유스럽게 마음을 발전시키면서 창조력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또 정신계와 물질계를 혼합시켜서 같이 중용을 할 수 있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길을 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나무 살자고 남의 뿌리에다가 아무리 기도를 해 봤던들 그게 성립이 될 것 같습니까? 남의 나무를 쳐다보고 남의 나무뿌리를 쳐다보고 내 나무를 키워 달라고 아무리 빌어 봤던들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A18면으로 계속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모든 것을 '나'를 빼지 않는다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 A17면에서 계속

자기 뿌리부터 보십시오. 자기 뿌리부터 믿으십시오. 자기 뿌리부터 믿고 모든 것을 거기에서 이끌어 가는 줄 아십시오. 차가 가려면 운전수가 있어야 하듯이 말입니다. 운전수가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넣고 고장이 나면 고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전수는 바로 양면을 다 움켜잡고 차를 몰고 조심스럽게 다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도 바로 육신과 영원한 근본인 뿌리와, 즉 말하자면 생명의 근본 뿌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음을 내는 법, 이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시공을 초월해서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지금 화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살림살이가 바로 자기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걸음을 걸어올 때나 일을 할 때나 고정되게 일하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고정되게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없고, 먹는 것도 없고 모든 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정된 것이 하나도 없이 찰나찰나 화해서 나투면서 바뀌면서 이렇게 영원히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란 그렇게 엄청나고 광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딴 종교에서는 마귀 소굴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학술적인 이론만 가지고 한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눈감고 앉아서 그냥 귀신 놀음 한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눈을 감으나 뜨나 서나 앉으나 모든 게 참선 아닌 게 없습니다. 이 부처님 법에는 앉아 있으나 서 있으나, 눈을 감았으나 떴으나, 똥을 눌 때나 먹을 때나 모두가 참선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이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몸 안에 수천수만의 생명들과 의식들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을 거쳐 오면서, 쫓고 쫓기면서 진화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봅니다. 지수화풍도 한데 합쳐지기 이전에는 암흑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합쳐지니까, 화목하게 합쳐지니까 밝은 세상이 왔다고 봅니다. 밝은 세상이 오고 생명체들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거를 못 믿겠거든 우리의 몸속을 한번 보십시오. 증명이 되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생명들이 그렇게 진화돼서 쫓고 쫓기면서 수많은 모습으로 나투어 가면서 바뀌어 가면서 이렇게 인간까지 왔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유자재권을 가지고 자유스럽게 살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는 중생들이 돼서야 어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여러분은 만날 각자 '내가 살고, 내가 줬고, 내가 잘하고' 이러고 있는데 '나'라는 존재는 하나도 내세울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몸뚱이는 육신 속에 있는 생명체들의, 즉 자생 중생들의 집합소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부름꾼이요, 관리인입니다. 이 몸뚱이는 바로 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께서도 또 사대 성인들께서도, 많은 조사들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얘, 배를 타고 저 강을 건너가는데 중생들이 배 안에 잔뜩 탔으니 선장이 노를 똑바로 잘 저어서 나가야만이 그 강을 건널 수 있느니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문수보살이 유마힐 거사한테 병문안을 왔을 때 유마힐 거사가 "중생들이 다 나아야 내 몸이 낫겠노라." 한 뜻을 여러분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여러분 몸 안의 자생 중생들이 병이 나아야 여러분 몸이 건강하죠? 외부의 중생들을 다 건진다는 게 아니라 내 중생들을, 내 몸속의 중생들 병이 다 나아야 내 몸이 건강하다는 얘깁니다. 내 자생 중생부터 제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는 일체제불의 마음이 평등공법 봉에 모두가 한자리를 하고 있어서 바로 거기에 직결돼 있고 한도량에서 분배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력이나 금속이 어디든지 쓰이지 않는 데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그 도리를 안다면 일체제불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각자 마음을 통해서 바로 몸속의 모든 생명체들이 천백억의 보살로 화해서, 바로 천차만별의 응신으로 나투면서 천차만별의 중생들한테 자동적으로 조건 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천백억이라면 바로 숫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서 묻지 마세요. 부처님이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없으면 부처도 없고 부처가 없으면 여러분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가는 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자생 중생들을 제도를 하려면, 거기서 악업도 나오고 선업도 나오고 잘못하는 일도 나오고 강도짓도 나오고 선행도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작용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마음 속에서만이 해결을 할 수 있다.' 하고 믿고 거기다가 다 놔야만 합니다. 병에 걸려도 '너만이 네 몸을 건강하게 해서 끌고 갈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몸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몸뚱이 속에서는 내면의 모두가 작용을 해 줍니다.

즉 말하자면 인간이 '내 뿌리인 바로 내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다.' 하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마음으로부터 대뇌를 통해서 소뇌를 통해서 중뇌에서 결정을 지어서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사대로 통신이 되면 사대에서 통신을 받고 다 작용을 해 줍니다. 안에서는 그렇게 작용을 해 주고 또 바깥으로는 세포의 생명들이 화해서, 이 지구에서 레이더망으로 역할을 하는 거와 같이 혹성과 같은 내 몸의 모든 세포에서 작용을 해 줍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의식들이 전부 나가서 마음을 조정하고, 들고 남이 없이 들고 나면서 내 가정을 조절하고 또 사회를 잘 조절합니다.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는 소임을 맡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포입니다. 이 세포가 바깥에서 세균성이 들어오는 것도 막습니다. 이것도 내 마음에서 벌써 입력을 해 놔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내면으로다 입력이 항상 돼야 되는데, 1년을 해 놓든지 2년을 해 놓든지 그건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는 세균성을 막고, 또 들일 건 들이고 내보낼 건 내보내고 체로 치는 역할을 합니다. 통신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잘 파악해서 들이고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통신하고 조달을 하는 것이 이 세포의 모든 소임이라고 봅니다.

> **우리는 한 치도 에누리 없는**
> **아주 정확한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데**
>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음 도리에서 '하나'를 안다면 '하나'로 돌아가는 걸 알고, '하나'로 돌아가는 걸 안다면 바로 너 나 없이 전체가 같이 돌아간다는 걸 알 겁니다. 이 내면으로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이 아닐까요? 여러분 한 몸뚱이 속에 수많은 생명들이 들어 있는데 내가 밥 한 그릇을 먹는다면 혼자 먹는 것입니까, 그게? 혼자 듣는 것입니까? 혼자 보는 것입니까? 혼자 하는 것입니까? 혼자 사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혼자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했단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몸뚱이 속에 그 많은 생명의 의식들이 바로 더불어 나인 고로 내가 혼자라는 걸 세울 게 하나도 없다 이 소립니다. 그런 데다가 외부적으로도 나를 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만사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내 스승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생명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몸 아닌 게 하나도 없으니 어찌 내가 했다고 하며 내가 잘한다고 하며 내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니라. 내가 한 말이 하나도 없고 내가 생각한 것조차도 없느니라. 나의 고깃덩어리를 믿지 마라. 나를 따르되 나를 믿지 말고, 너부터 믿어서 너부터 알면 바로 과거의 부(父)를 현재의 자(子)가 상봉케 되느니라. 상봉케 된다면 바로 너를 지도할 수 있는 자성 부처가 바로 너를 이끌어 갈 수 있으며, 바로 서로서로의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되면서 점검을 하면서 일체 모든 만물을 보고 깨달을 수 있고, 병풍 둘러치듯 둘러친 이 세상이 팔만대장경에 속하느니라. 너만 못한 게 하나도 없으며 너만큼 또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느니라." 하셨던 겁니다.

이 모두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 자체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부딪친다는 것을 알고 상대를 탓하지 말고 상대를 원망하지 말고 상대를 증오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마음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고 '저 사람의 주인공이나 내 주인공이나, 저 사람의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둘이 아니니 바로 내가 나왔기 때문에 나한테 부딪치는 거니까 모든 것을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믿어야 합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모두가 얽히고설켜서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데, 상대가 잘못하더라도 자식들에게 욕을 하지 말고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모든 건 거기에 맡겨 놓으면서 마음으로 잡아야지, 말로 몸을 잡으려고 한다면 몸이 잡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의해서 몸이 움죽거리지 몸으로 인해서 마음이 움죽거려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어서 마음으로부터 바로 몸이 움죽거리고 생명의 근본으로부터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병이 나거나 일가친척이 병이 나거나 내 식구들이 병이 났어도, 주인공은 둘이 아닌 거를 알고 내 주인공에다가 '너만이 낫게 할 수 있다.' 했을 때에 그게 즉각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할 수 없는 말이지마는 병이 나서 아팠을 때 주인공에다 맡겨 놓으면 일체제불의 마음과 더불어 찰나찰나 내 마음을 통해서 나투십니다. 이 말을 잘 새겨들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마음들이, 내가 병이 나서 주인공에다 맡겨 놨을 때는 여기가 일체제불의 마음이 올 수 있고 갈 수 있게끔 하는 통신처입니다, 통신처. 내 집에 전화를 놓지 않는다면 전화가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듯이, 내 집부터 전화를 놓아야 되듯이, 내 주인공의 뜻을 세워 놓지 않으면, 선을 세워 놓지 않는다면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병이 나서 거기다 맡겼을 때는 바로 한 찰나에 이 몸속에 들어 있는 자생 중생들이 약사보살이 돼 가지고 병을 낫게 하는 의사가 되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주인공! 당신만이 이거를 대치해서 해 나갈 수 있잖아!' 했을 때는 관세음이 되시고 '아이구, 명이 짧아서 어쩌나!' 하고 거기다 맡겼을 때는 칠성이 돼 주시고, 또는 '아이구, 좋은 데로 가야 할 텐데 어쩌나!' 하고 걱정을 하면서 주인공에 맡겼을 때는 지장이 돼 주시고, 또 마음에 물리가 터지지 않아서 애를 쓰고 거기다 맡겼을 때는 동방의 아촉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물리가 터지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둘 아니게 지켜볼 수 있는 관법을 잘 알아야지.' 한다면 바로 아미타가 돼 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각자 마음속에는 기묘한 법이 그렇게 있으며, 아까도 얘기했듯이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을 여러분이 충만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쓸 수 있다 이런 소립니다.

지금 금속이나 전력이 곳곳에 쓰이지 않는 데가 없듯이 우리의 마음의 금강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아니 쓰여지는 데가 없다 이 소립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아프면 의사가 되고 내가 명이 짧을 때는 칠성이 돼 주고, 물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거기다가 모든 걸 맡겨 놓고 '너만이 잘 가게 할 수 있다.' 했을 때에는 바로 용신이 돼 주고, 먼 길을 갈 때 바로 내면세계의 주인공에다 맡겨 놓으면 지신이 돼 준단 말입니다. 이거를 못 믿겠걸랑 한번 여러분 가정을 들여다보세요. 아버지가 아버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때로는 아들이 되고 때로는 남편이 되고 때로는 아버지가 되고 때로는 사위가 되고, 어느 회사의 직원이 되기도 하고 사장이 되기도 하고 국회의원이 되기도 하고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름이 수만 가지로 그렇게 스스로 자동적으로 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남의 뿌리에다가 내 뿌리가 돼 달라고, 내 나무를 성장하게 해 주고 푸르르게 살게 해 달라고 빌거나 기도하지 말고 내 뿌리에 내가 직접 '네 몸을 형성시켰으니까 너만이 잘 끌고 갈 수 있고 건강하게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너뿐이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해 나가시는 것이 한 가정에 이익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3년 10월 10일 국내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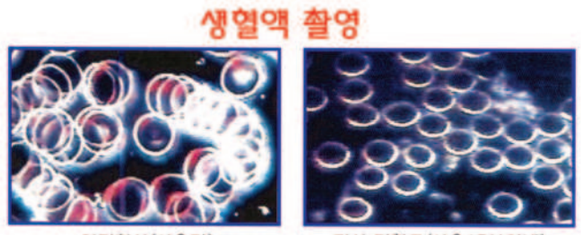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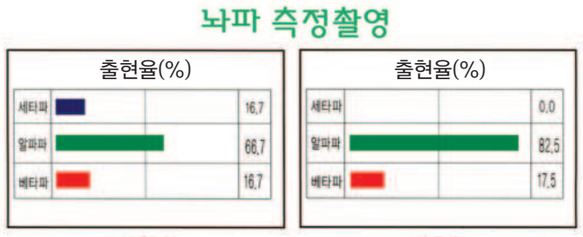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 현불 논단 |

조국 사태와 연기적 정의론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韓사회 뒤흔든 조국 장관 문제
정의론 다시 생각해 볼 계기돼

현대 정의론, 계몽주의와 연결
완전한 정의 · 제도 구축에 초점
한국 주류 정의론 밀접히 관계

센의 '연기적 정의이론'에 주목을
완벽한 정의 · 제도, 현실상 불가능
실현가능 선택 속 不正義 줄여야
연기적 현실서 실천적 정의 탐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의 청문회에서 표출된 일련의 과정은 이 땅의 사람들을 열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법무장관에 임명된 후에도 열병은 계속되고 있다. 정치적 이슈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친구도 거침이 없어졌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 라고 하면서.

매스컴들은 '조국 열병' 의 원인과 처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개인의 도덕성과 가치관에 중점을 둔 '개인 윤리적 차원' 과 사회구조와 제도의 도덕성에 관심을 가진 '사회 윤리적 차원' 으로 나눌 수 있다.

지금 한국의 집권 세력은 '정의의 아이콘' 으로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하였고 '정의의 레토릭' 으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앙에 조국 장관이 있었다. 조국 장관 청문회의 과정에서 정의는 특정집단과 계층의 전유물이 되어 버렸고, 동시에 조롱과 냉소의 대상으로 되고 말았다. 그것이 왜곡된 것이라 하더라도 매우 불행한 일이다.

'정의' 는 인류 관념사에 제일 큰 주제이다. 오늘날의 현대 정의론은 유럽 계몽주의의 전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전통은 완전한 정의와 공정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존 롤스의 정의론이다. 한국에서의 주류 정의론도 이 틀에 서 있다.

하지만, 필자는 유럽 계몽주의의 전통에서 비켜서서 비서구사회 특히 인도와 타 지역의 지성사에서 나온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활용하고 있는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의 정의이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센은 인도 출신으로 불평등과 빈곤연구의 대가이자 후생경제학의 거목으로 아시아 최초의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산스크리트어에 해박하며 십대부터 붓다의 지혜에 매료되어 자신의 정의이론에 접목시키고 있다.

센은 완전한 정의와 완벽한 제도에만 골몰하는 주류 정의이론을 실제 사회에 대해 무관심한 '가상' 의 이론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성향을 가질 위험성을 지적한다. 그는 사회적 현실을 직시하여 가치판단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비교접근을 통해 부정의를 제거해 가는 실천적 방식으로 정의를 촉진하자고 제안한다.

센에 의하면 '정의' 를 정의하는 기준은 다원적일 수밖에 없으며 부정의를 제거하고 방지할 완전한 제도의 구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완벽한 정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적 현실을 직시하며 실현가능한 선택지들을 비교하면서 부정의를 줄여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 주장한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 세계에서 무엇이 완전한 정의이고 무엇이 완벽히 공정한 제도인지 판별하는 '이론' 은 필요하지도 충분하지도 않다는 것이다.

주류 정의론에서는 계속 아트만(Atman)을 찾고 있고, 그 아트만은 정치적 깃발로 기능할 것이다. 센의 정의론에서는 아트만이 없다. 제행무상의 연기적 현실 속에서 실천적인 정의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센의 이론은 기존의 편협한 '이론' 을 대체해야 할 실천적 아이디어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필자는 센의 최근 저서 〈정의의 아이디어(The Idea of Justice)〉를 읽으면서 센의 정의론을 '연기적 정의론' 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센은 '왜 우리는 밤에도 깨어 있어야 하는가' 라는 글에서 우리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할 때 정의의 실현이 가까이 다가온다고 절규한다. 정의는 결코 점령해야 할 고지가 아니라 이 대지에서 실현할 과제이다. 정의는 어느 집단이나 계층의 독점물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할 대상이다. 그래서 정의는 바른 민주주의에서 자란다. 밤잠 설치며 고뇌하는 정의론자가 이 땅의 정치판에 있기는 한 것인가?



천미희의 **환경칼럼**

살처분, 욕망이 빚어낸 비극

"돼지고기 값이 올라가겠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연일 전해지니 사람들은 돼지고기값 폭등을 우려한다.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살처분' 으로 돼지의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 폭등을 불러올 것이라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의 지극히 당연한 걱정이긴 하지만 돼지의 입장에서는 치사율 100%의 병이 퍼지고 있는 것이니 생명이 달린 문제이고, 돼지농가의 입장에서는 애써 길러온 돼지를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절박한 처지다.

동물 전염병이 확산될 때면 방역 대책으로 나오는 '살처분' 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무척 살벌하다. 광우병과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도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많은 소와 돼지가 살처분 됐다.

살처분은 당하는 동물만큼이나 그 현장을 지켜봐야 하는 공무원, 수의사 등 사람에게도 고통을 준다. 사체를 묻거나 또는 살아있는 생명이 묻히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정신적 고통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심각하다. 또한 구덩이를 파고 비닐을 깔고 묻는 일반 매몰 방식을 취하면서 살처분으로 인한 매몰지 오염도 피할 수 없다.

2017년 자료에 의하면 가축 매몰지 오염에 비상이 걸렸다. 전국에는 4500여 곳에 이르는 매몰지가 있다. 그 중의 수많은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기도 하고 미처 분해되지 않는 사체 일부가 땅밖으로 드러나기도 하며 토양이 검게 썩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전염병은 막았지만 살처분은 토양 · 수질오염 등의 환경 문제를 야기하면서 또 다른 환경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 3년이면 자연분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매몰지 관리 기준을 3년으로 정해 놓았지만 규정보다 많은 돼지를 묻었기 때문에 분해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문제는 더욱 장기화 되고 있다. 추가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침출수를 빼내는 오염방지 시설도 갖추어야 하고 미생물을 활용한 자연 발효나 사체 소각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행이 쉽지 않다고 한다.

급속도로 퍼지는 동물 전염병이 돌 때마다 엄청난 수의 생명을 매장하면서 어쩌면 우리의 생명 가치도 함께 묻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동물 전염병 발병 원인이 축약식 축산에서 기인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가장 축약적인 축산환경이다. 게다가 극단적 이윤 추구를 위해 사료비를 낮추기 위해 오염된 음식물을 사료로 이용하면서 광우병, 구제역이 생긴 것만 봐도 이윤 추구만을 쫓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제 2, 3의 광우병 발생 가능성을 안고 사는 셈이다.

동물 복지를 무시한 축산 방식이 전염병을 불러오고 그 전염병을 막기 위해 또 다시 동물 복지를 무시한 살처분이라는 대책으로 일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들을 묻는다고 끝나지 않는다. 이제라도 동불 복지를 고려한 축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물 백신 개발, 방역 확대 등 전염병 예방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맛있는 것을 더 많이 먹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처분할 수 있어야 한다.

끝없는 욕심이 있는 한, 축산 동물을 먹이로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있는 한, 무분별한 살처분은 계속될 것이고 이는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환경 피해로 돌아올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社 說

제12대 전국비구니회장에 바란다

조계종 제12대 전국비구니회장에 본각 스님이 당선됐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9월 18일 서울 일원동 전국비구니회관에서 제12대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직선제를 통해 제12대 회장으로 본각 스님을 선출했다. 본각 스님은 총 1880표 중 1064표를 얻어 789표를 얻은 경쟁후보 육문 스님을 제쳤다.

이번 선거는 총 1910명이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올렸다. 총 유권자인 6000명의 비구니 스님 중 1/3이 참여한 것으로 이번 선거에 대한 비구니 스님들의 관심을 알 수 있게 했다.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본각 스님의 첫 일성은 화합이었다. 본각 스님은 "우리 모두는 한 방울의 물이다. 전부 흘러서 강을 만들고 바다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넓은 법의 바다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갈라졌던 마음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스님의 일성은 선거전이 후반으로 갈수록 과열 양성을 보였던 만큼 갈등을 뒤로 하고 한국불교와 비구니회의 발전을 위해 비구니회 대중 모두가 힘을 쏟아야 한다는 당부이기도 하다.

실제, 본각 스님의 우선 과제는 이번 선거 과정의 파열음을 잘 정리하고 화합하는 것이다. 조직의 화합이 이뤄져야 본각 스님이 제시한 △현실적 복지체계 구축 △인재육성 활용방안 마련 △항상 열린 전국비구니회 △사회문제 능동적 대처 △시대 선도라는 5대 공약의 성공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선거가 끝난 만큼 상대 후보 측도 결과에 승복하고 비구니 승가 화합에 동참하며 힘을 합쳐야 한다.

'비온 뒤 땅이 굳는다' 는 속담처럼 전국비구니회의 한국불교 발전의 단단한 반석이 되길 바란다.

Z세대 포교, 종단 차원 확대를

현재 10대를 이르는 말이 있다. 바로 Z세대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미디어에 익숙한 이들은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 로 불린다.

유튜버, 각종 미디어 크리에이터 등 뉴미디어의 주축 세대가 바로 이 Z세대다. 최근 모바일 데이터분석 플랫폼인 앱애니에 따르면 2020년 Z세대가 미디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실상 절반 가량의 미디어 생산과 소비를 이들 세대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세대를 불교신자로 끌어 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에 불교가 접근하는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이 올해 대불련, 대불청과 함께 주최하는 뉴미디어 영상 공모전은 큰 의미를 지닌다. 포교원은 지난해부터 웹툰 작가를 비롯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를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개최하고 올해 8월에는 불교SNS콘텐츠 발생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공모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문제는 종단 차원의 관심이다. SNS크리에이터 양성이나 콘텐츠 장려는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업 자체를 보면 미약하기 짝이 없다. 총 상금 300만원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래세대 포교를 위해서는 포교원 수준을 넘어 종단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봉은사는 지역 영화관과 신도 멤버십을 체결했다. 다소 이색적이지만 청년세대를 사찰로 이끌겠다는 것이다.

사회는 정보의 보편화와 시민참여의 증가로 빠른 속도로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불교는 이런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젊은 생각, 과감한 지원을 통해 불교 스스로 변화해 나가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건강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개원 14 주년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이 개원 14주년을 맞았습니다.
1999년 10월 착공하여 2005년 9월 개원, 그리고 2019년 개원 14주년까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의술로 함께 한 14년.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은 진단에서 치료까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진료예약) TEL 1577-7000 • 1032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 www.dumc.or.kr/is

“부처님 전도선언, 삶이자 목표”



그대는 자비보살

심재덕(71 ·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자문위원)

하성미 부산경남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석가모니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법을 펼치지 않고 바로 열반에 들었다면 오늘날 불교는 존재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이 성도했을 때가 아니라 초전법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부처님의 초전법륜을 첫 포교라고 본다면 포교가 불교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포교는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자 불교를 지탱하는 근본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포교는 승속을 가리지 않고 해야 할 가장 적극적인 신행이다. 부처님의 전도선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부처님의 전도선언을 평생의 원력으로 살고 있는 이가 있다. 심재덕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자문위원이다. 심 위원은 부처님의 말씀을 만나 행복했고, 자신이 느낀 행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 포교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특히 지적장애인 포교와 수계법회를 여는 등 불법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곳을 찾아 전법을 실천해왔다. 산술적인 성과보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고루 전해지기를 바라며 살아온 포교사 심재덕의 포교사 인생은 어느덧 20년 세월을 훌쩍 넘겼다. 쉼 없는 그의 길을 조명한다.

불연, 포교사가 되다

심 위원은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부처님오신날이면 어깨에 쌀자루를 지고 산을 넘었다. 경남 고성에 위치한 천년고찰 운흥사에 공양미를 올리기 위해서였다. 심 위원은 할머니와 함께 손을 잡고 운흥사 도량에 들어서면 마음이 저절로 편안해졌다. 향냄새와 목탁소리가 좋았고, 부처님의 품 안에 안긴 듯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심 위원은 자신이 불공의 덕으로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자랐다. 심 위원의 집안은 대대로 손이 귀한 집안이었다. 심 위원은 심 위원의 부모가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린 후에 얻은 아들이었다.

부처님에 대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심 위원의 삶 속에 스며들었고, 삶의 중심이 되었다.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룬 후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늘 그의 삶 속엔 부처님이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심 위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더 깊이 배우고 싶었고 바르게 믿고 싶어졌다.

그렇게 공부에 대한 갈증을 안고 살아가던 심 위원은 1993년 어느 날 신문 광고를 통해 서울 조계사 불교대학 수강생 모집광고를 보게 됐다. 통신반으로 운영되는 강좌여서 부산에 사는 심 위원에게도 수강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 그는 바로 서울로 올라가 조계사 불교대학 수강신청을 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서울로 올라가 강의 교재테이프를 받아 내려왔다. 그리고 받아온 교재를 통해 열심히 공부했다. 그는 1993년 조계사불교대학 통신반 2년 과정을 수료했고, 수료 후 포교사 1기가 됐다. 심 위원은 자신이 포교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심 위원은 포교사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진리인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귀합니까? 출가는 하지 못했어도 재가자가 부처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 스님들이 법을 잘 펴시도록 돕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제 삶이 다하는 날 까지 포교사로 살아 갈 이유입니다”

심 위원은 조계사불교대학 2년 과정을 수료한 후 바로 부산 범어사에서 포교사로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쉼 없는 공부, 지역단장이 되다

심 위원은 1999년 조계종 포교사단이 정식 창립하기 전인 1995년 포교사들의 모임인 포교사회서 활동을 시작했다. 범어사로 무작정 나선 심 위원은 범어사에서 당시 포교국장이었던 지종 스님을 만났다. 지종 스님이 심 위원에게 먼저 이야기한 것은 ‘포교와 수행에 관한 일지’ 였다.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었다. 수행으로 삶을 다듬는 것이 먼저였다. 심 위원은 공부할 도량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법회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 포교사로서 갖추어야할 소양을 쌓으며 포교사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심 위원은 이후에도 공부를 계속 이어갔다. 포교사로서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해서였다. 제1회 포교사전문화교육이수, 포교사전문화교육청소년교육과정이수, 동국대학교불교문화대학원 불교학 전공 석사, 부교문화해설분야 전문포교사품수, 고심정사 불교대학 경전반 공부 등 심 위원은 쉼 없이 공부했다. 이후 2013년 12월에는 조계종 재가자 최고 지도자 단계인 ‘선혜’ 품수를 받았다.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포교사가 일반인 보다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아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배워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지혜로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 법을 알려주기 위해 부족함이 없길 바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심하되 지혜로워야 합니다.”

B2면에 계속

심재덕 포교사는… 1995년 2월 조계사불교대학을 수료하고 포교사 품수를 받았다. 이후 부산 천마재활원에서 포교활동을 이어왔으며 부산 · 경남지역단 청소년천마팀장, 부산 · 경남지역단 감사, 부산 · 경남지역단 국장을 거쳐 포교사단 중앙임원 및 부산 · 경남지역단장을 역임했다. 2012년에는 포교사단 부단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부산지역단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상은 조계종 포교원장 표창장을 두 차례 받았으며 통일부 장관 표창장, 부산 시장 표창장, 중소기업 중앙회 표창장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8월 조계종 포교사단 제17회 팔재계 수계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했다.

IN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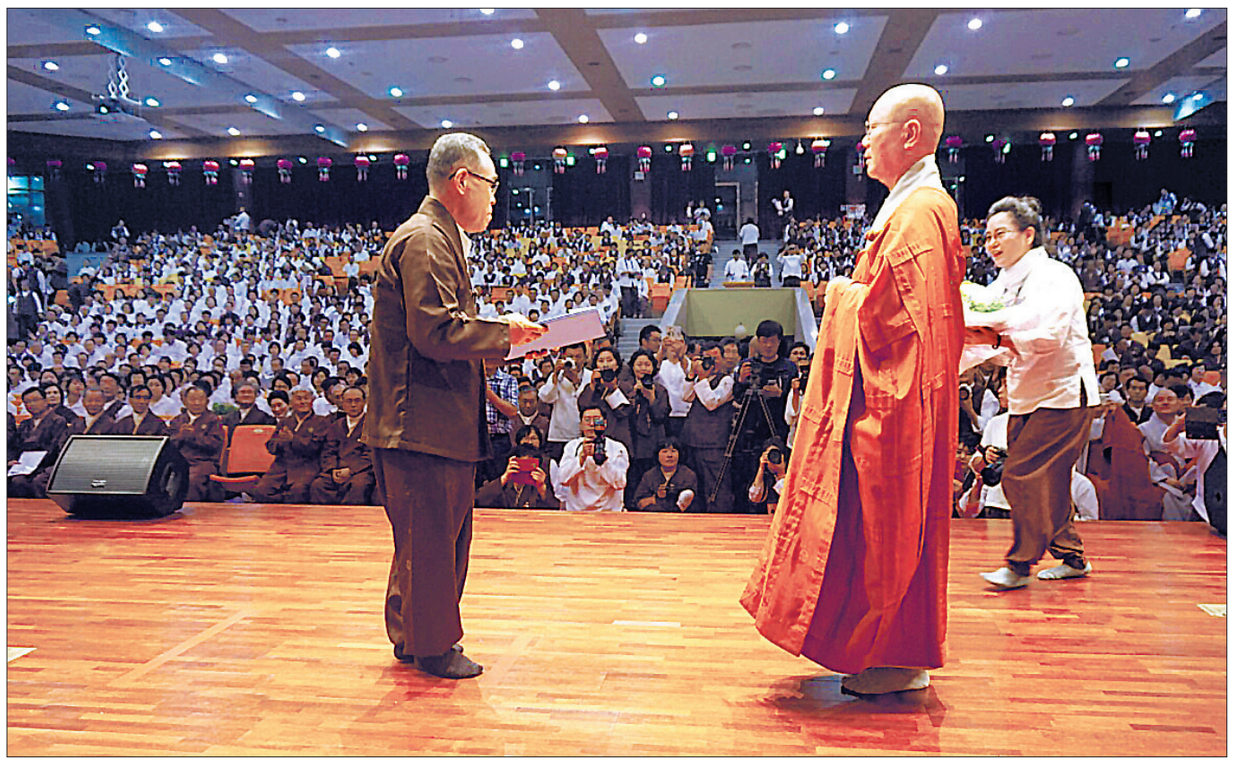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빠옥 총림에서 생활 〈7〉

B4 책세상
상인 스님의 〈별들이 뜨락 밝히는 밤〉

B5 문화
특집다큐 ‘매혹의 실크로드’

B6 학술
“北 불상 조성자, 한반도 중 · 남부 佛母”

지혜 · 자비 겸수해야 '참불자'… 수행 · 포교 매진



심 위원은 지난 8월 24일에서 25일까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봉행된 조계종 포교사단 제17회 팔재계 수계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했다.



심재덕 위원은 2009 부산 · 경남지역단 단장으로 취임했다.



2019 신년법회 모습.



천마재활원에서 포교하는 심 위원.

'심재덕 포교사'

B1면에서 계속

꾸준한 공부와 활동으로 단원들의 신임을 얻을 수 있었던 심 위원은 조계종포교원 포교사단 중앙임원을 역임하고 2009년 부산 · 경남지역단(이후 경남지역단 분리)의 단장으로 취임한다. 당시 행정적으로 다소 혼란스러움 속에 있었던 조직의 수장을 맡은 심 위원은 원칙과 소신으로 조직을 정비했다. 심 위원은 2011년까지 부산 · 경남지역단을 이끌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에는 조계종 포교사단 부단장을 맡아 포교 일선에서 활동하며 포교사들의 활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일선 포교사들을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했다.

장애인 등 포교 불모지 개척

불자는 지혜와 자비, 두 날개로 날아야 한다고 했다. 심 위원은 지혜를 위한 배움의 길을 쉬지 않으면서 자비행에 바탕을 둔 포교활동을 이어갔다. 심 위원은 1995년 조계종 포교사 품수를 받으면서 다음해인 1996년 2월부터 지적장애인을 위한 천마재활원에서 포교활동을 이어갔다. 심 위원은 정식으로 포교사 활동을 하기 전부터 지역봉사팀에서 활동했고 자주 방문했던 천마재활원에서 장애인들에게 특히 지적 장애인에게도 부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천마재활원에서 평소 봉사를 한 것도 있어 인연이 되었는데,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그 아이들이 반야심경을 줄줄 외웠다는 겁니다. 지능은 일반인과 다소 차이가 있어 생활에 어려움이 다소 있기는 했지만 부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면 그들도 배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고 그래서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애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일보다 수십 배의 노력이 더 필요했다. 가장 간단한 합장부터 절하기까지, 법회는 쉽지 않았다. 심 위원이 배우고 익힌 것을 조금도 풀어낼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심 위원은 괜찮다고 했다. 불법을 전하기에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지만 심 위원은 그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읽어주고 미소 지어주며 친구가 되었다. 손을 잡아 주며 그들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다. 부처님의 법은 어느 곳에서나 고루 전해져야 한다고 그는 믿었고, 그런 그는 포교사로서 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종교 활동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원생들을 강압적으로 불러 모은다거나 억지로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법회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몰려옵니다. 원생이 48명인데 40여 명이 법회를 찾습니다. 지난 6월에는 원생들을 위한 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범어사 포교국장인 효산스님과 포교사단들이 수계법회를 하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계의 삶을 아이들이 지켜나가고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일반인보다 행복한 삶입니다."

현재 심 위원은 '고려일진'이라는 자동차 부품회사의 사장이다. 부산인적자원개발원의 '부산형 착한기업'에 선정되기까지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다. 아내와 함께 둘이서 부품을 조립했던 창립 시기에서 현재 20여 명의 직원이 일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심 위원은 천마재활원에 있는 장애인을 위해 직업재활 훈련소로 공장을 내어주기도 했다.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고 회사로 오는 법부터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법회뿐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자립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직업재활훈련을 하면 바리스타부터 도자기 만들기까지 많은 훈련을 합니다. 불자로 안전하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 위원은 그들을 위해 사회복지가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포교뿐 아니라 능숙하게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됐다. 중의학도 전공했다. 아프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 특히 장애인들이 부처님을 찾을 때 약사여래불과 같은 마음으로 치료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

중소기업의 대표이자 포교사로 바쁘게 생활하는 그는 이 모든 활동의 원동력은 부처님을 닮고자 하는 수행시간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아침 5시 40분이면 심 위원은 일어나 부처님을 예경하는 예불로 하루를 시작한다. 참선과 함께 불자로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오후 7시에서 8시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 예불을 올리며 하루를 점검한다. 7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온 수행이다. 회사 집무실에는 틈틈이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도 마련되어 있다.

"신행수행은 모든 활동의 중심입니다. 저를 바로 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며, 더 나은 불자가 되도록 하지요. 저는 성격이 급하고 화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내면을 부처님 앞에서 비추고 하심하면서 참회하는 생활이 중심이 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을 해 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심 위원은 포교를 위해선 지혜를 갖추고 자비심으로 활동하는 신행생활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포교는 삶, 발자국이 되다

심 위원은 지난 8월 24일에서 25일까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봉행된 조계종 포교사단 제17회 팔재계 수계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수상했다. 그는 수상 소감으로 "실천하고 화합하는 포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배 포교사들에게 남기는 당부였다.

"포교사의 길은 무주상보시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건 불법의 가치를 알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좋아서 배우게 되고 배우면 나누고 싶고 나누기 위해 실천하는 삶이 곧 포교입니다. 포교사에게 포교는 곧 삶입니다. 수행으로 하루를 살고 미소 하나만으로도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1기 포교사로 첫발을 내디뎠었던 선배 포교사는 기본을 강조했다. '포교사'라는 단어 하나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은 그는 수많은 후배들이 뒤따라야 할 발자국이 됐다. 기본과 원칙을 강조하고 자신에게 엄격한 이유라고 했다.

"비구들이여, 나는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또한 모든 속박에서 벗어났다. 중생들의 이익을 위하여, 중생들의 행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세상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고, 신들과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떠나라. 둘이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마라.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바른 뜻과 문장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여라. 완전하고도 청정한 수행의 삶을 보여주어라."

부처님의 전도선언(傳道宣言)이다. 바로 포교사의 삶이자 목표이다. 심 위원이 고요하게 걸어온 길이다. 모두가 함께 가야 할 길이다.

불연 · 공부 · 수행

어릴 적부터 조모와 함께 신행
성인 돼서도 불교적 삶 유지
1993년 조계사불교대학 입학
부산서 서울 오가며 불교 공부
2년 과정 수료 1기 포교사 품수

포교사의 길

범어사 · 포교사회서 활동 시작
2013년 조계종 재가자 '선혜' 품수
2009년 부산 · 경남지역단장 취임
2012년 조계종 포교사단 부단장
1996년 천마재활원 포교 나서
매일 아침 · 저녁예불 하루일과
2019년 조계종 총무원장상 수상



빠옥 총림 수행가풍을 체험하다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⑰ 빠옥 총림에서 생활 〈7〉



필자의 수행점검 인터뷰를 담당하신 꼬비다(Kovida) 스님이 경내 탁발을 하는 모습. 이곳 스님들은 교리 이해와 수행문제에 있어 모두 상통하는 견해가 있다.



파욱 선원은 출가자와 재가자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수행을 한다. 낮 시간이지만 개인 공간처럼 모기장 안에서 좌선을 하는 출가자 수행자들.

오늘은 미얀마 수행처에 빠옥 총림의 일곱째 날(2012년 1월 28일)이다. 3시 30분 전에 일어나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선방에 오를 준비를 하고 올랐다. 오늘은 6일간 숙소를 함께했던 스페인 요기가 이곳을 떠난다. 아침 공양 마치고 한국 스님의 꾸띠에 들러 커피 한 잔과 치약을 가지고 빨리 돌아왔다. 스페인 요기를 환송하면서 언제 다시 이 수행처에 올 것이냐 물으니 그는 곧바로 "과거는 역사이고, 미래는 신비이고, 현재는 선물이다(The past is history, the future is a mystery, the present is a present)"라는 명언을 던진다. 앞으로 어떻게 인연이 이어질지 자신도 모른다 한다. 배낭을 메고 한손에 짐을 든 그와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홀로 길을 내려가는 그를 보고 간밤에 자기 전에 그와 나누었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영국이나 프랑스 그리고 독일 등의 유럽이 자국어로 불교경전을 거의 옮겼는데 스페인은 어떠한지를 물으니 아주 적은 분량의 경전만이 옮겨졌다고 한다. 그래서 프랑스 번역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안타까워한다. 어제는 수행상황을 점검해주는 선생이 스페인에는 없어 슬프다는 말도 떠오른다. 그는 늘 자신의 공부 상황을 수행점검 스님께 보고하고 지도를 받았는데 진지한 그의 태도에 인터뷰 해주시는 스님이 저서도 한 권 주셨다고 자랑한다. 앞으로 전자메일을 통해 서로 소식을 주고받자고 하고 헤어졌다. 선방에 다시 오르면서 사진이나 같이 한 장 찍어 두는 건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스페인은 남미 등을 식민지화하였지만 다른 유럽나라들과 달리 불교권 아시아 나라를 식민지로 두지 않은 이유로 불교문헌에 대한 번역이 저조하지 않나 생각되어진다.

오늘은 수행점검의 인터뷰 시간이다. 꼬비다(Kovida) 스님에 실제 수행과 관해서보다는 교리적인 점에 계속 질문 드리는 것 같아 오늘은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 본다. 먼저 스님께 "사마타 혹은 삼매 수행의 확신을 위해 드리는 질문이니 양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그리고 전번 첫 인터뷰 때 스님이 경전과 〈청정도론〉의 전거를 들어 "삼매만이 여실지견할 수 있다는데,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더 나아가 "불교수행이 아닌 다른 분야의 사람들도 고도의 집중훈련(intense concentration)을 하면 여실지견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부연의 말도 덧붙여 보았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르는 바는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나의 논문으로 지관차제 논쟁을 유발하게 한 이유이다. 하지만 나는 삼매가 바탕되지 않는 여실지견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경전의 경구를 도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고 사마타나 삼매 바탕 없이 위빠사나가 처음부터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빠옥 총림은 삼매가 바탕한 여실지견을 강조한다. 스님은 삼매 즉 '집중(concentration)' 은 어두운 밤에 불빛과 같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게 해주는 기능을 해준다 한다. 그래서 그 삼매의 불빛이 몸과 마음을 '관통(penetration)' 할 수 있다고 한다. 비유적인 설명으로 현미경의 예처럼 삼매는 마치 우리 마음을 현미경과 같이 되게 하여 존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비유를 들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어쩌면 내가 수업시간에 하는 비유적 설명과 똑같이 해 줄 수 있는가' 하고. 답변에 대한 정리하는 말로 결코 삼매나 사마타 없이 위빠사나 또는 여실지견은 불가능하다고 이해해도 되겠느냐 물으니, 단호하게 나를 똑바로 응시하며 "Yes"라고 한다.

계속해서, 그러면 왜 경전이나 주석서에서 마치 사마타에서 위빠사나의 차제수행만이 아닌 위빠사나에서 사마타 수행도 가능한 것처럼 나타나는가를 질문하였다. 그러나 스님은 경전과 주석서에는 '사마타 행자' 와 '위빠사나 행자' 라는 두 종류의 수행자가 언급된다고 한다. 그리고 불교수행에는 색(色)와 명(名)에 대한 집중이 있는데, 등 등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려한다. 그래서 순간 "스승이시여(Acariya)! 지금 많은 스님들이 인터뷰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고 지금 이 설명은 좀 길 것 같으니 따로 시간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하고 물러났다.

많은 스님들이 차례로 입구까지 순서를 기다리며 자신의 수행상황에 대한 점검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예를 표하고 뒤로 물러서 나오려니 승가사무실에 머무는 스님이 뒤에서 다 들었던지 나에게 두 번이나 엄지를 들고 활짝 웃어주셨다. 뒤에 기다리는 스님들을 위해 시간을 배려 잘해주었다는 것이다. 가끔 법에 대한 대화는 더 없이 감격하게 한다.

꼬비다 스님과의 수행점검 시간
삼매 없이 여실지견 불가능 확인
스승들 교리에 상통한 견해 가져
빠옥 · 마하시 가풍 차이도 느껴

파욱 선원! 앞선 인터뷰에 이어 오늘에 이르러 이곳 스승들은 수행의 문제, 예를 들면 사마타 위빠사나의 문제 등에 있어 서로가 통일된 견해가 있음을 알았다. 즉 교리 이해와 수행문제에 있어 모두 상통하는 통일된 견해가 있고 그러한 입장을 분명히 제시한다. "아! 이것이 바로 불교공부의 가풍이란 것이구나"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왜 삼매만이 진리의 여실지견이 가능한가? 이 문제는 내가 불교공부를 선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입문하면서부터 줄곧 쉬지 않은 질문이다. 결국 초기불교로 돌아가서 해결하려고 했던, 그리고 나름 해결했다고 자부했던 문제였다. 보통 삼매는 정(定)이나 삼매(三昧)로 번역되어 있고 (정신)집중을 의미하는 말로 이해한다. 그래서 '집중이 어떻게 진리를 본다' 는 것인가? '집중이 생명의 근본 질을 뿌리부터 질적 전환할 수 있다' 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가.

이에 대한 나의 결론은 이렇다. "고도의 집중력만이 생멸(生滅)의 무상(無常) 제대로 포착할 수 있다 '는 이유이다. 고도의 집중력이란 인터뷰 스님의 비유와도 같이 ' 현미경 같은 눈 '을 갖추는 것이다. 평상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생명의 이면을 넘어볼 수 있는 또는 관통할 수 있는 법안(法眼) 또는 혜안(慧眼)을 말한다. 마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미생물의 활발한 움직임을 전자현미경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듯이. 몸과 마음의 존재현상, 즉 끊임없이 쉬지 않고 찰라생멸하는 무상(無常)을 보는 것이다. 생멸의 무상을 보는 것 또는 볼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위빠사나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듯이 단순히 감각기관의 기능과 작용 또는 활동을 '알아차리는 것' 이 아니다."

일주일 간의 생활을 통해 파욱선원의 특징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첫째, 출가자와 재가자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장에서 공부한다.

둘째,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마하시의 경우 외국인은 다른 선방이 주어졌다.

셋째, 참선 일과표가 있지만 우리처럼 죽비 들고 경책하는 사람이 없다. 자율적이다. 따라서 억지로 시간 때우기 식의 좌선이나 오래 앉아 있기 경쟁은 없다. 우리의 경우 뚝심으로 오래앉아 있기 경쟁에 병 얻었다는 이야기도 가끔 들었다.

넷째, 낮 시간도 개인 공간처럼 모기장 안에서 좌선한다. 밤 시간은 완전 소등으로 캄캄한 편이다. 마하시의 경우, 희미하게 조명을 하였다.

다섯째, 행동이 자연스럽다. 이는 마하시와 비교되는데 마하시는 일거수일투족은 느리다 못해 마치 굼벵이와 같이 꿈 뜬 슬로우 모션이 강조된다. 여기서는 오히려 걸음걸이 등에 활력이 느껴진다.

여섯째, 앞에서 말한 비처럼 참선 일과표가 있지만 상당한 자율성이 부여된다. 앉고 일어서는데 경우에 따라 중간에 나가거나 들어오는 사람이 있지만 대단히 조용하게 앉고 일어서고 나가고 들어온다. 이러한 자율성은 졸리거나 흐리멍덩한 의식 상태에서 억지로 앉아있게 하지는 않는다.

일곱째, 이곳에서는 좌선하면서도 책은 물론 경전 공부와 조석 예불을 한다. 마하시에서는 독서와 기록이 원칙적으로 자제하도록 권장한다. 그리고 외국인 수행처에서는 조석예불을 하지 않았다.

여덟째, 이곳에서는 출가스님이나 재가자나 경내의 탁발이다. 이러한 장소를 초기경전의 '탁발(pin□ap□ta)'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마하시에서는 공양청의 둥근 탁자에 준비된 밥상에서 공양을 한다. 많은 스님들과 재가자 그리고 사미니 등 칠중이 함께 모여 공양을 드는데 '공양 중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는 계율 때문에 공양의 분위기는 조용한 가운데 장엄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나중 먹는 사람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아니라 먹는 대로 먼저 일어나 버린다. 그리고 이곳은 채식이 기본인 반면 마하시는 육류와 생선도 제공된다.

그리고 마하시 선원과 빠옥 선원의 일과표는 새벽 3시 또는 3시 30분으로 해 뜨는 시간에 따라 조금 달라진다고 한다. 이로 보면 우리나라와 거의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미 초기불교경전에 나타난 비구들의 일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이 같은 새벽 3시의 시작은 이번에 필자가 생각되는 바로는 오후 불식과 함께 일찍 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따른 일과표가 아닌가 싶다. 따라서 오후 불식하지 않는 한국의 경우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불교 대표 종단인 조계종의 한 해 출가자 수는 100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에 교계의 한 재가지도자는 새벽 3시에 일어나는 우리나라 사찰의 일과를 좀 완화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을 교계언론을 통해 본 적이 있다. 그런데 완화해야 하는 이유를 중국의 도교 영향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재고가 필요하다. 사실은 초기불교로부터 기원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불교권도 이와 비슷하다.

오후 좌선을 마치고 처소로 내려오는 길목에 일곱 여덟 살 먹은 남자애와 여자애들이 공부하고 내려오는 스님들과 재가자들에게 각각 사탕수수 즙을 낸 것을 패트병을 재활용하여 담아와 보시한다. 나도 하나 받아와서 아주 맛있게 마셨다. '미얀마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애들에게 보시공덕의 공부를 시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한국의 스님과 재가도 어렸을 때부터 보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이는 불교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외래교수〉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18~9/2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천태소지관	천태지자/윤현로	운주사	6	삶이 내게 묻는 것들	보현스님	쌤앤파커스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7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알깨미음대로 풀어 쓴 섭대승론	무착/정화스님	북드라망
3	요가 디피카	B.K.S.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8	당신의 주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대붕선사 법어집)	편집부	무상사
4	도해 운명을 바꾸는법	석심전/김진무	불광출판사	9	자신과 마주하는 임제록	성윤갑	조계종출판사
5	염불수행대전	주세규	비움과소통	10	붓다는 결가부좌를 하지 않았다	이영일	수련하는돌

"한마음으로 보면 모든 게 결국 제 자리"



별들이 뜨락 밝히는 밤
상인 스님 지음/불교신문사 펴냄/1만원



50년간 마음거울 닦아온 수행자
서정적인 감수성 시어로 녹여내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충북 음성 가섭사 주지 상인스님〈사진〉이 시집 〈별들이 뜨락 밝히는 밤〉을 출간했다. 이번 시집은 〈별들이 뜨락 밝히는 밤〉이란 제목서 알 수 있듯 출가 50여 년 동안 마음거울을 닦아온 수행자의 서정적 감수성이 시어로 녹아 있다. 상인 스님은 일찍이 법주사로 출가해 전국을 주유하며 한곳에 머물지 않고 수행에 매진해 온 납자다. 법납이 차 오르며 인연처가 되어 몇몇 사찰 소임을 보기도 했지만, 스님의 마음은 언제나 버리고 훌훌 떠나는 자유로운 바람같다. 상인스님의 시를 서평한 이하석 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 생각에 의해 한생을 살자면 한생이 한마음 보지 못하고
마음이 한마음 보면 말티재 넘어가는 저 햇님도
한자리 머물러 해와 달빛 하나 되어
세세생생 없이 문장대 아래 있으리
–〈말티재를 넘으면서〉 전문

"생각이 무엇인가를 바꾼다고 여기기도 하지만, '한 마음'으로 보면 결국 모든 게 제 자리에 있다는 자각이다. 그러므로 스님의 삶은 '한마음'을 보는 '거기'에 있겠다. '거기'는 일상 삶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이다. 이 시에서는 '문장대 아래'라는 인식이 예사롭지 않다. 문장대는 법주사가 있는 속리산의 바위다. 그래, 스님은 법주사와 인연이 깊다. 그 수행의 첫 인연 자리이자, 만행의 출발점이 된다."

상인 스님은 2000년 여름 인각사 주지로 부임하며 한참동안 걸망을 풀어 놓은다. 그곳에서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와 인연을 맺으며 '일연삼국유사문화제'를 열고 일연문학상도 운영한다. 일연스님의 비를 고증된 탁본에 의해 다시 건립하고 〈삼국유사〉 영인본을 간행했다. 또한 해마다 일연 스님 관련 행사를 성황리에 열고, 일연 관련 학술회의도 개최하며 인각사를 '일연학'의 본산으로서 우뚝 서게 만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범위를 넓혀 달성의 비슬산 대견사를 복원하려는 원을 세우고, 두루 관련 기관들과 소통하면서, 한편으로는 달성군수를 세 번이나 만나 진전된 논쟁을 펼치기도 해 그 결과 현재 대견사가 복원되는 씨앗을 뿌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 뿐, 스님은 걸망을 메고 다시 훌쩍 음성 가섭산 가섭사로 왔다. 그곳에서 바람과 구름을 만났고 밤새도록 우는 풍경소리의 마음을 언어로 조각해 냈다. 일전에도 여러 편의 시들을 써 놓기도 해 이번에 한 곳에 묶어 〈별들이 뜨락 밝히는 밤〉으로 세상 독자들과 만나게 됐다.

상인스님의 시세계는 무엇보다, 당연히, 수행자의 가지런한 마음가짐이 느껴진다. 이하석 시인은 스님의 시세계가 내면으로 향해 있다고 지적한다.

"시선은 언제나 자신의 안을 향해 있으면서 고요하게 빛난다. 시들도 그런 수행자답게 담백하면서도 깊은 인식을 깨우치는 언어들로 구축되어 있다. 그 마음이 지향하는 세계는 님 또는 당신이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형상화하여 드러나기도 한다."

노을처럼 비단옷 갈아입은 산자락이 찬란하다
먼 길 가는 나그네 마음마저 붙잡혀
돌아가는 산자락 아득하여라
어느덧 보름달 동산에 나와
호탕한 웃음 메아리치는데
당신, 무엇하러 왔냐고
내 주위를 빙빙 도는 그림자 하나
어쩌면 그대 같기도 해서
갈 길을 놓치고 말았다.
–〈헛개비〉 전문

이하석 시인은 상인스님의 시 〈헛개비〉를 평하며 "자책과 번민을 떨치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당신'을 향한 갈구의 정이 넘쳐난다"고 평한다. '먼 길 가는 나그네'의 그 길은 '어둠 가르며/찾아' (〈백리 벚꽃 길〉)가는 길이며, '꽃샘추위 헤집고' 닿는 길이라는 것이다. 헛개비인 줄을 알면서도 '내 주위를 빙빙 도는 그림자'를 떨치지 못하고 탐닉해, '갈 길을 놓치고' 만다. 자연과의 일체감이라는 정서적 안정과 갈 길을 놓치는 불안정의 정서가 충돌하는 모습을 통해 수행자의 고뇌를 드러낸다고 한다.

상인 스님은 시인이기에 앞서 담대한 세상을 직면하는 수행자로서 번뇌와 망상을 떨치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라는 자각을 시 여러 곳에 녹여낸다.

네가 그리워 앞산 바라보면서
너의 모습 마음으로 그려보니
너의 모습은 앞산에 가득 찼네
너무 좋아 포옹이라도 하려 하니
누군가 어디에서 왔는지
길 지워버리고
님의 모습마저 지워버렸네
이 산 저 산 찾았으나
어둠만 찾아오네 –〈기다림〉 전문

높고 높은 산허리
천년 묵은 소나무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흐르는 계곡 맑은 물
작은 미물에도 흐려지지 않는도다.
–〈수행〉 전문

상인 스님의 시는 '너와 내 마음'이 '둘 아닌 삶인 것'을 인식시켜 준다. 그래서 스님의 시를 읽는 독자에게 계속 되새김하고, 다짐하면서 삶을 나아가게 한다. 이 자각의 행로야말로 그의 시의 출발이자, 정점이며, 귀결점이라고 이하석 시인은 평한다.

"스님의 시는 '님'을 찾는 도정의 언어라는 수행의 행로를 보여준다. 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행로는 우리 서정시의 본류이기도 하다. 흡사 선재동자의 순례처럼 구도의 간절함이 편편마다 드러난다." 요즘 상인스님은 가섭산 가섭사에 머물며 중소도시 음성군 불자들과 소통한다. 불교대학도 개설하고 정기법회도 봉행하며 인연을 소중히 가꾸어 간다. 그러면서 가섭사의 구름과 바람과 태양과 이슬과 대화하며 시편들을 캐낸다.

▲저자 상인 스님은?

1950년 강원도 홍천서 태어났다. 법호는 고선(古禪). 1969년 법주사서 혜정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75년 법주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군위 인각사 주지, 대구 대성사 주지, 제천 정방사 주지를 역임했다. 2001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일연학연구원 원장으로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선사에 대한 연구와 업적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섰다. 대전교도소 종교위원을 맡아 교정인 포교에 매진했고,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 상임이사로 활동하며 하동청소년회관 관장을 맡아 청소년 포교에도 일조했다. 현재 충북 음성 가섭사 주지로 재직하며 지역포교에 매진하고 있으며 '삼국유사 연구원'을 설립해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시집 〈낙서〉와 수필집 〈소박한 적멸〉이 있으며 번역공저인 〈아인슈타인에게 묻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산업 진흥 및 독서문화 향상을 위하여 실시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문학분야)에 선정되기도 했다.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전한 운명 개척법의 모든 것



도해 운명을 바꾸는 법
편저 석심전/번역 김진무, 류화송
불광 펴냄/2만원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곧잘 잊고 지내는 진리가 하나 있다. 과거 동서양의 많은 성현(聖賢)들이 충고했듯 자신의 운명은 각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붓다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번에 나온 〈도해 운명을 바꾸는 법〉에서 강조하듯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인생은 어떤 신적 존재나 미지의 힘에 의해 조종되는 것이 아니다. '운명'과 그 운명을 '뛰어넘는 법'에 관한 붓다의 가르침에 전제된 것은 각자 운명의 주재자(主宰者)는 오직 자신뿐이라는 점이다.

이 책의 설명은 중생은 모두 깨달을 수 있는 존재라고 선언한 붓다의 메시지로 이어진다. 달리 말해 우린 모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존재임을 공표한 것이다. 각자의 업에 따라 처한 운명은 다르더라도 누구에게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은 평등하게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우린 자신의 인생을 숙명의 틀에 가두어 절망적인 데로 돌릴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이 책의 초반에 나오는 말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본을 관리' 하듯 자신의 '행운을 관리' 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누구나 삶의 힘든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한번쯤은 '난 왜 이런 팔자를 타고 났지?' 라며 탓해 본 적 있을 것이다.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팔자, 다시 말해 정해진 운명이 있어서 인생은 그 길로만 가게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렇다 보니 인생을 수동적으로, 비관적으로 살기도 한다. '정해진 운명'이란 정말 있는 걸까? 애석하게도 붓다는 '그렇다'고 말한다. 불교에서는 과거의 업에 의해 현재의 삶이 만들어지고, 현재의 업은 미래의 삶을 만든다고 말한다.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붓다의 말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 말은 실상 희망적이다. 조건과 결과, 즉 인연과보(因緣果報)를 중시하는 불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숙명'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은 사실 '운명은 바뀔 수 있다' 는 가능성의 표현이다.

이 책의 추천사를 쓴 조용헌 선생은 '스스로 자기 운명에 개입하라' 고 말한다. 어쩌면 인생의 쓴맛을 보았을 때 '팔자소관으로 돌리는 것' 이 가장 편한 일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미 '운명을 바꾸는 건 물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 ' 인데 구태여 머무를 이유는 없다. 이 책의 핵심이자 붓다가 이야기하는 개운법의 핵심은 바로 '마음'에 있다. 편저자는 마음 변화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것은 이미 모두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말한다. 이 책서 강조하는 것처럼 생각이 인생의 재앙과 복을 결정짓는다. 마음의 변화가 운명의 변화를 가져오는 원리를 정리하면 이렇다. '마음이 바뀌면 태도도 따라 변하

"스스로 자기 운명에 개입하라"
핵심은 당신 '마음'…바꾸면 극락

며, 태도가 변하면 우리의 습관도 따라서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우리의 성격도, 성격이 변하면 우리의 인생도 따라서 변한다' . 결국 운명을 바꾸는 법은 마음(생각)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만약 자신의 심리를 가장 좋은 상태로 조절해 안정적이고 침착하며 편하고 즐거운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인생은 저절로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며 자유롭고 거침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행운아가 될 수 있다. '운이 나쁘다' 같은 말은 사실 틀린 말이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잘 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이 책에서는 자신의 운명과 인생을 관리하기 위한 네 가지 사유법으로 '사공가행(四共加行)' 을 소개한다. 네 가지 사유란 '사람의 몸을 얻기 어려움(人身難得)' '생명은 무상함(生命無常)' '인과업보' '윤회의 허물과 우환(過患)' 을 말한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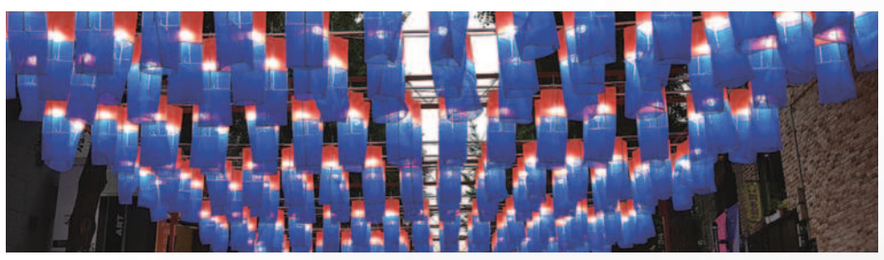


불사용 장엄등 시공 • 임대

보련기획
장엄등을
대여해드립니다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 시공
행사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출
보관 · 사후관리 불필요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예술가 3인이 바라본 실크로드 속 예술

KBS1 특집다큐 '매혹의 실크로드'

4부작 방영, 9월 20일 첫 방송
작곡가 원일 등 예술가 3인 참여
경주 황룡사지서 공연으로 회향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실크로드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다. KBS1은 9월 20일부터 10월 3일까지 특집 다큐 4부작 '매혹의 실크로드(연출 · 김무관 김정희)'를 방영한다.

'매혹의 실크로드'는 한국의 예술가 3명이 경주를 출발해 중국, 중앙아시아, 인도 이란까지 실크로드 곳곳을 찾아 춤과 음악, 기예 등 무형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하는 실크로드 예술기행 다큐멘터리다. 이번 기행은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실크로드를 현재 관점에서 재해석하기 위한 것이다. 여행에 참여한 예술가 3인은 실크로드에서 받은 예술적 영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경주 황룡사지에서 공연한다. 여정에 참여한 3인의 예술가는 무용가 차진엽, 작곡가 원일, 일러스트레이터 밥장이다.

△9월 20일 오후 10시에 방영되는 1편 '길 위의 몸짓(50분)'은 무용가 차진엽이 바라본 실크로드다.

통일신라의 대문장가 최치원은 〈향악잡영오수(鄕樂雜詠五首)〉에서 당시 저잣거리에서 유행한 다섯 가지 놀이를 소개한다. 그런데 최치원의 문장들 속에 등장하는 것들은 '우리 것'들과는 그 모습이 무척 다르다. 눈이 쑤욱 들어가고 코가 높은 낯선 생김새의 가면을 썼는가 하면, 당시 신라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자의 꾸밈을 하고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실크로드에 답이 있다. 무용가 차진엽은 길 위에서 세계적인 무용가들을 만나고, 전통을 간직한 춤을 전승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춤춘다.

△9월 27일 오후 10시에 방영되는 2편 '길 위의 소리(50분)'는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원일이 바라본 실크로드다.

고대의 음악은 악보가 남아 있지 않다. 공연 모습을 묘사한 유물, 바래진 그림 속 악기들로 당시 음악가들의 교류 흔적을 더듬어 갈 뿐이다. 신장 위구르자치구 쿠처는 화려한 불교문화를 꽃피우며 독자적인 음악과 춤을 발전시킨 구자국이 전성기를 누린 곳으로 '실크로드 음악의 보고'로 불린다. 완함, 5현 비파, 피리, 요고, 등이 키질석굴에 벽화로 남아 있다. 이란과 인도에서는 여전히 전통음악이 대중적이고 인기도 높다. 전통음악을 현대적 감각으로 향유하는 위대한 음악가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다. 작곡가이자 연주자인 원일은 실크로드에서 우리의 음악을 생각했다. 오늘날 우리의 음악 속에서는 불교음악을 비롯한 우리의 전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오랫동안 화엄음악제를 이끌기로 했던 작곡가 원일은 실크로드 곳곳에서 만난 길 위의 음악가들로부터 새로운 영감을 얻는다.

△9월 29일 오후 10시 35분에 방영되는 3편 '길 위의 재주(50분)'는 일러스트레이터 밥장이 바라본 실크로드다.



4편 '바람의 길'에서 작곡가 원일과 무용가 차진엽이 실크로드에서 받은 영감으로 만들어낸 음악과 무용을 경주 황룡사지에서 공연한다.

고대 신라에 마술이 있었다. "고도의 기술이 결합된 놀이는 마치 마술과 같다" 다양한 연희 장면을 기록한 일본의 고서 〈신서고악도〉에는 신라의 연희 장면 '입호무'를 인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고대의 기예는 잡기 또는 산악백희로 불렸는데, 오늘날 서커스의 형태로 전승되고 있다. 중국 최고의 잡기예술 교육기관으로 꼽히는 하북성 오교잡기예술학교에는 실크로드를 누비던 재주꾼들의 끼를 잇는 어린 기예인들이 있다. 마치 사진을 찍듯 그려낸 고대의 그림들은 마술과 같은 고대 기예를 사실인 듯 환상인 듯 증명하고 있다. 일러스트레이터 밥장이 길 위의 재주꾼들을 화려하게 되살려 낸다.

△10월 3일 낮 12시 10분에 방영되는 4편 '바람의 길(50분)'에서는 작곡가 원일과 무용가 차진엽이 실크로드 여행에서 받은 새로운 영감으로 만들어낸 음악('바람의 길')과 무용을 경주 황룡사지에서 선보인다.

동 · 서양의 문물이 오고간 실크로드가 중국에서 끝나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 있지만 그 길은 신라의 서라벌까지 이어졌다. 아니 서라벌에서 시작됐다. 한반도에 존재하는 많은 유물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오늘의 한국을 살아가는 음악가와 무용가는 기나긴 실크로드 여정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그들은 그 영감으로 만든 음악과 무용을 경주 황룡사지에서 펼친다. 신라의 화려했던 문화를 상징하는 황룡사지는 지금 주춧돌만 남아 있는 아쉬운 실크로드이지만 무한한 상상력을 펼치게 하는 공간이다. 다시 신라의 음악과 무용이 실크로드를 출발한다. 실크로드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 분명한 '매혹의 길'이다.



키질 석굴 벽화에 그려진 구자국 악기들.

1편 길 위의 몸짓
9월 20일 (금) 밤 10시 / KBS 1TV(50분)
2편 길 위의 소리
9월 27일 (금) 밤 10시 / KBS 1TV(50분)
3편 길 위의 재주
9월 29일 (일) 밤 10시 35분 / KBS 1TV(50분)
4편 바람의 길
10월 3일 (목) 낮 12시 10분 / KBS1 TV(50분)



화조도목판화(달과 토끼)

화조도로 보는 판화의 세계

고판화박물관 개관 16주년 기념 특별전
'판화로 보는 동아시아 화조도의 세계'
9월 27일부터 2010년 1월 20일까지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개관 16주년을 맞아 9월 27일부터 2010년 1월 20일까지 특별전 '판화로 보는 동아시아 화조도의 세계'를 개최한다.

2019년 문화재청 생생문화재사업의 일환으로 열리는 특별전은 그동안 고판화박물관이 수집한 6천여 소장품 중에서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의 화조도 판화를 비롯해 명 · 청시대의 화조도관련 화보류와 화조도와 화보를 찍었던 판목 등 70여 점을 전시한다.

화조도는 꽃과 새를 소재로 하여 그린 그림으로, 넓은 의미로는 조류만이 아닌 동물전체를 포함한다. 동양회화권에서 산수와 인물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

지금까지 국내외서 열렸던 화조도 특별전은 회화작품 위주로 이루어졌거나 고판화 전시회의 한 부분으로 화조도가 등장했다. 이번 전시는 판화로 이루어진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의 아름다운 화조도 판화와 명 · 청시대 화조도의 교본이 되었던, 십죽재화보와 목본화조보, 초본화시보와 개자원화전 영모보도 선보이는 등 화조도를 입체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계기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전시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목본화조보 목판 원판은, 명나라 때 만들어진 목본화조보를 일본에서 18C초에 복각한 목본화조보의 목판 원판으로 300여 년 전의 아름다운 화조도 목판화 원판이다.

한선학 관장은 "30여 년의 발품으로 6천여 점의 동아시아 고판화 유물을 수집하여 개관한 고판화박물관이 시민들과 전시와 교육을 통해 16돌을 맞이하면서 세계적인 인쇄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수집가들에 의해 발견된 유물이란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수집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번 전시와 함께 제10회 원주 세계 고판화문화제가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에서 열린다. 033-761-7885.

박재완 기자

나눔으로 가을 여는 수국사 산사음악회

제6회 수국사 나눔의 노래
9월 28일 오후 7시 수국사 특설무대
김경호, 수국사 · 정해사 연합합창단 등 출연

가을을 맞이하는 산사음악회가 곳곳에서 열리기 시작했다. 서울 수국사(주지 호산)는 9월 28일 오후 7시 경내 특설무대서 '제6회 수국사 나눔의 노래'를 개최한다.

지역민 등 사부대중 3천여 명이 함께하는 이번 음악회는 공연 수익금 전액을 장학금 등 지역 기금으로 기부하는 나눔의 지역축제로 펼쳐진다.

황금법당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이번 음악회는 김경호 밴드가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금지된 사랑' 등으로 무대를 열고 약 40분 동안 공연을 펼친다. 이어 가수 우순실이 자신의 대표곡 '잃어버린 우산', '꼬깃꼬깃해진 편지' 등으로 무대를 이어간다. KBS 전국노래자랑 상반기 결선대상 수상자 권미희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 전수자 정현숙, 비보이 세계대회서 30여 회 우승한 퓨전엠씨와 수국사 · 정해사 연합합창단(지휘-최현우 · 연정연, 반주-한어진)이 출연해 공연을 펼친다. 또한 제주 약천사 어린이합창단이 출연해 특별공연을 펼친다.



지난해 열린 수국사 나눔의 노래 모습.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은 "이번 음악회는 지역민들과 함께하고, 지역민을 돕기 위한 음악회로, 많은 대중이 참여해 음악회의 취지가 빛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공연의 취지와 바람을 밝혔다.

박재완 기자





"北 불상 조성자, 한반도 중·남부 佛母"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
北 조선후기 불상 분석해

北 공식 인정 사찰 총 59곳
27곳에 192점 불상 봉안돼
대부분 한국전쟁 이후 이운
양식 비교 통해 僧匠 추론
중 · 남부 활동 장인 작품 많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평양 동금강암 목조여래좌상(사진 왼쪽)과 남원 실상사 약수암 목조여래좌상(사진 오른쪽)의 모습. 도식화된 옷 주름 표현과 하단 연봉우리를 통해 조선후기 승려장인 봉현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사진제공=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

북한 소재 사찰에 봉안된 조선후기 불교조각에 대한 개괄적 연구가 발표됐다. 그간 북한불교 미술에 대한 연구는 드물며, 임란 이후 집중적으로 불사가 이뤄진 조선후기 조성 북한 지역 불교조각을 집중 조명한 연구 사례도 찾기 어려워 주목된다,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은 9월 20일 서울 법련사 교육관에서 열린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보경)이 개최한 제132차 정기월례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북한의 조선후기 불교조각 연구'를 통해 북한 사찰에 봉안된 불상들의 양식, 연원, 조성작가 등을 분석 · 추론했다.

최선일 위원은 지난 2011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가 간행한 〈북한의 전통사찰〉(총 10권)을 중심으로 불교조각 양식을 분석하고, 일제강점기 재산대장을 통해 불상의 이운 여부를 살폈다. 또한 남한의 조선 후기 기년명 불상들과 북한 동일 시기 불상들의 양식적 비교를 통해 조성 승려 장인들을 추론했다.

최선일 위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사찰은 총 59곳이며, 폐사지는 5곳이다. 이중 27개 사찰에 192점의 불교조각이 봉안돼 있으며, 이중 조선 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은 11곳에 38점이다.

하지만, 이들 불상들은 대부분 원조성처가 아닌 한국전쟁 이후 이운 · 봉안됐다는 게 최선일 위원의 분석이다.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사찰재산대장을 대조한 최선일 위원은 "평양특별시에 소재한 동금강암은 1920~30년대까지만 해도 석조아미타불, 석조관음보살, 석조독성불, 석조미륵불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목조여래좌상만이 봉안돼 있다"면서 "현재 불상은 일제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 이후 이운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평안북도 보현사, 함경북도 개심사, 함경남도 용흥사, 황해남도 월정사, 황해북도 성불사 등에 봉안된 불상들도 일제강점기 재산대장에 기록된 목록과는 차이를 보였다.

또한 최선일 위원은 남한 지역 조선후기 기년명 불상들을 비교하고 "북한 지역에 남아있는 조선후기 불상들은 한반도 중 · 남부에서 활동했던 당시 승려 장인들에 의해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최선일 위원에 따르면 이들 불상은 17세기 전반의 현진 계보, 17세기 후반의 영철과 금문의 계보 작품들이다. 또한 18세기 전반에 활동한 진열이나 상정 · 봉현이 제작한 불상들도 확인된다.

실제 평양 동금강암 목조여래좌상은 남원 실상사 약수암 목조여래좌상과 비교한 최선일 위원은 "도식화된 옷주름 표현이나 하단 연봉오리 처리 등이 1760~80년대 활동한 상정의 계보를 이은 봉현이 제작한 불상"이라고 설명했다.

최선일 위원은 "조선 후기 불교건축과 불교조각 및 불교회화 등을 만든 주도세력은 한반도 중부와 남쪽에서 활동한 승려 장인들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1790년 화성 용주사 불사를 진행한 스님들이 주로 남부 지역에서 활동한 승려 장인이라는 문헌을 통해서도 짐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통산사 38곳 문화재 활용사업 선정

문화재청 내년 사업처 선정… 생생문화재 등 386선

내년에는 전통산사 38곳에서 산사의 성보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2020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전통산사' 38선 △'문화재야행' 36선 △'생생문화재' 159선 △'향교 · 서원 문화재 활용' 114선 △'고택 · 종갓집 활용' 39선 총 386선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들은 문화재청의 대표적인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됐다.

2018년부터 시작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인문학적 정신유산과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전통산사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체험 · 공연 · 답사 등으로 향유하는 고품격 산사문화 프로그램이다.

이번 사업 공모에는 총 59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심사를 거쳐 38건이 선정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남원 실상사의 '실상사, 천년의 향기' △논산 쌍계사의 '쌍계 마바시(마음을 바꾸는 시간)' △나주 불회사의 '호랑이는 석장승을 등에 업고' △제주 선덕사의 '보멍, 들으멍, 마음에 새기다' 등이 진행된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국내 곳곳의 산사가 지닌 저마다의 특색과 고유의 이야기를 담은 흥미로운 행사들이 준비돼 있다"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콘텐츠화해 문화재가 역사 교육의 장이자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총 214건의 신청 중 159건을 선정했으며, 이중 1~2년 차 사업으로 선정된 '시범육성형'이 72건(45%), 3~5년 차 '집중육성형' 54건(34%), 6년 차 이상인 '지속발전형'이 33건(21%)이다.

문화재야행 사업은 지역 내 문화유산과 주변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57건의 공모사업 중 16개 시 · 도의 36개 사업이 선정됐다.



고창 선운사에서 열린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행사.

올해 공모부터 신설된 고택 · 종갓집 활용사업은 고택 · 종갓집의 전통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충남 계룡시 사계고택, 경북 칠곡군 해은고택 등 전국 고택 39곳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해 문화재청은 "2018년 사업별 모니터링 결과 280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해 303만 명의 관람객이 참여했고, 2061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이 같은 국민적 호응에 힘입어 내년에는 사업을 보다 확대해 386개 행사를 전국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맞춤형 활용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하고, 활용 전문인력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는 등 고용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성민 기자

대행 사상, 인문 · 종교학으로 접근하다

한마음과학원, 9월 28일 안양본원서 학술대회

'한마음 주인공 관법'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사상을 인문학 · 종교학 · 과학 등을 기반해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은 오는 9월 28일 오전 9시 30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 강당에서 제4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총 4개 섹션으로 이뤄지는 학술대회에서는 대행 사상을 제반 학문으로 접근한 연구들이 발표된다.

대행 사상의 인문학적 접근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섹션에서는 '주인공관법 교수학습모형' 개발과 학교현장 적용 방안 탐색(안정현 한마음과학원 교육학팀)과 대행선사의 젠더적/젠더초월적 특성과 젠더 관련 법문(박소진 신한대 교수)이 발표되며, 두 번째 섹션에서는 올해 하반기 박사학위를 받은 혜교 스님이 자신의 학위 논문 '오공의 한마음'을 소개한다.

세 번째 섹션에서는 대행 사상에 대한 종교학적 접근이 이뤄진다. 독일 본 대학의 만프레드 후터(Manfred Hutter) 교수가 '물질 세계와 현대 사회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서 받은 영감과 고찰'을 김재영 서강대 교수가 '대행선사의 삶과 저술에 축적되어 있는 심리학적 통찰'을 각각 발표한다.

대행 사상의 과학적 접근을 주제로 한 네 번째 섹션에서는 마르시 미들브룩스(Marcie Middlebrooks) 타이완 국립 중산대학 교수가 '인류학, 인류세 이상한 친족 만들기, 크툴루세 - 대행선사의 법문과의 연관성탐구'를, 한스 조르그 에플(Hans-Jorg Epple) 독일 베를린 샤리테 대학병원 의학박사가 '대행선사의 가르침과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상과 의학'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청동 스님(동국대 한국불교학연구소), 한자경 교수(이화여대), 청강 스님(동국대 선연구소), 김용표 명예교수(동국대), 청고 스님(국제문화원), 안영우 원장(가정의학전문의)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원효와 불교사상들의 접점은

동국대 세불연, 9월 28일 제16차 학술대회

원효 스님(617~686)과 다른 불교 사상가들의 접점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소장 고영섭)은 9월 28일 오후 1시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분황 원효와 불교사상가들의 만남과 대화 IV'를 주제로 제16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원효 스님과 승랑 · 혜균 · 원측 · 의상 · 지눌 스님의 접점을 모색하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된다.

발제자로는 김영미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외래교수, 조윤경 안동대 동양철학과 교수,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박보람 충북대 철학과 교수, 김방룡 충남대 철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논평자로는 이지향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원, 한명숙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조윤호 전남대 철학과 교수, 고승학 금강대 불교학과 교수, 정영식 성균관대학교 문화콘텐츠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참석한다.

신성민 기자

'백제불교미술' 모든 것 알고 싶다면

한국미술사硏 강좌 개설

백제불교미술 전반을 살펴보는 강좌가 열린다.

(사)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9월 23일부터 12월 9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불교미술의 전개와 백제의 우아한 미술'을 주제로 제54회 박물관 대학을 개최한다.

총 12강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9월 23일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동국대 명예교수)의 '불교의 수용과 고귀한 백제의 마애불'을 시작으로 백제불교미술 전반이 다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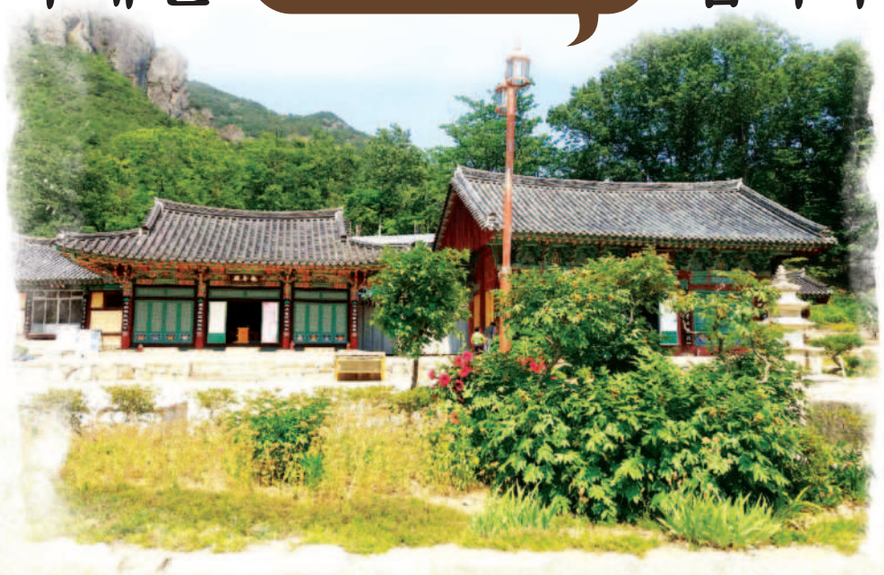
강사로는 이용진 국립청주박물관 학예사, 이귀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장, 소재구 前 해양문화재연구소장 등이 참여한다.

강의 장소는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1길에 있는 한국미술사연구소이다. 수강료는 17만원(학생 15만원)이다. (02)3673-3426

신성민 기자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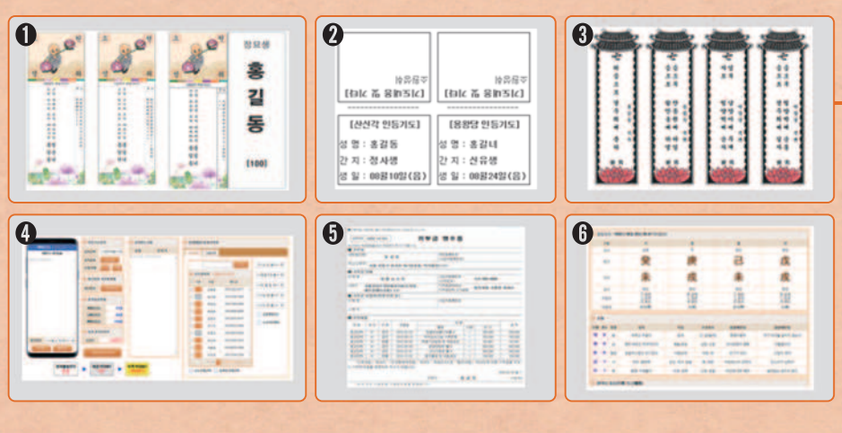
☎ 문 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GM since 2015 GMSOFT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대안 스님의
24절기 사찰밥상
⑰ 백로(白露)
뿌리연잎찜 · 연근삼색찜 · 하비죽

풋연자, 찜과 죽 가능한 건강 식재료

〈열양세시기〉를 살펴보니 "중추일을 가배라고 칭한 것은 신라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삼국사기〉에 나오는 "신라 가배에서 비롯된 말로 일종의 부녀자들의 길쌈대회를 칭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만물이 성숙하고 중추가절이라고 칭하므로, 민간에서는 제일 중히 여긴다. 이날 아무리 궁벽한 시골의 가난한 집이라도 으레 모두 쌀로 술을 빚고 닭을 잡아먹는다. 안주나 과일도 분수에 넘치게 가득 차린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도 있다. 사찰의 추석차례상도 예외는 아니다. 절 주변에서 자라는 알밤을 주워서 불전에 올리는 일부터 시작되는 백로는 이슬이 시작되는 절기로 풍성한 가을의 문턱이다.

차례상에 빠지지 않는 송편은 흰 쌀떡에 솔잎을 넣어 찌는 것으로 솔의 좋은 기운이 스며 들어서 장수를 기리는 의미로 만들고, 여름내 차가운 음식을 상식하여 몸에 들어있는 냉기를 내보내기 위해 토란국을 먹는다.

연밭의 익어가는 풋연자 역시 좋은 식재료이다. 지금이야 연자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몸값이 높아지고 있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사찰의 몇몇 스님들에 의해서 연음식은 만들어졌다. 지난해 중국 남경에서 기차를 타고 본 끝이 보이지 않던 연밭을 잊지 못한다. 그 드넓은 땅에 모두 연꽃이 피어있어서 눈을 뗄 수 없었던 적이 있다. 그 지역에서는 그 많은 연자를 좋은 식재료로 가공하여 어느 곳에서도 쉽게 연자를 살 수 있게 발전



시켰다. 하지만 우리의 농업현실은 아직 국내산 연자를 쉽게 접하지 못하고 있다. 풋연자 역시 한 때 먹는 시절음식이기에 때를 놓치면 이미 마른 연자로 변화된다. 연자는 잘 불린 다음 밥에 넣거나 갈아서 죽을 쑤기도 하고 들깨가루를 넣어 찜국으로 만들기도 한다. 연자는 오래 먹으면 피부가 맑아지고 혈액도 정화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먹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식품이다.

연음식은 연꽃 역시 필자가 발우공양을 개업하면서 개발한 음식으로 연과채라고 불리기도 한다. 백련꽃을 활짝 편 다음 그 위에 구절판 재료를 올리는데 연근 속에 여러 색깔의 쌀을 넣고, 연근밥을 만들어 한 조각씩 썰어 올린 다음 송이장아찌로 마무리하였다. 항간에 웬만한 고급한정식에서 이 음식은 통용되고 있고, 발우에 검은콩을 담고 각종 부각을 꽂아서 탑처럼 만든 모양 역시 음식하는 이들이 벤치마킹의 수단으로 이용한 음식이다.

연잎으로 만든 죽은 양귀비의 연인 홍수천이



즐겨먹던 음식으로 하비죽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연한 연잎이 자양강장제로 쓰이던 시절이 있었기에 힘을 쓰는 장수가 죽을 즐겨먹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연잎을 갈아서 즙을 만들어 두고 쌀죽을 푹 끓인 다음 마지막에 이 연잎액을 넣고 죽을 만들면 그 빛깔이 선명하고 화사하여 즐거운 음식상이 되기도 한다. 연잎의 쓰임새는 다양하여 연잎액을 만들어 밀가루 반죽을 해서 칼국수 면으로 탄생되기도 하는데, 투명한 유리볼에 연잎칼국수를 넣고 그 위에 연꽃 한 송이 펼친 다음 각종 고명을 얹어내면 식물요리인데도 많은 분들이 고운음식에 탄성을 자아낸다.

가을빛은 나뭇잎이 시들어 가도 각종 열매를 키우는 나무와 더불어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선사해 준다. 이산혜연 선사 발원문처럼 이 우주만물에 깨달음을 이룬 불성들이 낱낱이 깃들어 우리에게 자양분이 되어준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무정물인 돌과 바위에서도 식물이 자라지 않는가?

산하대지가 한껏 결실을 피우는 시기, 우리도



자성불에 의지하여 앞부처가 뒷부처에게 전하는 뜻을 헤아린다면 결코 허투루 살수 없는 게 이번 생이기도 하다. 수없이 되새겨 봐도 정진하지 않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을 위해 오늘 먹는 이 음식이 모두에게 깨우침의 단초가 되기를 염원한다.

뿌리연잎찜

재료: 연잎 1장, 연근 80g, 마 50g, 당근 40g, 고구마 ½개, 브로콜리 3~4꼭지, 감자 ½개, 단호박 50g, 밤 3알, 은행 10알, 구운소금 약간, 식용유 약간

1. 연근은 껍질을 벗기고 2㎝로 통썰기해서 크기를 보고 2~4등분한다. 익는 속도가 더디므로 미리 삶아놓는다.
2. 감자, 고구마, 당근은 손질해 같은 크기로 자른다.
3. 단호박도 껍질을 벗기고 씨를 파낸 다음 다른 채소크기와 맞추어 잘라준다.
4. 마도 껍질을 벗기고 연근과 비슷한 크기로 잘라준다.
5. 밤은 껍질을 벗겨 2등분하고, 은행도 식용유를 살짝 두른 프라이팬에 굴리면서 구운 다음 키친타올로 속껍질을 까준다.
6. 잘라준 뿌리채소 모서리를 다듬어준다.
7. 브로콜리도 한 입 크기로 잘라놓는다.
8. 연잎에 준비한 채소를 넣고 구운 소금을 뿌린 후 보자기 싸듯이 연잎을 감싼다.(이쑤시개로 고정)
9. 김이 오른 찜기에 20분~30분정도 쪄낸다.

연근삼색찜

재료: 연근 각 1개(3조각), 찹쌀(2컵), 백련초가루 40g, 치자가루 40g, 녹차가루 40g, 소금약간(전날 각각의 색소에 담가놓는다)

1. 연근은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씻어 절반을 자른다.
2. 불린 찹쌀은 3등분해서 백련초가루, 치자가루, 녹차가루를 잘 섞어서 찹쌀에 물들인다.
3. 물들인 찹쌀은 소금으로 간하고 버무려 연근 속에 넣는다.
4. 김이 오른 찜 솥에 30분정도 찐다.

하비죽

재료: 연잎 1장, 연근(200g) 1개, 멥쌀가루 반컵, 잣 1T, 소금 약간

1. 연근은 껍질을 벗긴 후 강판에 간다.
2. 연잎은 물 1컵을 넣고 믹서에 간 후 체에 받쳐 즙만 짜둔다.
3. 갈아 놓은 연근을 냄비에 넣고 물 2컵을 부은 후 끓인다. 저으면서 멥쌀가루를 넣고 끓이다가 뜸 들일 때 연잎액을 넣고 젓는다.
4. 다 익으면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5. 그릇에 담은 후 잣을 띄워낸다.



류재환의 건강 100세
③ 건강검진과 체질

음식 섭취로는 체질 바뀌지 않아

불교에서 삼독(三毒)으로 탐(貪) 진(瞋) 치(癡)가 있다. 치는 어리석음으로 모든 번뇌의 근원이다. 우리는 흔히 우리 몸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한다.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몸이니 그만큼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많은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

우리 몸에 관련된 어리석음 중 건강과 관련된 어리석음만큼 많은 것도 없다. 예를 들면 인체의 혈액과 체액은 정상적으로 pH 7.3~7.4 로 약한 알칼리성을 띤다.

이런 약알칼리성 체액이 정상으로 보고 pH가 아래로 내려가면 '산성 체질' 이라면서 큰일 날 듯 이야기를 한다. 먹는 식품을 산성과 알칼리성으로 제멋대로 나누며 어떤 것은 산성식품이고, 어떤 것은 알칼리성식품이라고 한다.

문제는 먹으면 알칼리성 체질로 바뀐다는 등의 잘못된 소견을 주장하는 경우다.

한 가지 예로 식품을 태워서 남은 재로 측정원소(이온)의 분포에 따라 산성이나 알칼리성 식품으로 나누고 있는데, 식초 같이 산성을 띠는 식품이 알칼리성 식품이 되고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중성인데 산성식품으로 취급을 하며, 더 나아가 먹는 물도 알칼리성 물이니 환원수니 육각수라는 이름으로 주위 사람을 현혹하고 있다.

그럼 우리 몸에 산성이나 알칼리성을 띠는 물질(원소)이 많이 들어오면 바로 몸의 체질이 바뀌는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의 모든 성분이 다 소화되는 것도 아니고, 음식에 포함된 미네랄과 원소 등의 물질이 모두 체내에 흡수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 인체의 혈액이나 체액에는 잉여의 산이나 알칼리를 중화하는 강력한 완충기능(buffer system)이 있어 혈액의 산도(pH)는 중성 부분으로 항상 유지되며 알칼리 용액을 혈관을 통해 다량 주입하지 않는 한 수소이온지수(pH) 변화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체액은 pH가 좀처럼 변하지 않게 철저히 조절되고 있지만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포도당보다는 지방산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간에서 산화된 지방산을 케톤체(ketone body)로 변화시킨다. 이 케톤체는 지방산이 분해되어 저분자 물질로 변한 것으로 약한 산성을 띤다.

문제는 이런 케톤체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혈액의 pH를 산성 쪽으로 기울게 할 수 있다. 그 결과 혈액의 점성도를 높여 모세혈관 순환(피의 흐름)을 악화시켜 손 · 발끝 혈액순환을 저하시켜 상처 발생 시 치료가 지연된다.

이런 경우와 같이 음식물(식품)을 통한 그릇된 믿음은 질병 치료는커녕 질병 악화와 치료의 적절시기를 놓치는 원인이 된다. 음식 하나하나에 대한 잘못된 어리석음이 환자 자신의 불행은 물론 가족 모두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 어리석은 판단을 경계해야 되겠다.

인체 혈액과 체액 pH 7.3~7.4가 정상
2차 검진 권유 소홀이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몸에 대한 어리석음을 걷어내는 것에는 건강검진이 있다. 건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진단이다.

현재 직장이 없는 20~30대가 국가 건강검진 대상에 포함이 되었고 검진 항목은 비만, 시청각 이상, 고혈압, 신장 질환, 빈혈,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폐결핵 등이다. 40대 이후부터는 5대 암과 여러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검사 항목이 추가된다.

여기서 건강검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국가검진 외 개인적 검진이 있는데 검사 항목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검진은 아니다. 주된 건강 검진의 목적은 암 예방과 혈관, 심장, 뇌를 비롯한 신체 기관 상태 확인으로 압축된다.

가장 염려되는 암의 경우 국가 암 검진 5대 암과 권장 검사와 특히 위암은 40세부터 1~2년마다 위내시경 시행, 간암은 고위험군(기존 간 질환, 간염 포함)의 경우 6~12개월 마다 간초음파 검사, 대장암은 50세부터 3~5년 주기로 대장 내시경 또는 분변 잠혈 검사를, 유방암은 40세부터 2년 주기로 유방촬영검사, 자궁경부암은 30세 이상 2년마다 자경경부세포검사, 비만 · 고혈압 · 당뇨병 환자는 심장 관상동맥질환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건강검진 요령껏 잘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건강진단이 붐비는 시기를 피한다.

일반적으로 10월에서 12월까지는 대부분 건강검진 센터는 일정을 잡기 힘들 정도로 예약이 많이 잡혀있다.

가장 편하게 검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봄에서 여름 사이인 4월에서 8월간이다. 한 달을 놓고 본다면 월말보다 월초가 더 좋고 덜 붐빈다.

둘째, 복용중인 약과 자신의 질병이 있거나 증상이 있으면 메모해서 건강검진 의료진에게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셋째는 중요한 2차 검진 권유를 소홀이 해서는 안 된다. 2차 검진통고를 받고. 재검사를 시행한 사람은 총 검사대상에 30%가 채 인된다. 2차 정밀검진을 통해 실제로 질병여부와 아니면 질병 초기단계인지 더 나아가 치료시작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끝으로 좋은 건강검진이란, 첫째, 생에 주기에 맞는 시행, 둘째, 의료진의 신뢰와 숙련도가 높은 것, 셋째, 의료기관의 장비 · 시설의 정확도가 높은 것, 넷째, 어떤 질환이 진단될 시에 연계 치료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 당부는 건강 검진은 내 몸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보기위해서 행하는 의료 검사다. 건강검진을 마치 유행으로 주변이 하니 같이 한다거나 주위 사람의 권유해 수시로 받는 등 불필요한 검사를 남용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장(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주임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남양주시 불교연합회와 생명나눔실천본부가 함께하는

제11회 불암사 산사음악회

국화향에 취하다

10월 5일 (토) 오후 4시 불암사 경내 특설무대

사회자



이익선

초대가수 및 공연



박상민



정수라



금잔디



마하무용단



김양



주권기 외 2팀

* 부대행사 장기기증 캠페인 & 환자 후원금 바자회 / 송산노인종합복지관 바자회 / 불암사 국화축제

주 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 남양주시 불교연합회

문 의 02-734-8050 (생명나눔) / 031-527-8345 (불암사)

후 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불교조계종 Global Inspiration 세계속의 경기도 남양주시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일산병원 LabGenomics BS HLA Laboratory 의료법인 삼광의료재단 Samkwang Medical Laboratories BBS 불교방송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